



3

1995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5. 3호

(루계 569)



◆◆◆◆◆◆◆◆◆◆ 차 례 ◆◆◆◆◆◆◆◆◆◆

두분	4
산 력사.....	5
인민의 옷감.....	6
위대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작가들을 이끄시여	7
쪽무이보자기.....	8
위인들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꽃	9
위대한 령도자	9
고무총소나무.....	10
토지개혁기념비여	12
추석날에 핀 살구꽃	13
명언	14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혁명적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15
예언	19
가로등	21
명제해설	22
력사의 메아리 (외 1 편).....	23
우리의 밤	24
어머니의 모습	25
백두의 숨결.....	26
모판의 파란 잎새.....	33
막내아들	34
이 봄의 노래는 어디에.....	43
배심	44

봄 너는 가도.....	50
영원한 동행자의 불타는 심장	51
여기 한번 서본 사람이라면	58
백양나무는 설레인다	59
9 층폭포 (외 1 편).....	65
맹산을 길들인 사람들	66
바늘 (외 1 편).....	69
땅에 대한 이야기	70
어느날엔가는 작별하리	72
전인민적감정을 깊이있게 일반화한 맹세의 노래	73
속삭이고싶은 말 하고싶은 이야기	75
평양역 시계탑앞에서	76
고향의 품에 안겨 (외 3 편)	77
비결 (외 2 편).....	79
빨래를 하며	80

두분

김종백

두분이 함께 오시였습니다

몇해전 우리 농장에

그때 먼저 오신분은

우리의 **김정일**동지

그이께서는 수령님 모실 포전도 돌아보시고

만나주실 사람과도 먼저 낯을 익히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오시여

농장의 풍년작황을 두고 기뻐하시며

우리들을 치하하실 땐

영광의 기념사진도 손수 찍어주시고

현지도일정을 마치고

수령님께서 농장을 떠나실 땐

수령님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겨주시며

자신께서 도울것이 뭔가고 알아보시고

뒤따라 농장을 떠나시였습니다

그날의 기념사진과 함께

우리 가슴에 늘

두분을 함께 모시고 살았습니다

농장의 사무실과 선전실에도

크게 모시고 우러러봅니다

우리에게 행복만을 주시려는

하나의 생각, 하나의 뜻, 자애로운 한모습으로

이제 우리 농장에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오시면

우리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오실것을

우리는 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수령님 다시 오실수 없는 먼길을 가셨다고

기쁨을 드리자고 황금이 되어 실례는 저 들관

다시는 보실수 없다고

언제나 두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는 일 끝까지 보아주시며

조언도 주시고 기뻐도 하실분

대를 이어가며 인민의 운명을 다 맡아주실분

그이는 우리의 **김정일**동지

자애로운 그 모습에서 수령님의 영상을

인민은 언제나 뵈고삽니다

산 력사

김형준

수천년 흘러온 강성대국의 보루인양
동방일각 대박산마루에 우뚝 솟은 단군릉
반만년전 력사가 꿈을 털고 일어선듯
강동땅에 펼쳐진 조선의 산 력사

해빛도 눈부시고 단풍도 유정한데
반만년 자랑높은 단일민족의 피줄인양
그 흐름 도도한 대동강넘어
단군릉을 찾아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얼마나 기다리던 력사의 순간이더냐
흘러온 파란만년 배달민족의 력사와
흘러갈 주체시대 **김정일**민족의 무궁할 력사가
그이앞에 상봉을 선언하는 이 순간

칭기스한의 말발굽도 《서문》호의 대포도
짓밟고 불태우지 못했던 조선의 존엄인양
썩-! 문주는 길을 열어 그이를 맞이하고
충충계단은 그이앞에 펼쳐진 수천년력사

한계단한계단 력사를 거슬러 그이께서 오르시니
화석의 꿈마냥 수천년 잠들었던 력사가
환생의 숨결 받아 영생의 녀 지닌듯
그이앞에 달려와 안기는 단군릉!

아, 세기를 주름잡아 달려오는 력사여
말하라! 더럽히지 않을 민족의 존엄 지켜
마신 눈물 얼마며 흘린 피 그 얼마더냐
육골혈혼이 진토되어 강성대국이 된 조선이어

말하라 력사여 너는 세기의 증언자
인간의 존엄 지켜 숨진 락화암의 꽃은 얼마며
불에도 타지 않고 씻기지 않을 혈분과 투석이
강을 이루고 산을 이룬 애국과 망국의 력사여

...감회에 잠기신 그이 어찌 그렇지 않으랴
반만년을 구울려온 력사의 수레는
풍상서린 세월의 언덕과 진펄길에
찬탈당한 유산, 외국과 위조는 그 얼마며

애민애족, 사대와 매국의 격전에서
부러진 정의의 창검들이 력사의 파편되어
세월의 락엽에 묻혀 숨겨지는 아픔을
통절히 절감하신분이 수령님과 그이이시였거니

만고의 애국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민족의 유산 찾아 력사에 빛내시려
력사의 보탑을 잡고 세월의 이랑을 번져
결국은 민족의 녀과 유구한 문화를 찾아주셨고

절세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절개높은 조선의 정신에 불을 지퍼
강철의 보검을 버려 곳곳이 지켜낸
조선의 순결한 피줄 만대에 이어놓으셨거니

아, 돌에도 피와 녀을 주시는 사랑을 안고
감회에 잠기시여 둘러보시는 강동의 산촌
대박산마루로 사라진 한줄기 오솔길은
단군이 말을 달려간 그 길이 아닌지

강동벌에 훨훨 날아에는 백학의 무리
강성대국 조선의 옛 도읍이었던 자랑 있어
계절없고 삶의 터전을 예 정함은
고조선 화목한 민족의 녀이 아닌지...

순간에 반만년 력사를 더듬으시는 그이 품에
백발을 날리며 달려와 안기는 단군릉
걸어온 5천년 력사의 자욱마다에 새겨진
유구한 력사를 궁지높이 아뢰이는 신하들

아, 석등이어 불을 지퍼라 반만년전 그 불을
비파형 창검아 서리발 날려라 조선의 기상을
릉파수 호랑아 톱을 들어 퇴성터쳐 알려라
원시조를 찾아낸 민족의 자랑을

세월이어! 력사여 거침없이 흐리라
그 누가 력사를 흐르는 물과 같다고 했더냐
물에 실려간 력사는 영영 다시 못오는 거품!
위인의 기억속에 흐르는 력사는 영원한 산 력사!

민족의 아버지 **김일성**동지께서 기억하시고
민족의 령수 **김정일**동지의 마음속에 새겨진
인류력사는 부와 정의 혼탁없고
멀고 가까움, 변색과 퇴색을 모르거니

력사가 천년을 흐른다고 하라 만년을 더...!
세월이 빛처럼 빠르다 하라 억년을 더...!
허나 그이의 보증없는 력사는 멈춰선 지구
그이는 력사의 구심점, 력사의 조종판!

인민의 옷감

한원희

1

너무나 갑자기 오시였길래 너무나 뜻밖에 우리
방직공장을 찾아주시였길래 직기옆에서 그대로
친애하는 그이를 맞이하였습니다 꿈결에도 달려가
안기던 품이었길래 생시인 이 시각조차 정녕 꿈만
같습니다

아, 그이는 벌써 환하신 미소를 안으시고 직기바다
한끝에 들어서십니다 수수한 잠바옷을 입으신
그이를 뵈오니 직포공의 남다른 생각인지는 몰라도
밀물처럼 차오르는것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필의 천을 짜고짜서 온 나라에
보내주는 저희건만 어이하여 그이의 옷감만은
이날이때까지 생각하지 못했던가 이 하나의 자책이
가슴을 칩니다 그이를 뵈오니, 누구나 다 입는 옷을
입으신 그이를 뵈오니!

2

빛나시는 안광으로 직포기의 동작도 눈여겨보시고
혹은 도투마리에 감기는 비단필을 만족히 쓸어도
보시며 그이는 저의 기대를 향해 걸어오십니다 온
나라 인민이 우러르는 그이, 세계만민이 흠모하는
그이, 그이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천으로 지은
옷을 입으셔야 하리라만 이처럼 보통옷차림이신
그이를 가까이 뵈오니 더더욱 죄송해 송구해
부끄러움이 온몸을 뜨겁게 태웁니다
그이께 옷감 한벌 짜드리지 못한 방직공이 그 무슨
방직공이라, 해마다 연간계획을 넘쳐했다고 축하의
꽃다발을 받아안던 나날이여, 말해다오 하루에
백필의 천을 짤들 만필의 천을 짤들 그이의 옷감
한벌 짜내지 못한다면 저의 열정, 저의 땀이 어디에
소용있으랴
내 한생 다 바쳐서라도 그이의 옷천 한필만이라도
짤수 있다면 아, 이 가슴에 간절한 이 소원을
오리오리 천만오리 은실금실 날실과 씨실로
걸어놓고 은비단 금비단 짜고짜서 충성단 효성단
이름지어 올리면 저는 얼마나 행복한 방직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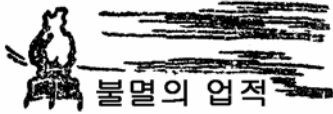
되랴, 얼마나 그 얼마나!

3

기쁨중의 기쁨의 순간입니다
꿈중의 꿈만같은 순간입니다
수고한다고 하시는 말씀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 저
멀리 하늘가에서 울려오는것만 같고 아득한 어린
시절의 요람가에서 들려오는것만 같은 무아경의
순간입니다
저도 몰래 솟구치는 눈물이 그만에야 그이의
옷자락을 적십니다 이를 어찌나 얼룩이 지면 참말
어찌나 바라보니 아 이 무슨 일입니까 그이의
옷천은 우리 공장에서 짠 천입니다 제가 짜고 우리
작업반동무들이 짜고 우리 직장동무들이 짠
천입니다! 우리 인민들 누구나 다 입는 평범하고도
수수한 천입니다
그이의 옷천은, 그이의 옷천은!

4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웃으십니다
저의 심정을 아시는듯 환히 웃으십니다
그이께선 그 해빛같은 미소속에 다 담으신듯합니다
우리 인민에게 더 좋은 옷감을 더 많이 짜보내면
자신께서도 당연히 더 좋은 옷을 지어입으시게
된다는 그 말씀을
아, 위대한분이시나 인민과 자신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한 나라의 령도자이시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적들을 전률케 하시는 천하명장이시나
인민과 똑같은 옷을 입으시는분!
우러러 우러르는 순간이여
이 순간은 제가 짜는 천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게
하는 순간입니다
례사로운 나날에 직포공의 삶이 얼마나 값높이
빛나는가를 깨우쳐안은 순간입니다
아, 제가 짜는 천은 우리 인민의 옷감입니다
우리 인민의 옷감은 바로
친애하는 그이의 옷감입니다!



위대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작가들을 이끄시여

오늘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안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보람찬 창작전투에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삶의 태양으로, 운명의 수호자로 받들어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것이 전체 인민들과 함께 우리 작가들의 변함없는 확고한 신념이며 의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는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의 리념이며 혁명적기치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의하여 실현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1994년 11월 1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받아안은 우리 작가들모두는 끝없는 걱정과 필승의 신념에 넘쳐 위대한 수령님의 령전에 다진 충효일심의 맹세를 더욱 굳게 가다듬으며 창작활동을 더 왕성하게 해나가고있다.

이 고전적로작은 사회주의리론의 무진장한 창조적잠재력과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일관되어있어 우리 작가들을 무한히 고무하고있다. 실로 그이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로 사회주의진리성과 불패성, 영원성을 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히시였다.

어떤 높이의 령도력과 령도에술을 지니고있는가 하는것은 령도자로서의 수령의 위대성을 규정짓는 근본징표로 된다. 그것은 탁월한 령도력과 령도에술을 지닌 령도자만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수 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벌리시는 사상리론활동의 특징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령역과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해답을 주면서도 심도가 더없이 깊은것이다. 그이께서는 심오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특출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작가들을 고무하면서 왕성한 창작활동으로 끝없이 떠밀어주고있다.

주체의 문예리론총서이며 대백과전서인 **《주체문학론》**과 **《영화예술론》**을 비롯한 수많은 문예저서들을 내놓아 주체의 문학예술리론을 완성시켜 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되새겨보면 불수록 작가들은 격동된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더우기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그이께서 최근시기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위대한 사상으로 하여 우리 문학창작의 총적방향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우리 당의 성스러운 위업을 형성하는데서 더없는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모든 작품들의 주제는 이 총적방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구체적인 문제들로 되였다.

참으로 자주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우리 문학은 영원히 변함없는 형상대상과 복무대상을 찾게 되었으니 그것은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인 사회정치적생명체였다.

우리 인민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가장 공고한 력사의 주체인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오늘에 와서 우리 문학은 이때까지의 인류문학이 대상하지 못하였던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찬란한 현실을 형상원천으로 하게 되였다. 우리의 현실에서 수령과 인민의 관계는 령도자와 전사의 관계를 넘어서서 어버이와 자식의 관계로 되고있으며 수령을 어버이로 모신 모든 사회성원들의 관계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한 관계로 되고있다.

정녕 수령을 어버이로 모시고 일심단결된 이 위대한 사회적대가정속에서 새로운 인간전형,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이 끊임없이 태어나고있는것이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존재와 활동원리에 맞게 문학의 모든 문제를 새롭게 형상하여 나가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건설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우리 문학에서 사회정치적생명체는 영원한 형상원천으로 된다. 사회정치적생명체는 우리 문학의 오늘은 물론 미래에도 영원히 형상원천으로 삼고 시종일관하게 옹호하며 복무하여야 할 항구적인 대상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리론적업적을 되새겨보는 작가들의 마음은 한없는 격동으로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사회정치적생명체를 형성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되는 수령, 당, 대중의 3위1체의 원칙을 작품창작에 훌륭히 구현하리라.)

작가들은 사회정치적생명체를 형성하는데서 혼연일체를 이룬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관계를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려내리라 굳게 결심하였다.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지향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작가의 탐구는 웅당 수령의 사상을 깊이 연구하는데로부터 시작하여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매시기당이 바라고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인민이 념원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깊이 파악하여야 한다.

《로동신문》, 신문 《조선인민군》, 《로동청년》 공동사설에 실린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그이의 사상리론을 창작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고있는 작가들의 결심은 더욱욱 확고해졌다.

(우리는 1990년대에도 2000년대에도 계속 당과 수령의 의도와 요구, 우리 인민의 지향에 대답하는 훌륭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할것이다.)

그렇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무엇보다도 시대의 요구와 근로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한 옳바른 지도사상과 리론을 지침과 등대로 해서만 승리적으로 개척될수 있다.

인류력사는 결코 자연사적궤도를 따라 굴러가는 숙명의 수레가 아니다.

인류의 최고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의 길에서 적지 않은 나라들이 우여곡절을 겪게 된것도, 또 인민대중의 사상정신적량식으로 될 문학작품창작에서 진정한 창작방법을 가지고있지 못하게 되는것도 옳은 지도사상과 참된 령도자를 가지고있지 못한데 있었다. 아무리 큰 배라도 라침판이 정확치 못하고 등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암초에 부딪쳐 파손되기마련이다. 력사의 교훈은 혁명의 참된 지도사상과 령도자의 중요성을 웅변적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오늘 우리 작가들의 운명과 밝은 창작적미래를 미덥게 담보하는것은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참다운 정치강령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가 것처럼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키고있는것이 결코 우연치않다.

인류의 리상인 사회주의를 새로운 과학적기초우에서 발전완성시킨 불멸의 총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이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정치대강은 그 진리성과 무한한 감화력으로 하여 우리 작가들을 끝없이 고무하면서 나날이 더 큰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

본사기자

쪽무이보자기

-김정숙군 혁명사적관에서-

천일수

가슴뜨겁구나

쫓박천 무어만든 보자기

김정숙어머님께서

신갈과 부녀회장에게 주셨던 보자기

저 쫓박은

아동단원들의 해진 옷

기워주다 남은것이 아닐가

아니면 새옷 한벌 못해입힌

어린 동생 팔굽에 대어주자 간수했던

그 쫓박이 아닐가

이 보자기를 무으시며

어머님은 생각했으리

적후공작의 그 나날에

이렇게 한참한참 누비듯이

한사람한사람 깨우쳐

혁명의 길에 내세우던 일

이 보자기를 주시면서

어머님은 바랐으리

이렇게 하나하나

《조국광복회》 새 조직도 꾸리고

《부녀회》 조직도 늘여가기를

정녕 쫓박천도 이렇게 무으면

큰 보자기 되듯이

한마음한뜻으로 우리도 뭉치면

나라 찾는 큰힘이 된다고

웃으면서 안겨주신 쪽무이보자기

보아도 다시 보아도

한갓 보자기가 아니구나

나라없는 아픔, 그 설음 가져낼

아, 김정숙어머님 무으신 쪽무이보자기

위인들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꽃

파비아우 칸뇨뚜 고디뉴

아름다운 꽃
향기로운 꽃 많은 나라에
비길데없이 진귀한 꽃이 있다네
위대한 주석과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에 대한
인류의 존경과 신뢰가 깃든 꽃
아 **김일성** 화 **김정일** 화

인민들은 우리르노라
볼수록 우아하고 황홀한 꽃
김일성 화에서
주석의 숭고한 모습 우리르노라

인민들은 자랑하노라
조선의 방방곡곡에 활짝 핀
김정일 화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부드러움
다 담아 붉게 타는 꽃
조선인민의 가슴마다에
희망과 열정을 안겨주는 꽃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인자하신 영상과 숭고한 뜻이 담긴
아름다운 그 꽃을

(필자는 뿌르뚜갈시인임)

위대한 령도자

샤히르 무함마드

위인을 모신 민족
그 민족은 위대하여라
위인을 모심으로 하여
그 민족의 명성
창공에 빛나라

위인께서 심으신 거목의 씨앗
위인께서 이룩하신 업적은
민족력사의 갈피속에
영원히 새겨져있어라

위인의 위업 이으시여
위인께서 가리키신 그길로
나아가시는분
그분 역시 위인이시여라

고상한 품모와 용감성
민족에 대한 사랑
위대한 목적 지니신

두분의 위인
김일성, 김정일 동지

위인의 위업 훌륭히 이어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그분께서 령도하시는 민족
그 민족은 위대하여라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뭉친 위대한 민족
이 민족이 지닌 꿈과 념원
내세운 목적은 성취되리라

위대한 그분께서
령도하시는 조선민족
정녕
위대하고 행복한 민족이여라

(필자는 우리 나라 주재 팔레스티나대사임)

고무총소나무

양덕역에서 내려 동북쪽으로 포장도로를 따라 옥류천을 거슬러 오르면 온천골어귀에 들어서게 된다.

여기가 유서깊은 대탕지혁명사적지이다.

온천골어귀에서 옥류천을 따라 얼마 가지 않으면 오른쪽 길옆에 두줄기로 뻗어오른 한그루의 큰 소나무가 있다. 그 소나무가 바로 고무총소나무이다.

하늘을 쳐든 대담한 용사의 기상으로 서있는 고무총소나무를 지나가면 사적전물인 동일러관이 나치고 이곳을 지나 조금 올라가면 오른쪽 산기슭에 군사놀이터가 있다.

이 전설은 군사놀이터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느날 어린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대탕지 마을 아이들과 재미나는 군사놀이를 하고계시었다.

그날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고무총으로 솔방울을 쏘아 떨어내기를 하시었다. 말하자면 고무총사격경기인 셈이다.

그이께서는 다른 애들이 기껏해 두세개를 떨어구거나 지어는 한개의 솔방울도 못떨구었는데 혼자서 서른개도 넘게 쏘아떨구시었다.

매번 쏘실 때마다 꼭꼭 솔방울을 맞혀 떨어질뿐 아니라 어떤 때는 한방에 두개, 세개씩 쏘아떨구기도 하시었다.

《히야!-》

애들은 그이께서 고무총을 쏘실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자 군사놀이를 하던 아이들은 친애하는 그이께 고무총을 쏘는 법을 배워달라고 졸라댔다.

어떤 애들은 고무총을 만들어달라고 무릅없는 청을 드리기도 했다.

그이께서는 스스럼없이 그들의 청을 받아주시었다.

《애들아, 그럼 같이 고무총을 만들자꾸나. 고무총은 우선 짝지발이 좋아야 해. 그러니 우선 짝지발을 하나씩 구해가지고 와서 멋있는 고무총을 만들어보자.》

아이들은 손벽을 치며 좋아서 어쩔줄 몰라했다. 그들중엔 순남이란 애도 있었다.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온천골어귀 숲속에 좋은 고무총대감이 있는것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시었다.

아이들은 저저마다 좋은 짝지발감을 먼저 차지하겠다고 승벽내기로 뛰어가면서 야단법석이었다.

순남이도 그들과 함께 숲에 들어섰다.

정신없이 짝지발감을 찾아 헤매던 그는 갑자기 친애하는 그이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여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군사놀이때처럼 시종여일 그이결을 떠나고싶지 않았던것이였다.

그런데 다른 동무들은 다 보이고 유독 그이의 모습만이 보이지 않았다.

(아니, 대장을 잊다니?)

그는 동무들을 불러 **김정일**대장을 찾아보게 하였다.

아이들은 그이께서 올라오시는것을 못보았다고 하면서 산기슭으로 내려가보자고 하였다.

순남이는 그이의 이름을 소리쳐 찾으면서 되돌아서 내려왔다.

마침내 그들은 평퍼짐한 산기슭의 아름드리 소나무아래 서계시는 친애하는 그이를 찾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산기슭에 우뚝 서있는 락락장송을 유난한 눈길로 이윽히 올려다보시며 무슨 생각인가 골몰해계시었다.

인기척을 느끼신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이 소나무를 좀 봐!》 하시며 동무들을 손짓해부르시었다.

《야, 꺾다리소나무다야!》

《하늘도 안보여!》

《그래, 정말 대짜구나!》

아이들은 물을 삼키는 수탉처럼 목을 잔뜩 뒤로 젖히고 눈이 아프게 소나무를 올려다보며 《야!》, 《야!》 감탄했다.

《순남아, 뒤로 좀 물러서서 한번 올려다봐!》 그이의 말씀이였다.

순남이는 그이가 가리키시는 자리에 서서 소나무를 바라보았다.

《저 소나무가 마치 고무총짝지발같지?》

그이의 말씀을 듣고 찬찬히 올려다보니 소나무의 줄기가 두갈래로 갈라진것이 정말 신통하게도 고무총의 짝지발같이 생긴것이 아닌가!

《이 고무총소나무의 짝지발에다 굵은 고무줄을 대고 큰 바위돌을 채워서 쏘면 얼마나 멋있을가? 하고 난 생각하던중이야. 난 이 큰 바위돌들을 모두 뽑아 이 고무총소나무에 채워서 저 남녘땅에 기여든 미국양코배기놈들을 모조리 쏘잡으면 좋겠어. 한놈도 남김없이 말이야. 미국놈은 아주 나쁜놈들이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 난 그놈들이 왜놈들

처럼 막 미워!》

그이의 말씀을 들으며 순남이는 이 고무총소나무를 한손에 뽑아들고 산갈은 바위돌을 재워서 한껏 줄을 당겼다놓으시는 백두산장수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그려보았다. 순남이는 상상만해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기는 기껏해서 크다고만 생각했는데 그이는 얼마나 담차고 호방한 생각을 하고계시는가.

순남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숲속에서 들어갔던 다른 아이들이 고무총대감을 꺾어가지고 그이를 찾아왔다.

《이걸 좀 봐줘. 이 짝지발로 멧있는 고무총을 만들수 있겠지.》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애들이 저저마다 제것을 먼저 보아달라고 내미는 짝지발을 하나하나 보아주시었다.

《응, 그래 이것이면 좋은 고무총을 만들수 있어. 여기에 고무줄을 매면 되겠어. 그런데 고무줄은 짧아야 총알이 멀리 날아간단다.》

그이께서는 애들이 꺾어온 고무총대감을 보아주시며 어떻게 고무줄을 매라는것까지 세세히 대주시었다.

고무총대감을 꺾어오지 못한 순남이와 다른 애들은 서둘러 숲속으로 들어가 짝지발나무를 해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그이께서는 짝지발처럼 생긴 소나무를 올라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었다.

그날 대탕지마을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와 제각기 고무총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다.

다음날 또다시 군사놀이터에 모인 아이들은 그이께 자기들이 만든 고무총을 보여드리며 저마다 제것이 좋다고 떠들어댔다.

그이께서는 아이들의 고무총을 찬찬히 보아주시며 부족점도 바로잡아주시고 돌을 재워 쏘아도 보시었다.

그리하여 대탕지마을아이들은 모두 훌륭한 고무총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고무총을 자랑하기 위해 오늘 또 사격경기를 하자고 하였다.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좋아서 떠들어대는 아이들을 둘러보시며

《너희들은 내가 만든 고무총을 봐주지 않겠니?》

하고 말씀하시었다.

아이들은 모두 호기심어린 눈으로 그이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고무총을 꺼내지 않으셨다.

웬일인가싶어 아이들은 서로 마주보며 눈을 껌뻑

거렸다.

《내가 만든 고무총은 저아래 있어. 같이 내려가 보자꾸나.》

그이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이들은 더 잔뜩 호기심이 생겼다. 아이들은 개울옆으로 난 길로 그이를 따라내려갔다. 얼마쯤 내려가시던 그이께서는 어제 본 그 소나무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내가 만든 고무총은 이거야.》

그러자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글쎄 그 아름답리 짝지발소나무에 소꼬리처럼 굽은 고무줄이 매여져있지 않는가.

너무도 놀라와 아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애들아, 우리함께 이 고무총을 쏘아보자.》

친애하는 그이께서 말씀하시자 아이들은 기뻐하면서 옥류천내가에서 한아름되는 바위돌을 뽑아다가 총알로 채우려고 하였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돌을 도저히 들수가 없었다. 아무리 여럿이 달라붙어 《영차》 힘을 썼으나 바위돌은 끄떡 움직이지 않았다.

친애하는 그이께서 웃으시며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혼자서 닝큼 그 돌을 뽑아 가볍게 드시었다.

《야!- 장수로구나!》

아이들의 입에선 저도 모르게 이런 말소리가 튀어나왔다.

그이께서는 안고온 돌을 고무총에 채우시더니 남쪽하늘을 향해

《이건 남녘땅에 기여든 미국양꼬배기놈들에게 주는거다.》 하시며 힘껏 고무줄을 당겼다 놓으시었다.

그러자 그 바위돌은 병풍처럼 둘러막은 앞산에 구멍을 뚫으며 공처럼 가볍게 남쪽하늘로 날아갔다.

《히야!》

아이들은 너무 좋아 두손을 쳐들고 쨍쨍쨍쨍 뛰었다.

이어 그이께서는 또다시 고무총소나무에 큰 바위돌을 채우시더니 《이건 일본천황놈에게 주는거다.》 하시며 동남쪽으로 고무총을 힘껏 당겼다 놓으시었다.

이번에도 고무총알은 산발의 허리를 똑 꺾고 바다건너 왜놈천황의 궁전을 향해 뱅-뱅 무서운 소리를 내며 날아갔다.

아이들은 좋아서 연방 《야》, 《야》 하고 소리쳤다.

그들은 또 바위돌을 날라왔다.

그이께서는 숨 한번 툇지 않으시고 바위돌을 닝큼 들어서 또다시 남쪽에다 겨누시며

《너는 어디 어디로 가거라.》 하고 쏘시니 고무

총알들은 알았다는듯이 훨훨 목표를 찾아 날아가는 것이었다.

온천굴의 높고낮은 산발들은 그이께서 그때 쏜신 고무총알에 의해 기복이 더 심해졌다고 한다.

그때 고무총에 재우고 날려보낸 바위돌들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당시로서는 알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세월이 퍼그나 흐른 몇해전 어느날, 대량지를 찾은 의용군출신의 한사람이 고무총이야기를 듣고 이런 말을 하였다.

1946년 봄, 미군정청이 들어왔던 《경무대》(오늘의 《청와대》)에서 얼마 멀지 않은곳에 난데 없는 큰 돌 하나가 떨어진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혼비백산한 미국놈들은 그 돌을 하늘에서 떨어진 별찌라고도 했고 북악산에서 굴러내려온 돌이라고도 하면서 수선을 떨었다.

허나 천문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이 그 돌의 성분을 분석해본데 의하면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도, 북악산에서 굴러내린 바위돌도 아닌 이상한 돌이라고

하였다.

종시 그 돌에 대한 의문은 풀지 못하고말았다.

그런데 고무총이야기를 들으니 그 돌은 바로 대량지에서 날아온것이 틀림없다고 인정하였다.

사실여부는 어떻든지간에 너무도 일치하지 않는가.

일설에 의하면 패전의 슬픔을 안고 황궁 뒤뜰안을 산보하던 일본천황의 발치에 하늘에서 큰 바위가 떨어져 하마트면 히로히도가 비명횡사할뻔했다고 하는데 그해도 바로 1946년 봄이라는것이다.

사실인지는 확인할수 없으나 이런 말이 돈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한다.

이렇든저렇든간에 이 고무총소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어린 시절에 벌써 천하를 호령하시는 무비의 담력과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지니셨다는것을 보여주는 흥미있는 전설이라 하겠다.

토지개혁기념비여

김상조

이 비를 세운 사람들
이제는 머리우에 백발을 엮어도
매일파도 같이 찾아오더라
그네들과 그네들의 자손들이

어제는 배낭을 진 제대군인청년들이
할아버지를 따라 예 왔었고
오늘은 고등중학교 졸업생처녀들이
예 와 대지에 뿌리내릴 맹세를 다지더라
아, 토지개혁기념비!
기름진 땅내음새 풍겨오는
여기 마을 한복판에
말없이 서있는 소박한 비돌이여

아지랑이 피던 3월의 그 봄날
장군님 주신 땅에 더운 눈물 쏟으며
한자두자 새긴 글발
-김일성장군 만세!

지금도 울려와라
머슴살이 멍에 벗어던진 룡강농민들
난생처음 제 땅의 밭을 갈며 씨를 묻으며
논밭머리에 올리던 흥겨운 농악소리
소달구지에 애국미 싣고

평양성 찾아떠나던 소방울소리

불구름 타래치던 전화의 날
위장망 쓰고 부르던 보잡이노래
피로 지킨 땅을 위해, 새삶을 위해
폐허우에 높이 올리던 협동화의 종소리...

오 3월의 그 봄빛아래
땅을 가꾸며 근 반세기-
농촌이 걸어온 년대기우에 이어진 풍년의 노래를
한품에 고이 간직한 기념비여

너의 기슭, 너의 품으론
봄이면 프락뜨르 발동소리
모내는 기계소리 유정히 울려오고
가을이면 흥치는 이삭의 물결소리
파일향기 가득 실려오나니

세월은 가고가도
유구한 산천은 변해도
토지개혁기념비여, 너만은 높이 솟아 빛나누나
장군님 주신 땅은 영원히 농민의것이라고
풍요한 대지를 굳건히 품안고있구나-

-룡강군 옥도리에서-

추석날에 핀 살구꽃

1994년 9월 20일, 먼동이 푸름푸름 밝아왔다.

오늘은 한가위날이다. 다. 세상떠난 사람들의 분묘를 찾아가 제상을 차려놓고 고인을 회고하는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풍습이 깃든 날이다.

하지만 이해의 한가위는 류다른것이다.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였으며 우리 인민을 인류력사에서 가장 존엄있고 슬기롭고 행복한 민족으로 온 세상에 빛나게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애석하게도 서거하신 비분과 슬픔으로 하여 하늘도 땅도 몸부림치며 호곡을 터뜨리는속에서 맞게된것이다.

평안남도 고려병원 202호실에 입원한 조선인민 경비대의 어느 한 군부대 정치일군 리원춘은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밤새 류다르게 휘몰아친 태풍과 우박이 창문을 요란스럽게 때려서가 아니였다.

그리고 정정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뜻밖에도 서거하셨다는 청천벽력같은 현실앞에서 비통한 마음을 억제할수 없었는데 한가위날까지 맞고보니 어버이수령님의 유혼관철에 한몸 바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어야 하는 죄송스러움을 달랠길 없어 온밤 눈을 불일수가 없었던것이다.님의 유혼관철에 한몸 바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어야 하는 죄송스러움을 달랠길 없어 온밤 눈을 불일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는 급병으로 6월 28일에 입원하였다가 7월 8일 어버이수령님께서 뜻밖에도 서거하셨다는 비보를 받고 퇴원하였었다. 그런데 병이 심하여 45일만에 다시 병원침대신세를 지게 된것이였다.

아무리 환자라고 해도 한가위날 병원침대에 그냥 누워있을수가 없어 전날 면회왔던 부서동무들에게 한가위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에 드릴 꽃을 구해가지고 와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수령님의 동상에 드릴 꽃을 구해가지고 와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동창이 흰해지자 이리뒤척 저리뒤척이던 리원춘은 더는 누워있을수가 없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보았다. 제일먼저 눈에 뜨이는것이 울타리결 살구나무였다. 밤새 기승스레 불어친 광풍과 우박으로 잎이 거의다 떨어진 살구나무는 연약한 가지를 펼치고 고요히 서있었다. 측은한 눈길로 살구나무를 살펴보던 그는 흠칫 놀라 침대에서 일어섰다. 평양에서 순천쪽으로 나가는 대도로를 향해 뻗은 살구나무가지에 여러송이의 살구꽃이 피어나 새벽바람에 흔들거리고있었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에 드릴 꽃다발생각에 잠겨

있다보니 환각이라도 생기지 않았나 해서 그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분명 연분홍살구꽃이였다. 리원춘은 창문을 활짝 열어제꼈다. 싸늘한 새벽대기가 방안에 밀려들었다. 그는 조금도 추위를 느끼지 못하고 창턱에 몸을 쑥 내밀고 다시 바라보았다. 살구꽃이 옳았다. 그래도 믿을수가 없었다.

(혹시 어느 간호원처녀가 살구나무에 치장을 하느라고 종이꽃을 걸어놓을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봄도 아닌 가을철에 어이 살구꽃이 다시 필수 있으랴...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자.)

리원춘은 출입문을 열고 허둥거리며 정원으로 달려나갔다. 주저주저 살구나무곁에 다가간 그는 꽃이 피여있는 가지를 붙잡고 조심히 앞으로 끄당겨 눈정기를 모두었다.

틀림없이 살구나무가지에서 돌아나고 피어난 꽃이였다.

순결하고 연한 분홍빛살구꽃잎에는 아침이슬이 방울방울 맺혀있었는데 가지를 흔드는 바람에 한방울 두방울 리원춘의 옷설에 떨어졌다. 의심할수 없는 제 나무가지에서 핀 생화였다. 말아보니 상긋한 꽃향기까지 풍기였다.

리원춘은 신살나마 살아왔지만 이처럼 추석날에 핀 살구꽃은 난생처음 보았다. 그러니 이 살구꽃은 어버이수령님의 서거가 너무도 애석하고 그이를 잊을수가 없어 다시 피어난것이 아닌가!

리원춘은 혼자서 감수하기에는 너무도 가슴이 벅차울라 사방을 둘러보았다. 정원은 고요한 정적속에 잠겨있을뿐 사람그림자 하나 열썬하지 않았다. 그는 환자라는것도 잊고 가쁜숨을 몰아쉬며 호실로 뛰어들어와 옆침대에 누워있는 도당조직부 부원을 흔들었다.

《빨리 일어나시오. 최명수동무... 어서.》

최명수 역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부석부석한 눈을 떴다.

《웬일입니까?》

입이 무겁고 말이 적은 리원춘이 흥분하여 큰소리로 깨우는바람에 최명수는 와뜰 놀라서 일어났다.

《저길 좀 보시오. 살구꽃이 피어났소!》

리원춘이 가리키는 살구나무가지를 눈여겨 바라보던 최명수도 감동에 겨워 소리쳤다.

《정말 살구꽃이군요! 가을에 살구꽃이 다시 피어나다니. 과연 신기한 일입니다.》

그들은 흥분하여 큰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때 출입문이 열리며 일직근무를 서던 김영록의

사가 들어서며 엄하게 추궁했다.

《이른새벽부터 왜 이리 떠들니까?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아, 이거 의사선생, 미안합니다. 그런게 아니라... 저길 좀 보십시오... 살구꽃이...》

《살구꽃이라니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있던 당직의 사는 리원춘이 가리키는 살구꽃을 보자 너무 신기해서 의사라는 직분을 감감히 잊고 그들과 함께 창문에 매달려 감동을 금치 못했다.

《정원의 살구나무에 꽃이 피었다!》 하는 소문이 잠간사이에 온 병원에 흘러 퍼졌다.

원장 오현일, 초급당비서 변병주, 과장들인 김영일, 김영목, 간호원 김정애, 안순실, 원향옥을 비롯한 병원직원들과 입원환자들이 달려와 살구나무주위를 빼곡이 둘러쌌다. 간호원들이 살구나무주위를 빙빙 에돌면서 피어난 꽃을 세여보았다.

한송이, 두송이...

《아, 여길 좀 보세요. 나무잎 밑에도 있어요!》

약국의 김정애가 나무잎에 가리워있는 꽃을 찾아내고 큰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두손을 가슴에 모아 불리고 발을 동동 굴렀다.

《저기 아직 피어나지 않은 꽃망울도 있어요!》

너인들의 감동에 겨운 랑랑한 웨침소리가 새벽대기를 흔들며 여기저기서 울려왔다.

40송이의 살구꽃이 피어났거나 망울져있었다.

모여든 사람들은 때아닌 가을철, 한가위날에 피어난 살구꽃을 뜨거운 마음을 안고 바라보았다. 안고 바라보았다..

연분홍살구꽃! 해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이 오면 만경대고향집정원과 온 나라 방방곡곡에 제일먼저 만발하게 피어나 우리 인민들에게 기쁨과 환희를 안겨주던 꽃! 너는 정녕 어인 일로 봄도 아닌 한가위날아침에 불어치는 태풍과 우박속에서 꽃꽂이 피어난것이나? 태풍과 우박속에서 꽃꽂이 피어난것이나?

어버이수령님께서 애석하게도 돌아가셨다는것을 도저히 믿을수가 없어, 이제라도 금시 현지지도의 먼길로 떠나가시는 그이께서 타신 승용차가 아침햇빛에 차창을 반짝이며 지나가실것만 같아 이처럼 큰길쪽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피어난것이라...

애달픈 눈물인양 아침이슬을 머금고 고요히 피어난 살구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비애의 눈물이 소리없이 흘러내렸다.

《저 살구꽃이 어버이수령님께서 다시 소생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안고 피어난것 같아요!... 이 땅에 신기한 자연조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어찌하여 우리 수령님께서 다시 소생하시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가요...》

약국의 김정애가 목메인 소리로 말하며 손수건을 눈가에 가져갔다.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가지지 않았습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어버이수령님의 유혼을 관철해나가는 길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것입니다.》

원장 오현일이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힘있게 말했다.

평안남도고려병원정원의 살구나무에 추석날 꽃이 다시 폈다는 소문은 한입건너 두입건너 삽시에 널리 퍼져나갔다.

중앙텔레비죤방송국의 촬영가가 달려오고 《로동신문》사의 기자들도 련이어 찾아왔다.

1994년 9월 23일부 《로동신문》지상에는 평안남도고려병원에 살구꽃이 핀 소식이 소개되었고 9월 24일 텔레비죤화면에는 활짝 피어난 연분홍살구꽃이 방영되어 온 나라 인민들에게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과 그이의 유혼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굳은 신념을 안겨주었다.

정리자 김광남



《우리 당 력사에서는 <ㄷ>를 당의 뿌리로 보고있으며 <ㄷ>의 결성을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시원으로 인정하고있다. 그 뿌리에서 우리 당의 강령이 태어나고 우리 당 건설과 활동의 원칙이 마련되고 우리 당 창건의 골간이 육성되었다. <ㄷ>가 조직된 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새로운 걸음을 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1)중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혁명적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참가자들

김보행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성상》계관인
한중모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실장 후보원사, 교수, 박사
리종렬 4.15문학창작단 작가, 《김일성상》계관인
오영재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김일성상》계관인
은종섭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 박사
방형찬 김철주사범대학 학부장, 박사
리준길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분과위원장
본사기자

본사기자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을 전면적으로 밝힌 기념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받아안은 우리는 지금 꼭질많은 인류의 운명을 안고 흘러온 20세기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참으로 20세기는 지구상에서 인류의 오랜 꿈이었으며 리상이었던 사회주의제도를 탄생시킨 세기인 동시에 여러 나라들에서 수십년간 존재해온 사회주의제도가 붕괴된 비정상적인 사태를 안고 저물어가는 세기입니다.

바로 이 세기의 령마루에서 인류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있으니 그것은 조선이 동방일각에서 혁명의 붉은기,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끄떡없이 우뚝 솟아있기때문입니다. 과연 무엇으로 하여 변질과 좌절의 걸잡을수 없는 참상을 빚어내며 범람하는 력사의 류레없는 역풍과 역류 속에서도 조선은 자기의 위대한 전통과 업적을 굳건히 고수하며 승승장구하는것이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이 기념비적문헌에 뚜렷이 밝혀져있습니다.

김보행 그렇습니다. 저는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의 눈보라를 헤치시며 들고 오신 혁명의 붉은기를 영원히 높이 들고 나가시려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신념과 의지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 우리의 모든 운명을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사관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의 력사적필연성과 그 실현방도에 관한 문제에 과학리론적으로 완벽한 해명을 주심으로써 그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 시대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사회주의는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의 리념이며 혁명적기치이다. 인민대중의 자주

성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의하여 실현된다.》

실로 그이께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과 그 실현방도에 대한 과학적해명을 주시였습니다.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지금 해외인민들속에서 《우리 시대의 완성된 사회주의 총서》로, 《21세기를 향도할 사상리론적무기》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배신자들은 저들의 추악한 배신행위를 변호하며 사회주의의 재생을 가로막기 위하여 사회주의 리념자체가 잘못된것처럼 떠들며 반사회주의적선전에 열을 올리고있습니다. 현실은 문학창작에서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을 전면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원쑤들의 온갖 반혁명적레변을 짓부시고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보여줄것을 그 어느때보다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사기자 좋습니다. 우리는 주체의 사회주의가 인류의 세기적리상을 실현하는 길을 밝힌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학설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야말로 가장 우월하고 위력한 필승불패의 사회주의라는 사상을 문학작품창작에 적극 구현하는 사업을 더 잘해나가야 할것입니다. 오늘 좌담회에서는 먼저 사회주의가 력사발전의 필연적단계이고 사람의 자주적본성에 부합되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라는것을 어떻게 창작활동에 구현하겠는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한중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에서 사람을 위주로 한 우리 식 사회주의승리의 력사적필연성과 사회주의가 사람의 자주적본성에 부합되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라는데 대하여 새롭게 밝히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의 자주적요구는 집단주의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는것을 과학

적으로 론증하지였을뿐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의 담당자는 인민대중인것만큼 인간개조사업을 앞세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습니다. 우리 문학작품에 담아야 할 사회주의적내용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주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학이 인간학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자면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와 함께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에 대한 문제에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할것입니다. 자주성에 대한 문제는 자주적인 인간,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간의 전형을 통해서만 실현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깊이있게 그리는 문제일것입니다. 주체형의 인간들은 온갖 애로와 난관을 동반하는 혁명의 초행길을 헤쳐나가는 우리 시대의 영웅들입니다. 그들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이 극도에 이른 침예한 정세속에서도 사회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라는 구호밑에 날에 날마다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면서 힘찬 진군을 다그치고있습니다. 우리 문학에서는 마땅히 그들의 집단적영웅주의와 창조적위훈을 높은 경지에서 감명깊게 그려내야 할것입니다.

방형찬 그렇습니다. 시대의 영웅전사들을 형상하는데서 그들을 타고난 기상천외한 인물이 아니라 평범한 보통사람들이라는것을 잘 보여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누구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을 가지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만 가지면 값높은 위훈을 세울수 있다는것을 두드러지게 형상하여야 할것입니다.

작가들은 우리의 보통인간이 어떤 소박하고 평범한 인간적바탕에서 영웅으로 자라는가 하는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의 영웅주의는 개인영웅주의가 아니라 대중적영웅주의입니다. 사회와 집단을 떠나서는 누구도 참다운 영웅이 될수 없습니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한다는것은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문학에서는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니고있는 대중적영웅주의의 본질을 생동하고 깊이있게 밝혀내야 하며 우리 문학에 그려지는 영웅적성격은 사람들모두가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는 전형적인 환경속에서 형성되어야 합니다. 문학작품에서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대중적영웅주의가 집단주의적생명관에 기초하여 조직의 지도와 집단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해서만 발휘될수 있다는 사상을 두드러지게 그려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사회주의승리의 역사적필연성과 그 실현방도가 문학작품에 더 잘 형상화될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사

상리론에 의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정확한 길이 밝혀지게 되었고 우리 시대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었으며 물질지상주의, 경제만능주의를 들고나온 사회주의배신자들의 반동적본질이 여지없이 폭로되었습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전적로작에서 다음으로 사람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립장에 기초하여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과학적기초를 완벽하게 밝히시였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사람의 본질에 대한 가장 옳바른 해명에 기초하고있는 과학적인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면 사회주의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지위와 역할이 비상히 강화되는 가장 우월한 사회라는것을 문학창작에 어떻게 구현하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로 합니다.

은종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우리의 사회주의가 사람의 생명의 본질과 삶의 가치에 대한 완벽한 해명에 기초하고있는 참다운 사회주의라는데 대하여 밝히시였습니다. 인간생명의 본질과 삶의 가치에 대하여 정당하게 형상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사명을 다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정치적생명을 말하는것입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사람은 육체적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것을 지적하시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생명도 귀중하지만 보다 더 귀중한것은 사회정치적생명이라는것과 이 사회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데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성적요구가 있다는것을 완벽하게 해명하시였습니다. 실로 그이께서는 로작에서 사람의 사회정치적생명과 육체적생명의 요구를 훌륭히 실현하여 참다운 인간생활을 보장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에 대하여서와 사람위주의 사회주의하에서만 인간은 사회정치적생활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에서는 사람이 한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하자면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훌륭히 창조할수 있는 근본지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문학의 모든 주인공들은 내 나라, 내 민족이 제일이라는 민족적자존심 그리고 혁명하는 인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없이는 체정신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살수 없고 민족적 독립과 존엄을 지킬수 없으며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없다는것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여기에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인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이는 길이 있습니다.

리준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전적로작에서 사람의 값높은 삶은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그것을 빛내이며 사는것이라는데 대하여 뚜렷이 밝히시였습니다. 사람의 가장 값높고 보람있는 삶은 자기 운명을 사회정치적집단의 운명과 결합시키고 사회적집단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복무하면서 사회적집단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자주적인간의 전형을 더 훌륭히 창작하여야 할것입니다. 자주적인간의 성격을 창조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가 지니고있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입니다.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사회적집단의 사랑과 믿음 속에서 살려는 인간의 요구를 외곡된 형태로가 아니라 참다운 형태로, 래세에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실현해나갈수 있게 해주는것이 다름아닌 사람위주의 사회주의사회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사상을 정당하게 보여주는것이 중요합니다. 사상은 인간의 풍격을 특징짓는 근본요인이며 자주적인간의 풍모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사람들의 사상개조는 하나의 심각한 혁명입니다. 사상개조에서 기본은 혁명적세계관, 주체의 혁명관을 세우는것입니다. 주체의 혁명관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에 대한 관점과 립장이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혁명정신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여 그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것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주적인간의 전형을 창조하는데서 그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깊이있게 그리는데 선차적관심을 돌려야 할것입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전적로작에서 다음으로 인민대중에 대한 주체적관점과 립장에 기초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 불패성의 원천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우리의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가장 위력한 사회주의라는데 대하여서와 사회주의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로 된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혁명의 생명력으로 되는 사회주의사회의 정치의 본질과 인덕정치를 창작에 구현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리중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전적로작에서 우리 당의 인덕정치가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원천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가 실현되자면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지닌 정치지도자를 모셔야 합니다.

인민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을 절대적인 존재로 내세우고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베푸는 위대한 정치지도자를 모시는것보다 더 큰 행운은 없습니다. 이것은 문학창작에서 수령형상창조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고 심오하게 하여야 한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말하여주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정치철학으로서의 인덕정치가 현실에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창작활동에 심오히 구현하여야 할것입니다.

오영제 일반적으로 위인의 한평생과 업적은 력사에 길이 찬미됩니다. 하지만 그 생애와 업적이 다 인간의 뜨거운 정으로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는것은 아닌것입니다. 위인의 업적이 클뿐아니라 위인의 한생과 업적이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수놓아졌을 때 그것은 력사에 불멸하고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는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이 아버지수령님을 그처럼 못잊어 하며 간절히 그리는것은 수령님께서 시대와 력사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함께 그이의 위대한 사랑을 가슴뜨겁게 체험하였기때문입니다. 우리 수령님은 《이민위천》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이 땅우에 위대한 인덕정치를 펼쳐오신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끝없는 사랑을 돌리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평생의 목적이고 모든 심혈과 로고의 근본이였습니다. 사랑은 바치는것입니다. 사랑은 그 무슨 대가를 바라고 주는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진정이고 헌신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혈육과 남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숭고한 사상감정을 찬미하여 사랑이라는 말도 생겨나고 심혈과 로고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의 모진 풍파와 고초를 겪는다고 풍상고초라는 말도 생겨나고 천가지, 만가지 쓰고쓴 고생을 다한다고 하여 천신만고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께서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조선혁명을 이끄시며 인민을 위해 바치신 헌신과 겪으신 고생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하며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우리 작가들은 끝없는 창작적열정을 안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영웅서사시적화폭에 담아 폭넓고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할것입니다.

력사에는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고 인민을 위하여 공적을 세운 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령님처럼 한평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시고 그렇듯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인은 없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한평생, 그 불멸의 업적을 찬양하여 오늘 세상사람들은 《태평양의 중심에 **김일성**주석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금자탑을 세워야 한다.》고 소리높이 웨치고있습니다.

우리 작가들은 시대의 이 흐름을 응당한 수준에

서 반영하여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한 수령형상작품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화원을 풍만하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리종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인덕정치의 전통을 순결히 고수하고 계승해나가는 분이 우리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십니다. 인민대중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믿음, 이것이 친애하는 그이의 신념이며 사랑과 믿음의 정치 바로 여기에 그이의 정치의 특징과 위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을 요구하기전에 덕을 먼저 주는것이 최고의 인덕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치리념은 덕을 먼저 줌으로써 인민을 묶어세우는 덕망에 있습니다. 최근년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제도가 붕괴되고 그로 하여 지난날 행복했던 인민들의 운명이 불행에 빠진 참상은 참다운 수령을 잃은 그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민들과 작가들은 우리에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신다는 든든한 마음을 안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일심단결하여 전진하고있으며 왕성한 창작활동을 벌리고있습니다. 참으로 그이는 우리 운명의 위대한 수호자이시며 령도자이십니다.

친애하는 그이께 있어서 혁명도 인민에 대한 사랑이고 정치도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되어있습니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며 인민의 자주적리익을 침해하는 일이라면 추호도 허용하지 않으시는것이 그이의 사랑의 정치입니다.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고계십니다. 인민들속에서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으시고 인민의 힘과 지혜를 믿고 불러일으키는것이 그이의 믿음의 정치입니다.

또한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각계각층의 인민들에게 차별없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며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오계십니다. 지난날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버리지 않고 교양개조하여 옳은 길로 이끌어주며 각계각층 군중을 하나로 묶어세워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게 하는것이 그이의 광폭정치입니다.

한중모 언제나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하나의 대가정으로 결합된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현실에 대하여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오늘 우리 인민들이 **김정일**동지의 정치를 가리켜 사랑의 정치, 믿음의 정치, 광폭정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민을 믿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신뢰의 표시이고 칭송이

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진정 그이의 인덕정치는 수령과 전사, 당과 인민을 사랑과 믿음으로 결합시키고 수령, 당, 대중의 사상의지적 및 도덕의리적 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 나아가게 하는 근본원천으로 되고있습니다.

주체사실주의를 창작방법으로 하는 우리 문학은 문학의 모든 형태에 걸쳐 인덕정치를 깊이있게 형상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진리성을 생활적으로 심오하고 깊이있게 확증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우리 문학앞에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는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르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혁명가의 삶과 투쟁은 수령과 뗄수 없이 하나로 련결되어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수령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령도자와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가는데 혁명가의 가장 값높은 삶이 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합니다.

김보행 문무총화를 겸비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아버지수령님의 사상과 령도, 교매한 덕성을 그대로 이어받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시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십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일심단결하여 백두령봉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관철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과학적사상을 창작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주체문학의 화원을 더 풍만하게 하자. 바로 이것이 더욱 백배하여가는 조선의 위대한 신념이며 우리 작가들의 드팀없는 확고한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사기자 우리는 지금까지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제시된 불멸의 사상을 문학창작활동에 구현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작가들은 주체사실주의 창작방법의 가치를 높이 들고 창작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하고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더 깊이 연구학습함으로써 위대한 사상을 창작실천에 더 잘 구현하여야 할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사기자



예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천리혜안의 통찰력을 지니신분입니다.

그이의 예지로온 눈길은 먼 앞날에 벌어질 중대사변들을 정확히 꿰뚫어보신다.

1979년 3월초순 어느날이었다.

그때 남조선문제를 전문으로 연구하고있던 한 일군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부르심을 받고 그이께서 계시는곳으로 갔다.

그를 반가이 맞아주신 그이께서는 남조선정세에서 주목되는 몇가지 문제를 물으시고나서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사회의 심각한 모순과 정세의 징조를 보아 그 무슨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박정희유신독재가 종말을 고할것이 내다보입니다.》

일군은 놀라와 눈을 크게 떴다.

두세해전만 하여도 정국이 몹시 뒤흔들렸으나 지난해부터는 《유신체제》의 《정치적안정》을 위해 《총화단결》을 표방하면서 반대파 인물들까지 회유하여 《재등용》하는 등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씌으로써 이제는 《평온》이 유지되어간다고 패재를 올리는 박정희역적이였다.

피되는 《년두기자회견》이라는데 나타나 우리와의 《회담재개》를 운운해나섰고 얼마후에 있게 될 미국대통령의 남조선방문을 계기로 제놈의 몸값을 올려보려고 이즈음 《외교활동》도 맹렬히 벌리고있었다.

이런 박정희역적이 멀지 않아 꺼꾸러질것이라고 하시는것이였다.

의혹에 잠긴 일군을 바라보시며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뜻있는 어조로 놈들이 떠벌이는 《평온》은 거짓이며 얼마 가지 못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미국놈들이 박정희를 제 손으로 제껴버릴수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더 긴 설명을 하지 않으시였다.

다만 그무렵에 남조선정계에서 있는 《현직세력》과 《재등용세력》, 《무소속세력》의 권력쟁탈기도와 몇몇 군부인물들의 해외망명사건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시고 남조선정세를 랭철하게 분석해볼데 대한 의견을 주시였을뿐이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벌써 날로 험악해지는 남조선의 정국을 꿰뚫어보시고 멀지 않아 벌어지게 될 극적인 사태를 예고하신것이였다.

그 일군은 그후 남조선정세의 발전추이에 특별한 주목을 돌리였다.

아니나다를가 남조선정세에서는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친애하는 그이께서 간단히 시사하신 여러 세력들간의 권력쟁탈기도가 점차 표면화되어가고있었다.

특히 장기집권을 꾀하는 박정희와 다음번 대통령 자리를 노리고있는 중앙정보부장, 《청와대》 경호실장 등의 권력쟁탈암투가 날카롭게 벌어지고있었다.

그리고 남조선인민들의 반과쏘민주화투쟁과 조국통일기운을 계기로 여당과 야당간의 대립도 극한점에 이르렀다.

한편 박정희역도의 《유신》독재체제를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날을 따라 폭동적인 성격을 띠고 발전하고있었다.

부산과 마산, 서울 등지에서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이 이승만을 꺼꾸러뜨린 4. 19때처럼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련대적으로 들고일어났다.

참예한 사태는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되였다.

미제는 박정희를 그대로 두고서는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할수 없다고 인정하였다. 더는 쓸모없게 된 주구를 다른 주구로 교체하는것은 미제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미제는 도미니카에서 1961년 5월에 30여년동안이나 길들여온 독재자 프루힐로를 암살하고 다른 주구를 올려놓았다. 또 1963년에는 남부웰남에서 5년동안에만도 10억 US\$의 《원조》를 주어가면서 부지하여오던 느고딘 디엠을 살해하고 새로운 주구로 바꿔 놓았다.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미제의 상투적인 수법에서 박정희역도 역시 레외로 되지 않는다고 보시였다.

그이의 예언은 참으로 명철한것이였다.

그때로부터 몇달후인 10월,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항쟁이 전역에 파급되어 제2의 4.19사태가 벌어지려는데 질겁한 미제는 남조선주재 미국대사를 워싱턴으로 연방 호출하였고 미국대사관에서는 련일 음모가 꾸며졌다.

드디어 10월 26일 남조선중앙정보부료정에서 《말다툼끝에 벌어진 충격사건》으로 미제의 손때 묻은 괴뢰 박정희역적은 다른 괴뢰의 총에 맞아 종말을 고하고말았다.

이때에야 그 일군은 일급담전에 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예언이 참으로 정확한것임을

깨닫고 크게 탄복하였다.

《신기한 예언은 옛말이고 과학적인 예언은 사실이다.》

이것은 유명한 말이다.

친애하는 그이의 예언은 언제나 사실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한것임으로 하여 사소한 오차도 없었다.

제3차 중동전쟁이 끝난 직후인 1967년 6월말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외사업을 말아보는 한 일군을 찾으시였다.

이야기는 자연히 중동문제에로 흐르게 되였다.

《제3차 중동전쟁이 끝난이후 이 지역 정세에서 달라진 문제들은 어떤것입니까?》

친애하는 그이의 물으심에 일군은 중동에서 정화가 이루어진 다음 유엔평화유지군이 유관국가들의 국경을 감시하고있으며 미국대통령이 그 나라들간의 관계를 조절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부대통령을 미국으로 《초청》해간데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그러면서 세계의 정치가들과 군사평론가들은 유엔이 중동문제에 적극 개입한 이상 이제부터는 그 지역에서 평화가 유지될것으로 관망하고있다고 덧붙여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시였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근동지역 정세의 전망을 략관적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중근동문제는 역사적으로 제국주의자들과 이 지역 나라들사이의 정치경제적모순과 알룩이 집적되어온 매우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시고는 이 자료들을 좀 보라고 하시며 몇장 짜리 자료묶음을 넘겨주시였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있었다.

중동지역:

1) 세계의 《원유창고》

-원유매장량 4,540억톤

(자본주의세계의 원유총매장량의 약 70%)

-년간 원유채취량 40억~45억톤

(세계원유생산량의 62%)

-원유수요에 비한 각국의 중동지역 의존도
서유럽나라들 80%

미국 12%

일본 90%

...

2) 세계의 《길목》-수에즈운하

-년간 선박통과량 2억 7천4백25만톤

(1966년도)

-년간수입금 2억 2천만 US\$(1966년도)

...

일군은 친애하는 그이의 섬세한 자료작업에 경탄을 금치 못하며 계속 자료들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는 그에게 그이께서는 동무도 자료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것을 보니 꽤 흥미가 있는것 같다고 하시며 말씀하시였다.

《...자료들을 연구분석해본데 의하면 중근동지역의 군사정치정세는 앞으로도 계속 팽팽해질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제하신 그이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자료에 있는바와 같이 중근동지역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살진 짐승의 비게덩이와 같고 그들의 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시면서 중동지역나라들에 들어가있는 미국의 5대석유회사를 비롯한 세계8대석유평점체들의 경영규모와 자본투자지수, 리유희득에 대하여 수자적으로 설명하시고나서 말씀하시였다.

《비대해질대로 비대하여진 제국주의자들은 날로 더 많이 요구되는 석유와 수에즈운하의 리권을 빼앗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서 끊임 없는 충돌과 분쟁을 일으켰으며 그것을 조종하여 왔습니다.》

...

《6월전쟁》으로 불리우는 제3차 중동전쟁도 레오로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제국주의자들이 아랍땅에 박아넣은 씨기에 불과하며 뒤에서 전쟁을 사촉하고 지원하는것은 미국을 고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입니다.

...

석유와 수에즈운하를 비롯한 중근동지역의 리권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독점적야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종종 충돌과 분쟁이 일어날것입니다. 다만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중근동정세는 반드시 우리가 예견한대로 변화될것입니다.》

일반적인 가설이나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내리시는 과학적인 결론이였고 오늘의 생활에서 멀리 앞날의 사변을 내다보고 하시는 예언이였다.

그때로부터 6년이 지난 1973년 10월, 중동지역에서는 또다시 제4차의 전쟁이 일어나 세상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였다.

그리고 1991년 정초에는 또 미국주도하의 다국적군과 이라크군사이의 대격전으로 불리운 만전쟁이 폭발하여 세계를 뒤흔들었다.

친애하는 그이의 과학적인 예견은 비단 정치, 경제 등 사회현상에서만 찾아볼수 있는것이 아니다.

그이께서는 변화되는 자연현상을 보시고도 앞으로 있게 될 일을 정확히 예언하신다.

1977년 여름, 우리 나라 동해에서는 레년에 없던 《정어리잡이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면 전에 없던 그 어로전투는 어떻게 발단되

고 조직되었는가?

이해 9월 어느날, 송도원수산사업소 어로공들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뜻밖에도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큰 물고기 한마리를 끌어올렸다. 연안으로 밀려든 멸치떼를 노리고 들어왔다가 어로공들이 쳐 놓은 덫장에 걸린것이다.

고래갈기도 하고 상어갈기도 한 희귀한 물고기였다.

수산사업소의 부두에까지 올려놓고 많은 어로전문가들을 데려다 보였으나 그 물고기의 이름을 명백히 짚어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수산사업소에서는 할수없이 그 이름모를 물고기를 중앙에 올려보냈다.

이 사실이 친애하는 그이께 보고되었다.

어느날 그이께서 관계부문의 여러 일꾼들과 함께 그 물고기를 보아주시었다.

《이것이 고래상어가 아닙니까. 이 고래상어를 어디서 잡았소?》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대뜸 그 물고기의 이름을 짚어 말씀하시면서 물어보시었다.

그때에야 모두들 그 물고기가 고래상어임을 알게 되었다.

수산부문의 한 책임일꾼이 그 고래상어를 잡아 평양에 올려오기까지의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고래상어는 주로 대서양과 태평양, 인디아양 등 온대와 열대 바다들에 퍼져 갑각류와 멸치, 정어리같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데 대가리가 고래와 비슷하여 고래로 잘못볼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고래보다는 작다고 그 생태학적특성까지 설명해주시었다.가 고래와 비슷하여 고래로 잘못볼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고래보다

는 작다고 그 생태학적특성까지 설명해주시었다.

그러신 그이께서는 고래상어를 종합대학에 보내여 표본을 잘 만들도록 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나서 말씀하시었다.

《상어가 잡히는것을 보니 정어리, 고등어도 잡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정어리를 잡기 위한 준비를 잘 갖추데 대하여 가르치시었다.

이처럼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한마리의 희귀한 물고기를 보시고도 바다수온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어황상태를 예견하시며 미구에 벌어질 어로전을 준비시키시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동해의 수산사업소들에서는 전쟁전에 잡히다가 해류의 변동으로 종적을 감추었던 정어리를 다시 잡을 어구준비사업이 《비상지령》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그리고 동해의 모든 탐색선들은 불철주야로 바다를 누비며 정어리떼를 찾아다니었다.

아니나다를가 그해에 우리 나라 동해연안에는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정어리떼가 밀려들어 어장들을 번창시켰다.

그해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정어리는 해마다 수많이 잡혀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신심과 락관에 넘쳐 투쟁하며 복잡한 내외의 정세속에서도 우여곡절을 모르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다그쳐나가고있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천리해안의 예지로 당과 인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인것이다.

명상시

어둠이 깃들면
조용히 말없이
밝은 얼굴 드러내는
가로등

오가는 길손들
길을 헛걸을세라
돌부리에 발목 상할세라
비쳐주는 밝은 빛

그 고운 환한 얼굴
밤이 지새어가도록

가로등

김창식

한번 들지도 않으며
한모습으로 서있는 가로등

발인들 얼마나 저리고
목인들 얼마나 아프랴만
오가는 길손 위해
종밤 서있는 가로등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나의 모습, 나의 자세
가로등 너처럼
한본새였으면...

명제해설

《도식은 문학과 독자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이다. 작가는 온갖 도식에서 벗어나 저마다 새로운것을 들고나와야 한다.》

김정일

문학과 독자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에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다. 생활의 진실을 파지 못하고 주관이 앞서거나 산 인간의 성격은 없이 사건만 추구하는 경우, 지성이 낮고 뜻깊은 생활철학이 부족하거나 민족적정서가 희박하고 이색적인 편향, 아무튼 독자의 사상미학적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경향은 다 독자를 문학과 갈라놓는 장벽으로 된다. 그 가운데서 도식적인 틀은 문학의 고유한 예술적흥미를 말살해버리는 가장 지긋은 장벽의 하나이다.

도식이 문학과 독자를 갈라놓는 장벽으로 되는것은 독창성이 창작의 본성이기때문이다. 창작이란 말그대로 새것을 만들어낸다는것이다. 작품마다 새로운 형상세계를 들고나와 독자가 아직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는데 창작의 진미가 있다. 이미 다른 작품에서 다 써먹은 낡은 수법을 되풀이한다면 그것은 벌써 창작이 아니다. 틀에 맞추어 써내는 작품은 창작품이 아니라 상품이며 그런 작품을 써내는 작가도 창작가가 아니라 상품제작공인것이다.

도식은 창작에서 다양하게 표현된다.

지금 적지 않은 소설이나 극작품들에서 인물의 호상관계를 교양을 주고 교양을 받는 관계로만 형상하는데 그해야만 되는것이 아니다. 실지 생활에서 사람들이 맺는 관계는 다 교양을 주고 교양을 받는 관계로만 되어있지 않다. 상대인물에게 직접적인 교양을 주지 않지만 주인공의 숭고한 모범에 감화되어 교양을 받을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에 자극되어 교양을 받을수도 있다.

또 이야기줄거리를 환경전개, 사건의 발생과 발전, 절정, 결말의 체계에만 맞추어 전개하는것도 도식이다. 이야기줄거리는 작품의 종자와 작가의 개성에 따라 자유롭게 다양하게 엮여져야 한다. 특히 이야기줄거리는 사건줄거리와 같은것이 아닌것만큼 사건과 함께 일화와 생활세부, 인물의 심리와 경력 같은것을 다채롭게 결합시키면서 독자의 흥미를 끌수 있게 참신한 구성형식을 찾아내야 한다.

현재 도식이 가장 우습하게 나타나는것은 사랑선이다. 적지 않은 작품들에서 사랑은 도식적인 틀에 맞추어 어색하고 싱겁게 보여주고있다. 대체로 처녀총각이 서로 사랑하다가 오해가 생겼거나 뜻이 맞지 않거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이가 버그러졌다가 다시 결합되는 식으로만 그리고있다. 그들사이

에 첫 인연이 맺어지는 계기도 필연적인데서만 찾으려고 한다. 처녀총각사이의 첫 인연이 아주 우연적인데서 맺어질수도 있고 일단 사랑관계를 맺었던 남녀가 마지막에 가서 리상의 불일치로 결렬될수도 있으며 아무런 곡절도 없이 순조롭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작품들에서 도식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분야의 하나는 연고관계를 설정하는데서 인위적으로 꾸미는것이다. 사랑하는 사이인데 상대방의 부모친척과는 갈등관계에 놓여 고민한다던가, 신통히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한사건, 한계기에 집중된다던가 하여튼 연고관계를 깊게 주어 그 어떤 《극성》을 노리는데서 오는 이런 경향은 너무나 자주 부닥치게 된다.

그러면 이런 도식의 장벽을 마스고 문학과 독자를 완전히 하나로 결합시키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대담하게 착상하고 형상하는 작가적인 담을 키워야 한다. 공연히 이것저것 재면서 눈치놀음을 하여서는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날수 없다. 그러자면 당정책적요구를 똑바로 알고 생활을 깊이 연구하여 자신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기성의 창작경험을 충분히 체득한 기초우에서 형상수법을 다양하게 써야 한다. 다주인공을 설정하는 수법, 주인공을 감추어놓고 형상하는 수법, 부정적인간을 중심에 놓고 형상하는 수법, 작가와 인물의 심리를 기본으로 생활을 그리는 수법, 랑만주의적수법 등 효과적인 형상수법을 우리 인민들의 미감과 요구에 맞게 활용하여 형상창조의 폭을 대담하게 넓혀나가야 한다.

문학의 형태도 다양하게 개척해나가야 한다. 특히 소설에서 지금 쓰고있는 일반소설형태와 함께 추리소설, 실화소설, 환상소설, 운문소설, 지능소설, 의인화된 소설 등을 대담하게 개척하여 내놓아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창작의 독창성과 작가의 개성에 관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문예사상을 관철하는데서 모두가 선구자, 개척자가 되여야 할것이다.

력사의 메아리 외 1편

허성훈

세월을 넘어, 세대를 넘어
처절하던 그날의 목소리
오늘도 이 가슴에
메아리쳐와라
...끓어죽을 각오
맞아죽을 각오
얼어죽을 각오...

물러서면 내가 죽는
박절한 력사의 극한점에서
심장에 불을 달아
민족의 머리우에 추켜든
김형직선생님의 3대각오

식민지의 독오른 채찍에
지치고, 시달리고, 어혈든 겨레
2천만을
불러, 독립성전에 묶어세운
피흘리는 조선의 고향소리,
울려, 누리를 진감한 력사의 메
아리여!

선생님의 가슴에 불타는
3대각오는
원한에 찬 민족의 넋이
무적으로 벼락치는
검이더냐, 방패더냐

말해다오, 선생님의 두손에서
포승을 풀어준 연포리 주막이여,
추격의 참빛질에 혈안된 경찰들
의
눈을 떨군 가득령의 산전막이며,
살려서는 돌려보낸적 없는 마적
들도
선생님께 문을 열어준 망강경이여,

인류사에 그 어느 명장도 못지닌
목숨을 내대이는 각오가
선생님이시여, 어찌면
춘삼월 꽃향기처럼 가슴 젖게
합니까
운명의 넋인양 이 심장을 흔들니까

목숨과 바꿀 신념이 없이는
애국애족이 없이는 감히
못품는
메아리쳐오는 선생님의
3대각오를
위대한 령도자를 받드는
충효의 길에
내 투쟁의 영원한 좌우명으로
삼노라

겁나 3대각오를 버린자
역적으로, 배신자로 악취를
풍겼
나니
엄혹해도 무릅쓰고 품은자
우국지사로, 영웅호걸로,
애국명장으로
오늘도 살아 우리곁에
빛나거니...

해방의 새벽을 불러

피같이 흐르는 압록강-
흐느끼며 가던 마지막 국경의
물결이
선생님의 발목 부여잡고
통곡할 때
립강으로 향하신 걸음, 더는
못떼여
한번 더 돌아보는 조국산천-

가는 앞엔 포승과 족쇄와 철창
떠나온 뒤엔 노예된 조국과
겨레...
그래도 가야만 하는
이역이였거니
운명의 타종봉 추켜드시오
-조선아, 내 독립을 안고오마!

오, 제 명줄 하나 못잇던
그날에
김형직선생님 아니시면 그

뉘가
동포 2천만을 막아
총칼앞에 가슴 내대셨으랴

설분에 찬 우국지사들이
갈길 몰라 땅을 치며
강토를 부둥켜안고 통곡할 때
친히 방향타를 드시여
공산주의운동으로 이끄신 스승
이시여

철쇄를 마술 마치를
압제를 사를 불을
찾으며, 만들며, 모으며, 합치며
목숨을 장담 못할 사지판에서
《지원》의 뜻 소나무의 기상으로
일제의 아성에 칼을 박았다

낮길보다 밤길을, 큰길보다
오솔길을

이슬을 털며 걸으셨지만
걸음걸음 피로 적신 독립의
그길을
넓게 열린 포석도인양
선생님을 따라 조선이 걸었다

가차없는 우뢰같이, 폭풍같이
일제의 야만통치에 징벌을
내리며
독립성전에 펼쳐세운
불굴의 인간-존엄높은
스승이시여!

해방의 새벽을 불러불러
흰두루마기자락 기발처럼
날리시며
독립조선을 마중하는 그 모습
아아, 오늘도 우리앞에 보이는
듯하여라

우리의 밤

리종성

밤, 삼라만상이 다 깊은 잠에 든듯 정적이 깃들었다. 승용차들과 뺑스들의 질주로 번잡하던 네거리도 침묵에 잠긴채 누웠는데 만수대언덕우에는 사람들이 붐비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 인사를 드리고도 그자리를 떠날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우리 가족도 그속에 끼여 머리숙여 삼가 인사를 올렸다. 매일밤 여기로 찾아오지만 올적마다 후더운 눈물이 솟구치고 쉽게 떠나게 되질 않는곳이었다. 그래서 밤마다 찾아와서도 동상주변을 거둑거둑 쓸고 하얀 대돌을 정히 닦으며 어버이수령님동상을 다시 우러르고 또 우러르는것이다.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바치시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 정력적으로 일하시다가 가신 위대한 수령님.

정녕 그이의 한생애 잠시의 휴식이나마 보장해드렸다면 우리의 가슴 이처럼 미어오지 않을터인데...

저려오는 가슴으로 동상주변을 쓸고쓰는데 고요한 밤공기를 가르며 인민대학습당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왔다.

《땡- 땡-》

새벽 2시를 알리는 종소리였다. 그 종소리를 들노라니 또다시 가슴 뭉클 젖어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영 우리곁을 떠나신 잇을수 없는 새벽 2시, 어쩌면 저 종소리는 그 새벽을 잊지 말라고 여운을 끌며 오래오래 메아리쳐가는것 같았다.

내옆에서 그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던 인민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가 나를 바라보며 문득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저 2시가 없었더라면 아버지대원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을수도 있지요?》

철없는 아들의 물음이었지만 눈굽이 달아오르며 대답을 찾지 못했다. 정말 7월 8일 새벽 2시가 없었더라면 이런 가슴앓음으로 우리 모대기지 않을수도 있지 않을까. 나역시 아들애처럼 사고를 단순하게 굴려보았다.

흘러가는 시간이 어찌 멈춰서길 바라며 뛰어넘거나 되돌아오길 바랄수 있으랴.

하지만 그 무수히 흘러간 시간속에서 우리 수령님 자신을 위해 바치신 시간이 하루한시도 없지 않는가.

만경대사립문을 나서시여 항일의 그날로부터 건

국의 나날,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 전후 사회주의건설의 나날 우리 수령님 시름 놓으시고 피로를 푸신적은 정말로 없었다.

일군들의 간청에 못이겨 휴양소로 가셨어도 밤이 새도록 일을 하였고 새벽이면 솟눈길을 헤치시며 주변농장의 새해농사차비를 돌보시며 남먼저 나서시였고 자신의 탄신일에마저도 평양에서 연회에 참가하여 술을 마시기보다는 노동자, 농민들속에 있는것이 더 기쁘다시며 현지지도의 길에서 그날을 보내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이런 우리 수령님을 떠나보낸 인민이기에 명절이면 명절대로 기쁜 때면 기뻐서 어버이를 못잊어 부르는것이 아닌가.

내가 생각에 잠겨있는 사이에도 사람들의 물결은 그칠새 없이 이 언덕으로 오르고있다.

어제 만났던 신원동의 로병부부며 사동별의 농장원들 그리고 금릉2동굴 군인건설자들의 모습도 보인다.

군인건설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추운 날씨였으나 오늘도 계획을 넘쳐했다고 보고를 올리고 래일도 또 혁신의 불길을 높여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답게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의 전사답게 살겠다고 목청껏 구호를 웨친다.

그들이 웨치는 구호소리는 마치도 저 하늘의 어둠을 밀어내는것 같았다. 그리고 미더운 전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선 나에게도 그들의 열정의 불길이 옮겨오는듯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들을 지켜보던 나의 딸애가 조용히 말하는것이였다.

《어머니, 조선의 밤은 안식의 밤이 아니라 맹세를 더 굳히는 밤이에요. 그렇지요?》

나를 바라보며 묻는 딸애의 얼굴에 숭엄한 빛이 어려있었다. 그순간엔 딸애가 나이보다 일찍 철들어보이면서 무척 사랑스레 안겨왔다.

안식의 밤이 아니라 새로운 맹세로 불타게 하는 밤!

나는 딸애의 어깨를 꼭 그러안으며 머리를 끄덕였다. 내 얼굴에서 긍정의 빛을 읽은 딸애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어리였다. 딸애는 머리를 들더니 검푸른 하늘을 향해 한손을 높이 드시고 서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이때 머리속에서 시 한수가 문득 떠올랐다.

이밤 세상사람들
피로에 지친 몸
잠속에 밀어 버렸으리
돈많은 부자들은
유혹과 쾌락으로 날새는줄 모르리

허나 내 나라 내 조국엔
이밤이 투쟁의 밤이다
수령님 그리는 심장들에
날로 더 큰 기적을 일으킬
불같은 맹세 없어가는 밤이다

...

군인건설자들이 비켜서자 또 한차례의 사람들이
그이의 동상앞에 선다.

아마 이밤이 새도록 사람들은 끝없이 이 언덕으로
오르고오르리라.

날이 가고 세월이 가도 이 언덕을 찾아 어버이수
령님을 못잊는 마음들이 충성으로 불타는 맹세를
엮어가리라.

어머니의 모습

-림진강나무가에 한그루 버드나무가 있다-

신지락

꿈에도
생시에도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속엔
너만이 보인다
너만을 찾는다

분렬된 조국의 세월을
칭칭 허리에 두르고
한점 소슬바람에도
천만아지 흔들어 설레는 나무야
고향의 버드나무야

외로이 홀로 서있는 그 모습
어쩐지 내겐 생각되누나
이 아들을 기다려 기다려
긴긴세월 애태우며 살아오셨을
남녘의 내 어머니처럼

포연이 하늘을 뒤덮던 그밤
나무가의 버드나무밑에서
북으로 떠나는 내 어깨우에
작은 보따리 메워주며
손저어 바래주던 어머니

헤어져선 못살아
떨어져선 못살아
꿈결에도 부르며 찾으며 오가던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

아들의 피를 태우며
어머니의 애간장 태우며
무정하게 흘러간 세월이
길었던가

짧았던가

아, 한생을 기다리시며
이 아들을 기다리시며
운명하면서도 눈감지 못했다는
어머니 그 령혼이
버드나무 너인듯싶구나

발고랑처럼 터갈린 줄기줄기는
기다림에 갈가리 찢어진
어머니의 가슴인듯
마디마디 맺힌 웅이는
어머니 흘린 눈물의 자욱인듯

두팔 벌려 부르며 찾으며
엎어질듯 쓰러질듯 서있는
어머니의 모습인양
억만 일세를 흔들어 흔들어
몸부림쳐 설레는 버드나무야

어찌보면 너의 그 모습
흰옷입고 바래주던 어머니
마치 푸른 옷 입고 서계시는듯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날처럼 이 아들을 기다려주시는듯

아, 어머니는 오늘도
삼단같은 머리태를 풀어헤치고
혈육을 갈라놓은 원썬들을 절규하며
어서 오라 어서 오라
소리쳐 부르고 부르노라

아들아 아들아!
통일아 통일아!

백두의 숨결

조재홍

정일봉으로 가는 빠스는 어느덧 소백수풀에 들어섰다.

유정임은 놀란 눈으로 성에 낀 차창밖을 넋없이 내다보았다. 구름속에 폭 박힌 가파로운 산발들도 하얗게 눈을 뒤집어쓰고 몸부림치는 밀림도 드세찬 바람에 쫓겨 골안으로 쓸어들어가는 눈발도 가느다란 소백수가 바닥을 다 차지한 깊은 골짜기도 모른것이 다 신비하기만 했다.

이틀전 지원물자를 가지고 평양을 떠날 때는 여름옷을 입었는데도 무더웠었다. 하지만 이곳은 평양의 12월과 맞먹는 어방없는 한겨울이다. 눈이 많아지고 눈보라가 지동치고… 소백수풀안으로 들어갈수록 겨울도 점점 더 사나워지는것이 험동하게 알린다. 손가락을 쏘아보아도 5월1일경기장 건설장에 나가 처음으로 《도적작업》을 하다가 연공들의 좌상아바이한테 들켜서 쫓겨나던 일이 7월초이니 불과 석달전 일이다. 한아빠트에서 사는 아버지의 친구인 좌상아바이의 너부죽한 얼굴이 떠오르자 그가 리길영에게 전해달라던 편지생각이 났다.

정임의 알뜰한 입가에는 웃음이 떠올랐다. 깡그리 잊어버린줄만 알았던 어처구니가 없는 지난일이 불현듯 떠올라서였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앞두고 평양에는 광복거리를 비롯한 수많은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일떠서기 시작하였다. 그중에는 축전의 기본행사인 개막식과 폐막식을 진행할 5월1일경기장도 있었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아니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온 세계가 모여들어 반제련대성, 평화, 친선을 노래할곳, 그것으로 하여 로동당시대의 위대한 창조물로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경기장!, 그것으로 하여 로동당시대의 위대한 창조물로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경기장! 그 이름과 더불어 건설자들의 가지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도 길이 빛날것이였다.

인민대학습당 사서의 구태의연한 직업은 끝이 없지만 건설은 처녀시절에 한번 툭 빼여지게 해볼만한 일이였다.

정임은 퇴근하자 작업복을 갈아입고 공사장에 나가 어디가 제일 보람찬 일터인가를 정찰해보았다. 그는 연공들이 기술적으로나 로력적으로 제일 어렵고 힘든 지봉공사를 맡고있다는것을 제껴 알아냈다. 힘든곳에는 언제나 영예가 있기 마련이다. 그곳에 깃을 들여야 한다!

정임은 그날부터 묵묵히 일을 시작했다.

좌상아바이는 처음엔 연약한 처녀라고 머리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며칠후엔 그를 리해하고 적극 부

추쳐주었다. 그의 요구대로 제일 힘든 작업장에 서슴없이 받아주었다.

지원자대오는 날마다 부쩍부쩍 늘어났다. 이젠 개별적으로는 어디에서도 일감을 얻어낼수 없었다. 그리하여 일 잘하고 노래 잘 부르고 좌상아바이와 통하는 정임이가 처녀지원자들의 대장으로 선출되였다. 대오의 표적은 빨간 머리수건이고 《입대선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 소속없는 부대를 로출시키지 않는다는것이였다. 그 비밀이 얼마가지 못하고 깨어질 위험에 처할줄이야!

누군가 정임을 비롯한 다섯명 처녀들의 사진을 커다랗게 찍어 현장영예게시판 한복판에 번듯이 붙여놓은것이였다. 다행히도 이름대신 《빨간머리수건대장》, 《빨간머리수건》 이런식으로 밖에 사진설명을 달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연공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화제거리로 되였다.

어느날 새벽 정임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퇴근》길에 올랐다. 그가 방금 공사장아구를 벗어났을 때 누군가 뒤에서 《유정임동무!》 하고 딱 찍어서 불렀다. 깜짝 놀라 돌아다보니 머리에 비닐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은 박달나무처럼 단단하게 생긴 사나이가 혈레벌떡 따라왔다.

정임은 가슴이 섬찝했다. 저런 안전모는 공사장에서 연공들만 쓴다. 그들은 언제나 으시대며 자기들을 자칭 《수리개》라고 했다. 어쨌든 그들은 공사장의 소문난 일욕심꾸러기들이였다.

정임은 그들속에서 이 청년을 본것 같은 인상이 없었다. 뻔단계 영예게시판에 오르는 건설자들의 영예사진에서는 더욱 그랬다. 저 사람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냈을가, 어쩐지 접어드는 잡도리가 심상치 않다. 정임은 은근히 마음을 도사리고 무슨 일인가 묻는 시선을 던지시 던졌다.

《연공 리길영입니다. 좀 말할게 있어서…》

길영은 이렇게 운을 떼놓고 정임의 반응을 기다렸다. 역시 처음 듣는 이름이다.

《말씀하세요.》

정임은 술곳이 눈을 내리깐채 말했다.

《우리 일을 도와주어 고맙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고마워요. 괜찮습니다!》

《동무들이 통 결을 주지 않아서 인사말 한마디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거 무슨 노래를 부른다거나 혹은…》

길영은 점직해서인지 힘들게 말했다.

(음 역시 싱겁게 접근하구나!)

정임은 속으로 웃었다. 처녀가 늙으면 속에 구렁이가 열두마리 들어앉는다는데 정임은 벌써 스물여섯살이다. 그리 놀랄일도 아니었다. 그는 침착하게 불빛어린 길영의 모습을 찬찬히 여겨보았다.

불살이 그리 없고 가느스름하게 뜬 눈이 영채롭게 빛나는 세모진 얼굴, 단단은 하지만 정임이 자기보다 크기는커녕 작을사한 체구, -처녀앞에서 말도 배짱있게 못하는 어색한 몸가짐... 현장속보관이나 신문에 이름석자도 날것 같지 않은 총각이 분명했다.

(정말 별일이 다 있구나.)

정임은 저도 모르게 허거른 웃음이 나갔다.

《그렇게 생각해서 고맙습니다. 저도 일을 맡아서 처리할줄 안답니다.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아셨는가요?》

정임은 웃음띤 얼굴로 조용히 물었다.

《왜 모르겠습니까. 온 공사장이 다 아는데, 더구나 저야...》

길영은 정임의 얼굴을 능청스럽게 쳐다보며 빙그레 웃는다. 무엇이나 다 알고있다는 투였다. 이런 총각들 앞에서는 주눅이 들어 시간을 끌면 재미가 없다.

《그래서 절 만나자고 했나요? 그럼 전 가보겠어요.》

정임은 좋게 잘라 말하고 돌아섰다. 기분이 좋지 않았으나 그리 인상에 남는 일도 아니어서 그는 그 일을 인차 머리속에서 지워버리고말았다.

며칠이 지난 어느날 밤, 정임은 한 처녀로부터 심상치 않은 보고를 받았다. 웬 《수리개》가 현장계시판에 붙은 정임의 사진을 정신없이 들여다보고있다는것이였다. 정임은 속으로 놀랐다. 그 《수리개》는 길영이였던것이다.

정임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뭐라구 언니생각을 그리도 끔찍이 할가. 별로 눈에 띄이지도 않는 사람이...》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래도 수리개네.》

정임은 속이 후련했으나 겉으로는 슬쩍 면박을 주었다. 그러자 빨간머리수전은 불길처럼 확 타올랐다.

《수리개는 무슨 수리개, 이젠 우리 망신이야. 시시한 소문이라도 퍼지면 어찌겠어요. 꼭 쫓아버리고말아야지.》

처녀는 총알처럼 달려나갔다. 정임은 모르는척 내버려두었다. 처녀는 길영이와 뭐라고 해댄다. 길영은 어이없는듯 그를 뵈히 마주보더니 손을 뻗 내젓고는 가버렸다.

이튿날 새벽 그는 좌상아바이를 조용히 만나 길영이를 만났던 사실을 대충 이야기하고나서 슬쩍 물었다.

《그런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글쎄... 그건 네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렴. 그래야 정확하지.》

내내 싱글벙글 웃기만하던 좌상아바이가 머리를 기웃했다. 정임은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였다. 신통한것이 없다는 소리가 아닌가. 하긴 그런걸 알아선 뭘하랴, 훔치어버리면 단걸 가지고... 저도 모르게 신경을 쓴걸 생각하면 슬그머니 부아가 났다. 하긴 그런데 오히려 오히려도 없었다. 백두밀영고향집이 세상사람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자리잡게 되자 원상대로 꾸리는 사업이 시작되었던것이다. 온 나라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그 영광스러운곳으로 다름아닌

《수리개》들이 선발되어 돌격대를 무어가지고 떠나갔다. 그 부러운 대오속에는 길영이도 끼여있었다. 정임은 그곳으로 가고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그만큼 감격과 흥분이 컸다. 백두밀영은 언제나 그리운곳으로 되었다. 거기서 일은 못한다고 해도 한번 가라도 보고싶었다. 그 간절한 소망은 마침내 이루어졌다.

직장에서 정성껏 마련한 지원물자를 가지고 그도가게 되었던것이다. 경기장건설장에 남아있던 연공들도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떠나던 날 역에까지 배웅을 나온 좌상아바이는 정임의 손에 두툼한 편지를 꼭 쥐여주며 마치 무슨 큰 보물이거나 한듯 신신당부를 했다.

《길영에게 네손으로 직접 전해줘라. 알겠냐?》

정임은 얼굴에 머리를 끄덕이였다. 자기도 그리운곳으로 간다는 그 흥분, 그 기쁨에 허공 떠들던 정임은 기차를 타고 빠스를 타고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를 알수 없었다. 한데 정작 그렇게도 마음을 끌던 정다운곳으로 오니 기억밖에 있던 길영이가 다시 나타났다.

편지를 전해주자,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신경을 쓴담. 그도 돌격대원이 아닌가. 정임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천고의 밀림이 우거진 비탈길을 굽이굽이 뚫아오르던 빠스가 마침내 맥을 놓고 벗어섰다. 소백수굴막바지에 자리잡은 공사장지휘부에 도착한것이였다.

빠스에서 내리자 선두한 행기를 머금은 찬바람이 휘파람소리를 내며 달려들었다. 정임은 오싹 몸이 돌아들었다. 그는 재빨리 옷자락을 부여잡았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먼길에 수고했어요. 영순이라고 불러주세요.》

마중나온 사람들속에서 동그스름한 얼굴이 감스레 탄 처녀가 하얀 덧이를 드러내보이며 다가와 다정히 손을 잡았다. 지휘부속보원이였다.

그는 사내들처럼 머리에 찌리안전모를 쓰고 누빈 솜동복을 입었는데 발에조차 군대솜신발을 신고 손에는 색감이 묻은 빙어리장갑을 척 겹쳐쥐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벽적벽적 뛰여다니는 돌격대원들이나 다름없는 차림새였다.

정임은 웃음이 나갔으나 내색을 않고 그의 손을 마주잡으며 자기 소개를 했다. 그리고는 정일봉이 어딘가고 서둘러 물었다.

영순은 분비나무, 가문비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룬 둥그런 수림꼭대기를 가리켰다. 그곳에서 골짜기로 쓸어들어온 바람이 짙은 구름과 눈보라를 말아안고 하늘로 소용돌이쳐 오르고있었다. 바로 그속에 정일봉의 거대한 웅자가 하늘을 치받고 우뚝 솟아있었다.

정일봉은 구름과 눈바람의 거세찬 소용돌이속에서 이따금 우등불처럼 환히 나타났다가는 언뜻 사라지곤했다. 어떤 때는 숨이 떡 막힐듯 위엄차게 안겨오기도 한다. 그 하늘꼭대기구름속에서 파아란 불꽃들이 조화를 부리듯 쉬임없이 팍팍 튀겨났다. 천지조화를 다 거느린 정일봉의 위용앞에 넋을 잃고 서있던 정임은 깜짝 놀라서 영순에게 물었다.

《저기에 사람이 있는것이 아니예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 돌격대원들이 일한답니 다.》

《예?!》

정임은 입을 딱 벌렸다. 그야말로 구름속 하늘에 일판을 벌려놓은것이다.

《오세요. 그들이 여기에 있어요.》

영순이가 어리벙벙해 서있는 정임이를 대형속보판앞으로 이끌고 갔다. 비닐안전모를 쓴 낮익은 사람들의 사진이 주련이 붙어있었다. 반가워서 다가가던 정임은 맨첫머리에 있는 커다란 사진에 눈이 멎는 순간 오통 걸음을 멈추었다. 눈을 홑뜨고 다시 보아도 그것은 분명 리길영이었다.

길영은 못마땅한듯한 표정으로 땅을 내려다보고 있다. 아니 자기 정임이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룡라도에서 그밤 자기를 쳐다보던 그 눈길로... 정임은 금시 기분이 흐려졌다.

《잘 아는 사이인 모양이지요?》

눈치 빠른 영순이가 상냥하게 물었다. 정임은 그제야 길영의 사진앞에서 또 쓸데 없는 신경을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다.

《아니, 아니예요.》

정임은 황황히 머리를 가로저으며 사진앞에서 물러났다. 그것은 오히려 영순의 오해를 더 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임은 자기의 실수를 깨달았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저 구름속에서 용접불꽃을 날리고있는것이 바로 길영동무예요. 정말 불같은 사람이지요.》

영순이가 밝게 웃으며 길영이를 기껏 자랑했다.

《이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 아세요? 일하고 돌아오는 길영동무를 몰래 찍은거예요. 그 동무의 얼굴을 영예게시판에 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번은 기자동무가 어서 그를 신문에 내겠다고 불렀는데 글썽 길영동문 다른 사람을 슬쩍 보냈어

요. 정치부장동지가 속았다는것을 알자 빨리 나서 당장 그를 불러다놓고 야단을 쳤지요워.

《동무, 당장 조직규률문제를 보고 여기서 쫓아버리겠소.》

그러니까 길영동무가 뭐랬는지 아세요?

《명령을 어긴건 잘못했습니다. 조직규률문제가 지야 뭐. 조직규률문제에서 조직이란 두 글자는 빼고 규률문제를 보겠으면 보십시오. 그러나 쫓아버리는 결정은 내리지 말아주십시오.》

《이 동무가!...》

정치부장동지는 어이가 없어서 허허 웃고말았답니다. 정치부장동지는 조직문제도 규률문제도 보지 않을테니 그대신 영예게시판에 널 사진을 찍으라고 명령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어떤 《말썽》을 부렸는지 아세요.

《선동원동무, 잘 생기지도 못한 얼굴을 찍어서선 뭘하겠소. 그대신 우리 동무들을 찍어서 크게 자랑해주시요.》

《길영동무는 그 우리 동무들과 같아요. 어서 알아 보세요.》

《갈소. 갈다니까. 제발 이러지 마요.》

그러는걸 억지로 세워놓고 샤타를 눌렀는데 글썽 그 순간 눈을 딱 감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수없이 일하고 돌아오는걸 몰래 찍었답니다. 하다보니 사진이 저렇게...》

영순은 남의 속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든 그를 더 자랑하지 못해 애를 쓴다. 아마 길영이가 정임의 애인이라도 되는줄 아는 모양이다. 그는 이사람 저사람 달려다니며 만나고 같이 온 사람들을 랑해시키더니 정임을 데리고 정일봉을 향해 떠났다. 한순간이라도 빨리 길영이와 만나게 해주려는것이 분명했다.

정임은 큰 마음을 먹고 선뜻 따라나섰다. 이제 길영이와 마주설 일이 난감하기도 했지만 것처럼 보고싶던 정일봉인데 그쯤한것이 무슨 대수랴하는 생각이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었다.

정임은 영순의 설명을 들으며 벼랑밑으로 올라갔다. 거기에는 굴돌 여섯개가 나란히 놓여있었다. 이제 이 굴돌을 바람과 구름이 휘휘 감겨도는 저 100미터꼭대기에 허공 들어올려 벼랑에 두쪽씩 붙여야 세글자가 된다고 한다.

올려다보기만해도 머리가 핑 돌고 숨이 차오르는 아득한 그 벼랑이마에 팔뚝같은 쇠바줄이 열기설기 영킨 사다리같은 이각주가 비스듬히 서있었다.

《며칠전에 글썽 첫돌을 들어올리다가 직경이 300미터나 되는 저 이각주쇠기둥이 휘어지고 발통이 튀어나와서 실패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각주와 발통을 보강하는 용접전투가 벌써 며칠째 계속되고있어요. 길영동무는 첫날부터 용접을 계속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견딜수 있는지 알수 없어요. 정임동무가 왔다는걸 알면 기운이 날거예요. 잘 고

무해주세요.》

정임은 잠시 어이없는 눈길로 영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가 왜 자기를 서둘러 데리고 왔는지를 알겠다. 정말 속보원, 선동원다운 마음이다.

정임은 입가에 가벼운 웃음을 띄워보이고 눈길을 돌려 정일봉꼭대기를 바라보았다.

이깎나무들이 몸부림치고 구름이 기발처럼 펄펄 날리는 이각주에 붙어 용접하는 사람들은 엄지손가락만큼밖에 돼보이지 않았다. 정말 장엄한 광경이었다.

《우리도 저기에 올라가 볼수 없을까요?》

정임은 자기도 그 영웅적인 공사의 목격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이길수 없어 물었다. 영순은 머리를 끄덕이더니 그를 데리고 정일봉오른쪽 모퉁이로 갔다. 그곳 벼랑에는 광산의 수직갱에서처럼 사다리 길이 놓여있었다. 잡을것이란 그우에 늘어놓은 굵은 바줄밖에 없다.

《자신있어요?》

영순이가 신발끈을 조여매며 미타해서 물었다.

정임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다잡고 웃어보였다.

《그럼 올라가자요. 아무리 힘들어도 뒤를 돌아다 보면 안돼요.》

영순은 바줄을 잡고 사다리우에 성큼 올라섰다.

정임은 사다리 한개를 겨우 올랐는데 벌써 다리가 떨리고 목에서 겨불내가 났다. 아직도 이런 수직 사다리와 허궁다리를 여덟개나 올라야 한다니 기가 막힌다. 하지만 영순은 그 험하고 아슬아슬한 길을 다람쥐처럼 가볍게 올라갔다. 그러다가는 한참씩 서서 기다리기도 하고 다시 내려와 정임을 부축해주기도 했다.

정임의 몸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아차 하면 천길나락속으로 떨어지고말것 같아 바줄을 있는 힘을 다해 틀어쥐었더니 이제는 손맥 팔맥이 다 풀렸다.

얼마나 올랐는지... 갑자기 사나운 눈바람이 휘 불어와 머리수건을 벗겨가지고 허공중으로 달아났다. 정임은 머리수건을 잡으려고 얼핏 돌아다보았다. 순간 머리가 펄 돌고 정신이 아찔해졌다. 몸이 아득한 바닥에 허궁 나떨어지는듯 현기증이 일었다. 정임은 《아-》 비명을 지르며 바줄을 꼭 부둥켜안았다. 그때 영순이가 달려내려와 부축해주지 않았던들 그는 그대로 굴어지고말았을것이였다.

《그것보라요. 돌아다보지 말라는데... 하긴 참엔 다 그래요. 돌격대원들은 바로 이 사다리우로 수백미터의 쇠바줄과 필요한 세멘트, 모래, 자갈, 기계수단들을 다 메여올렸어요. 그때도 길영동무가 앞장에 섰답니다. 물론 그새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수많은 지원자들의 노력도 깃들어있지만...》

《!!》

또 길영에 대한 이야기였다. 잔숨을 호호 태우며 바라보는 영순의 눈길을 받아 정임은 그저 눈을 내

리깔았다.

정임은 할말이 없었다. 홀몸으로도 이처럼 오르기 힘든 사나운 벼랑길을 개척하며 앞장에 섰다는 길영의 수고가 십분 헤아려졌기때문이었다. 이곳에서는 듣는것마다 보는것마다 다 놀라운것뿐이다. 혁신, 기적이라는 말조차 무색할 지경이다. 정임은 영순의 모습을 다시 보았다. 그도 돌격대원들도 모두 폭풍을 헤치는 불사신 같았다.

정임은 그 모든 사실들이 길영이와 련결되어있는 것이 놀라왔다.

그들이 걸음을 멈춘곳은 커다란 바위가 바람을 막아선 코숭이여서 사위가 잘 보이였다.

바로 건너편에 갈기를 날리며 달려가는것 같은 룡마바위와 장검바위가 있고 그앞에는 해돋이바위, 그 뒤에 소백산과 간백산이 엄엄하게 솟아있다. 정일봉뒤쪽은 사자봉이 호위병마냥 지켜서있다. 정일봉은 그 못봉우리들과 높낮은 산들을 모두 거느리고 거연히 서서 광란하며 달려드는 설한풍과 차거운 눈비를 모조리 막아 하늘에 휘뿌려던진다. 그리하여 정일봉의 양지바른 품에 옷자락마냥 푸른 수림을 주위에 두르고 포근히 안겨있는 고향집엔 채운이 드리운듯했다. 정일봉은 앞으로도 영원히 고향집을 웅위하고 이렇게 서있을것이였다.

정임의 가슴속에서는 자기도 이 귀중한 정일봉에 무엇인가 바치고싶은 충동이 북받쳐올랐다. 그는 영순의 등을 밀고 등성으로 올라갔다. 순간 휘몰아쳐온 바람이 그를 허궁 들어 내동댕이쳤다. 찰나 영순이가 재빨리 그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그들은 습습한 냄새가 풍기는 부식토바닥에 돌맹이처럼 나뒹굴었다.

《호호... 미안해요. 미처 대드리지 못해서... 이제부터는 나무든, 바위든 안전바줄이든 아무거나 단단히 붙잡으세요. 자칫 잘못하다간 종이장처럼 날려갈수 있어요.》

영순은 소리내며 웃으며 정임을 일으켜세웠다. 혼이 난 정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등성이위로 기여올라갔다. 사나운 칼바람이 회초리처럼 사정없이 얼굴을 후려갈겼다.

간신히 눈을 뜨고보니 절벽을 깎아만든 벼랑턱에 커다란 이각주가 쇠바줄들을 낚시줄처럼 드리우고 비스듬히 서있었다. 드살찬 바람에 쫓겨 골안을 메우며 쓸어들어온 눈구름과 진한 안개가 벼랑중턱에 부딪쳐서는 이각주를 휩쓸며 폭풍쳐올라왔다. 벼랑이 울고 육중한 이각주가 흔들거렸다. 그 기둥에 하얗게 눈을 뒤집어쓴 사람들이 붙어서 광란하는 날씨는 잊은듯 용접을 해댄다. 그야말로 수백미터 허공중이다.

《오른쪽 기둥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는가 보세요.》

영순이가 정임의 귀에 대고 속삭이였다.

그가 가리키는곳에 눈길이 미치는 순간 정임은

흠칫 놀랐다. 길영이었다. 그는 비닐안전모대신 하얀 털모자를 쓰고 몸은 쇠기둥에 바줄로 단단히 동여맸다. 용접면을 비스듬히 댄 그의 눈앞에서는 파아란 용접불빛이 꺼면 연기를 풍기며 실재없이 터져나왔다. 추위도, 위험도 안중에 있는것 같지 않다. 오직 용접이다.

간단없이 타래를 지으며 휘뿌려드는 눈보라속에 묻히었다가는 다시 나타나군하는 길영이의 모습은 날개를 익세게 펼치고 창공에 솟은 수리개의 모습 그대로였다.

《정임동무!》

영순이가 저쪽에서 손짓을 했다. 그는 대공전화기를 든 사람곁에 서있었다.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그 사람은 정임이가 다가가자 웃으며 머리를 끄덕여보였다. 그리고는 대공전화기를 불쑥 앞에 내밀었다.

《아니, 이젠?!》 옆곁에 대공전화기를 받아든 정임은 영문을 몰라 눈을 홑떴다.

《길영동무입니다. 인사하십시오. 간단히!》

그 사람이 친절하게 일깨워주었다.

《어서요.》

대공전화기를 받쳐든 영순이가 생글거리며 정임을 재촉했다. 정임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처한 낯빛으로 서성거리기만했다.

문득 5월1일경기장 건설장에서 그와 만났던 때의 일이 떠올랐다. 그때는 종시 곁을 안주고 매정하리만치 돌아섰던 정임이었다. 그런데... 아마 길영은 정임의 목소리를 들으면 순간에 기쁨으로 화답할것이다. 정임은 그것이 두려웠다.

《길영동문 벌써 며칠째 이렇게 일하고있어요... 무엇이든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어요. 그러면 아마...》

영순이 정임의 옷자락을 당기며 또다시 재촉하였다. 정임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키었다. 그리고 대공수화기를 입가 가까이 가져갔다. 일은 어딘가 쑥스러웠지만 다름아닌 온 나라가 열망하는 정일봉공사를 다그치는 일이라는 자각이 들었던것이다.

《안녕하세요? 유정임이에요.》

정임은 마음을 다잡고 온순하게 말을 했다. 그러나 길영은 그의 모든 우려를 여지없이 짓밟아버렸다.

《알겠소!》

길영의 대답은 이게 다였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눈바람에 동북자락을 펄펄 날리며 세관게 용접을 해냈다. 범접할수 없는 요새처럼 흰구름이 그의 주위를 빙글빙글 싸고돈다. 이것은 너무나도 처참한 무시였다. 생전처음 당해보는 일이다. 얼굴이 뜨겁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임은 영순을 어색하게 돌아다보았다.

《리해하세요. 짬이 없어 그래요.》

영순이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럴수 있지뵤. 별걸 다 가지고...》

정임은 가볍게 웃어보였다.

릉라도에서 낯을 익힌 《수리개》들이 다가와 반갑게 손을 잡아주며 인사를 했다. 역시 통이 크고 인정미 넘치는 그들이었다.

정임은 차라리 일이 잘되었다고 생각했다. 길영이가 릉라도에서처럼 달라붙지 않아서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기때문이였다.

그는 호주머니안에 있는 좌상아바이의 편지를 만져보았다. 이젠 편지를 전해주기도 쉽게 되었다. 그의 영웅적소행에 대해서도 스스로없이 축하해줄수 있으리라!

마침내 그 시각은 왔다.

일이 끝나고 길영이네들이 벼랑턱으로 내려왔다. 길영은 몹시 피로한 상이였다.

정임은 얼없이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가 릉라도에서 이곳으로 온지는 불과 두달도 못된다.

그새 그는 판사람처럼 변했다. 불살이 더 짝이워진것 같고 입가장자리에는 옅은 보풀이 일어섰다.

길영이가 정임이쪽을 돌아다보며 가볍게 눈인사를 했다.

《언제 왔소?》

《방금 도착한 길입니다.》

인사는 이외에도 투박했고 서먹서먹한 속에서 건네여졌다. 정임은 좌상아바이가 보내준 편지를 꺼내려고 곱은 손을 장갑속에서 뽐았다. 그러던 정임은 아연해졌다. 그에게서 불일을 다 보았다는듯 고개를 끄덕여보인 길영이가 픽 돌아서서 이각주 발통앞으로 걸어갔던것이다.

이윽고 그는 정임의 존재는 잊어버린듯 발통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온통 일생각밖에 없는듯하였다.

영순이가 보다못해 달려가 그의 등을 두드리며 뭐라고 말했다. 정임이 소리를 하는모양이다. 길영은 그에게 한번 머리를 끄덕여보이고는 이쪽에 대고 두팔을 벌려보이더니 다시 묵묵히 일손을 놀렸다. 영순이가 미안한듯 정임을 돌아다본다. 정임은 피나게 입술을 깨물었다.

(아이참, 별나게는 노네, 누가 어찌는것처럼...)

정임은 어이없었다. 그는 무시당한듯한 모멸감으로 하여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돌아설수 없었다. 손에는 좌상아바이의 편지가 그대로 쥐여져있었다. 불현간 날카로운 호각소리가 벼랑을 울리었다.

언뜻 눈을 들어보니 정일봉 정점에 선 신호수가 온 골안이 다 보게 커다란 붉은 기발을 높이 쳐들었다.

정일봉꼭대기를 통채로 휘둘러감고 이각주를 짹 붙들고있는 팔뚝같은 쇠바줄들도, 활차들에 휘감겨 벼랑밑으로 내려간 쇠바줄들도 활시위처럼 긴장되었다. 저아래 중간작업장밑에 버티고앉아 거미처럼 아득바득 쇠바줄을 당겨물고있는 견인차들, 숨을

죽이고 개바닥에 딱정벌레처럼 붙어있는 방송차, 승용차들, 여기저기에 선대로 굳어진 사람들... 다 치면 그대로 폭탄처럼 팡 터져버릴것 같은 긴장, 침묵이 정일봉을 휩쌌다. 기승을 부리던 눈바람도 질겁을 한듯 수림언저리에서 좌좌거릴뿐이다.

드디어 긴 호각소리가 울리고 신호수의 붉은 기발이 포물선을 그으며 떨어졌다. 첫 글돌을 들어올리는 역사적순간이 닥쳐왔다.

활차가 돌아가는 아츠러운 쇠소리 힘에 부쳐 부르르 몸을 떠는 이각주...

건설자들이 긴장한 자세로 여기저기 널려 자기 맡은 일에 여념이 없었다.

정임은 당황해났다. 아무것도 할일이 없는것은 그 혼자뿐이었다. 무엇인가 하고싶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알수 없었다. 돌격대원들은 모두 기계의 치차처럼 맞물려 돌아가느라고 정임이같은것은 돌아다볼 겨를이 없다. 영순이마저 그를 버리고 어디로 갔는지 종적이 없다.

이 바쁜 순간 먼저 눈앞에 떠오른것은 길영이었다. 그는 황급히 그를 더듬어 찾았다. 길영은 이각주의 쇠발통을 짊 붙안고있었다. 그우에 돌격대원들이 엉켜붙었다. 그들은 그대로 이각주의 주추돌이 된듯싶었다. 그제야 보니 그속에는 영순이도 있었다. 오직 자기만이 외토리로 남아있을뿐...

문득 이각주가 당장 거꾸러질듯 휘청거리었다. 글돌이 벼랑중턱에 걸린것이었다. 글돌도, 이각주도, 길영이네들도 모두 아찔한 날벼랑밑에 구겨박히고마는듯싶었다. 정임은 눈을 딱 감았다. 그러나 한순간 《동무들!》 하는 길영의 부르짖음이 포효처럼 울리자 눈을 떴다.

돌격대원들은 아까보다 더 억세게 뭉치여 이각주를 떠받들고있었다.

그 순간 정임은 무서움도 주저도 없어졌다.

정임은 자기도 모를 거대한 힘의 충동에 못이겨 그들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는 모든 위험을 한가슴으로 다 막을듯 길영이네들을 와락 끌어안았다. 돌격대원들의 억센 팔뚝들이 목에, 허리에, 어깨에 마구 휘감긴다. 정임의 마음은 한없이 편안해졌다. 무한히 행복한 그 순간 길영이와 눈길이 마주쳤다. 길영은 빙그레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 웃음이 왜선지 정임에게는 류다른 감정을 불러주었다. 그의 수고로움에 대한 미련 감정이서였다. 정임은 가벼운 미소로 응대하였다. 한동안 눈과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쳤다.

《여기 일을 부탁하오!》

길영이가 누구에게라 없이 말하고는 누가 막을새도 없이 벼랑밑으로 바줄을 타고 내려갔다. 정임은 그가 남긴 말은 자기에겐 한 부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쇠발통을 짊 껴안은채 눈물을 머금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길영은 허공중에 매달려 글돌이 걸린 벼랑턱을

광광 까내었다. 억센 날개처럼 옷자락이 바람에 펄펄 날린다. 정임은 그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주고싶었다. 용기를 주고싶었다. 그는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며 부르던 노래를 생각했다. 그는 서둘러 노래를 뗐다.

그 언제나 보고싶어 찾는곳
백두밀영고향집을
소중히도 품에 안고 서있는
영광넘친 봉우리어

어쩐지 길영이가 듣는것 같지 않았다. 정임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군가 메고있는 확성기가 보였다. 그는 무작정 확성기를 앓아다가 벼랑턱에 대고 목청을 돋구었다.

아- 정일봉 빛나라 그 이름
향도의 별빛 어려있어 너의 모습 장엄하여라

길영이 그를 올려다본다. 그리고는 힘이 난듯 손을 한번 휘젓고는 더 힘차게 바위를 까낸다. 그 소리가 북처럼 광광 정임의 가슴을 울리는듯했다. 그는 사기가 났다. 흥분에 젖은 그는 돌격대원들이 그리고 중간작업장과 개바닥에서 모두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줄도 몰랐다.

어느덧 벼랑턱을 다 까내고 길을 연 길영이가 글돌을 소중히 짊 끌어안더니 우에 대고 소리쳤다. 그야말로 글돌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모습이다.

《올려라!》

《먼저 올라오라. 위험하다!》

돌격대원들이 웨쳤다. 그러나 길영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문제없다! 올려라!!》

그 웨침은 포성처럼 돌격대원들의 가슴을 울렸다. 위기를 면한 글돌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

글돌은 점점 가까와졌다. 마치 그 글돌을 길영이가 한품에 안고 벼랑을 한치한치 뚫아오르는것 같았다. 그도 노래를 부르르고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번쩍거려었다. 정임은 마치 자기의 노래가 멎으면 글돌도 멎을것만 같아 확성기를 더욱 굳게 틀어쥐었다.

마침내 글돌은 제정된 벼랑턱에 와 닿았다. 성공이었다. 돌격대원들이 달려들어 글돌과 길영이를 마구 끌어안았다. 만세, 만세가 터졌다. 그들은 울며 웃으며 노래를 부르며 글돌과 벼랑사이에 몰탈을 처넣었다.

...

아-정일봉 빛나라 그 이름
백두령봉의 맑은 정기 네가 모두 지녔구나

정임은 애써 끌라임고온 옷이 온통 먼지투성이가 되는줄도 모르고 물탈을 다지고 또 다지였다.

이제는 물탈이 굳어지는 족족 굴돌을 들어올리면서 되었다.

잠시 휴식이 선포되었다.

길영은 큰일을 한 사람같지 않게 혼연한 표정으로 정임이와 마주섰다. 룡라도에서와는 달리 전혀 판사람이 된듯 무게가 있고 침착했다.

《고맙소!》

길영은 주저주저하다가 겨우 입을 놀려 이 한마디를 했다. 정임은 그가 무엇이 고맙다고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백마디천마디 말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울렸다. 정임은 가슴속에서 뜨거운것이 솟아올라 대답을 못하고 대신 좌상아바이의 편지를 내놓았다.

길영은 반갑게 편지를 받았다. 하지만 손가락이 열고 굳어져서 쥐지 못했다. 그는 편지를 두손바닥 사이에 끼워든채 어쩔줄을 몰라한다. 그러다가 어설픈 미소를 지으며 정임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좀 뜯어줄수 없겠소?》

《예, 알겠어요.》

정임은 얼른 편지를 뜯고 속지를 꺼내어 그의 앞에 펼쳐주었다. 길영은 찢찢한 두손바닥으로 조심히 그의 편지를 왼 손등을 받쳐들었다. 그러나 읽는 기척이 없었다. 웬일인가싶어 올려다보니 길영은 범벅이 된 눈을 껌벅거리며 안타까와할뿐 좀처럼 읽지 못한다. 잘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바람이 어찌나 센지 용접면을 썼는데도 그만...》

길영이가 변명삼아 말한다.

《이 편지를 좀 읽어주시오!》

길영이가 할수없이 부탁을 했다.

정임은 몽클 가슴이 뛰놀았다. 길영이가 고마웠다. 이렇게라도 그를 도와주게 된것이 기뻐다. 그는 서둘러 편지를 바로쥐고 읽었다.

《...몸은 비록 여기 룡라도에 있지만 마음은 그곳에 가있네. 늘 가슴속에서 정일봉이 우리 혁명의 우등불처럼 타오르고있지. 그래서 모두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네. 그럴수록 성수가 나지.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살것세. 이게 정일봉을 우리르는 우리의 마음이야.》

길영이, 우리는 자네들이 착암기 한대 제대로 올려가기 힘든곳에서 사나운 눈바람과 싸우며 어려운 일을 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네. 하지만 정일봉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는 일인데 무엇을 못하겠나.

자네야 어디가나 제 힘껏 일하고도 속보에 한번 나는것마저 굳이 양보하고...》

《저... 거긴 그만두고 그 다음을...》

길영이가 먼구스러운듯 중단시켰다. 지친듯한 그 목소리는 어쩐지 맥없이 늘어졌다. 정임은 할수없이 그 대목을 눈으로 읽었다.

《...동무들을 앞에 내세워주던 사람이 아닌가. 그러느라고 어디에 이름한번 사진한번 나본적 없는 진국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공사에 선 참으로 추천해보냈다는것을 한순간도 잊지말게.》

정임은 가슴이 떨려났다. 그는 길영이를 다시 보고싶어 눈을 들었다. 길영이가 어색하게 웃었다.

《어서 다음장을 읽어주오.》

정임은 젖어오르는 눈을 습벽이며 편지를 들었다. 눈시울이 떨려나고 얼굴이 뜨겁게 달았다. 미처 느끼지 못했던 그의 인간됨이 그렇게 만들었던것이다. 그에게 죄송스러웠다. 5월1일경기장에서 그에게 경박한 마음을 품었던 일이 생각키웠다.

정임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그의 독촉을 받고야 다음장을 읽어내려갔다.

《소대장, 우리는 자네들을 지켜보고있네. 아니 온 조국이 자네들을 바라보고있네. 단 한초라도 더 빨리 그 영광의 봉우리에 우리의 가슴속에 안고사는 글발을 새겨주게. 하늘땅에 빛나게. 온 세상이 다 보게... 그 역사적인 순간을 밤이나 낮이나 손꼽아 기다리겠네.》

참, 그새 공장대학졸업식이 있었네. 축하하네. 자네 최우등이야. 이제는 어엿한 기사선생님이시. 졸업식엔 자넬 대신해서 내가 참가했네. 대학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다음에는 정임이가 가니 잘 돌봐주라는 부탁이 써여져있었다. 정임은 그 부분은 읽지 않고 편지를 접어서 길영의 호주머니에 넣어주었다.

길영은 무엇인가 잠간 생각하더니 하얀 눈을 한 움큼 쥐여 눈과 얼굴을 한참 비비고나서 말했다.

《내겐 정말 시간이 없소. 량해하오.》

그는 돌아서서 작업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폭풍에도, 사나운 눈보라에도 끄떡없이 서있는 정일봉의 바위벼랑처럼 억센 기상이다.

정임은 지지는듯 얼굴이 뜨거웠다. 또다시 룡라도에서 속보판에 사진 한장 나붙지 못했다고, 체격이나 생김새를 놓고 보잘것 없는 인간이라고 치부하던 경솔한 자기가 생각나서였다. 좌상아바이가 왜 제눈으로 직접 보고 평가하라고 했는지 이제는 알겠다.

바라는것도 없이 모든것이 갖추어진 평시에는 사람들뒤에서 묵묵히 자기를 바치고 가장 위험하고 힘든 모퉁이에는 서슴없이 생명도 내대는 인간, 그것을 한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투사들이 넘겨준 백두의 숨결이 아닌가.

그러나 자기 정임은 그렇게 마련된 행복의 그늘속에서 응석받이가 되어 일을 해도 사랑을 해도 명예를 바라는 리해타산부터 앞세웠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길영을 하찮게 여겨왔던것이다.

이것을 깨닫자 길영이가 세상에서 가장 크고 훌륭한 청년으로 가슴넘치게 안겨왔다.

《아유, 이게 뭐예요. 주제가...》

언제 왔는지 영순이가 호들갑을 떨었다.
 정임은 그제야 자기를 살펴보았다. 마치 나들이
 나 떠나는것처럼 차려입고 온 옷이 눈물에 젖고 물
 탈이 묻어 말이 아니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길영
 이네들과 한덩어리가 되어본 기념이었다. 정임은
 이대로 살고싶었다. 영순이처럼 티도 없이 꾸밈도
 없이 그리고 길영이처럼 자기의 모든것을 짱그리
 다 바치며...

방금 글돌을 벼랑꼭대기에 다 올려다볼였다.
 이 시각 정임은 떠나가야 했다. 그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잊을수 없는 추억이 깃든 정일봉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정일봉》돌격대원들과 수십만 지원자들이 가슴
 으로 받들어올린 세글자가 장군봉의 억센 기상처럼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마음처럼, 만수축원의
 꽃바구니처럼 밝게 빛났다.

그곳에서는 아직도 길영이네들이 일하고있었다.
 그가 보고싶었다. 하지만 정임은 굳이 자신을 다잡
 았다. 아직은 그를 떳떳이 만날 면목이 없었다.

정임은 가슴을 끌어안았다. 안주머니에는 영순이
 가 준 길영이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못마땅한듯 땅
 을 내려다보며 찍은 그 사진이었다.

빠스는 정일봉 기슭을 떠났다. 정임은 자기가 가
 야 할 멀고 먼 충성의 길에 대한 깊은 생각에 빠져
 들었다. 그의 가슴속에는 정일봉날벼랑턱에서 길영
 이네와 함께 부르던 노래가 가득차있었다.

...

모진 바람 몰아쳐도 한모습
 변함없는 봉우리여
 아- 정일봉 빛나라 그 이름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라라

모판의 파란 잎새

김창규

동지섣달에도
 흙갈이로 살이 지고
 진거름을 받아 단김을 뽑던 들에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던 강냉이모판

애기송곳이같이
 어제런듯 싹이 트더니
 기다리던 잎
 오늘은 세잎 네잎이로구나

강냉이모들아
 애기는 고운 세살이라더니
 너는 기쁜 세잎 네잎이로구나
 들로 가는 세잎 네잎이로구나

강냉이모들아
 너도 오늘을 함뻍 기다렸기에
 들로 가는 길 하종아 팔랑이느냐
 봄노래에 흥이 겨워 어깨춤이나

들에 온 모들이
 로독을 풀려는듯
 분수비로 몸을 씻는데
 기름진 들이

너희들을 포근히 껴안는구나

쌍둥이모들 들가득 펼쳐지니
 새들도 하종아 푸른 들에 우짖는가
 뜨는 달도 하종아 환히 웃는가
 만풍년의 첫결음 멋이로다

넓어지는 푸른 들 따라
 황금물결이 어려온다
 읍기자 전격전으로
 봄씨불임은 농사의 첫공정

잎새 하나 상할세라
 어느 한포기 뒤질세라
 어버이수령님 풍년열쇠로 쥐여주신
 주체농법의 빛발만이
 이 나라 들마다 넘친다

세잎 네잎 강냉이모들아
 날을 따라 달을 따라
 너 가는 길에 만족만 있으리
 비바람 불어도
 왕가물 들어도
 만풍년 가을로 가리라

막내아들

림병순

최두삼아바이네 가정은 언제 봐야 온화한 봄철날씨처럼 조용하였다. 늙은 내외가 살고있으니 서로 얼굴 붉히는 일도 없었고 밖에 큰소리가 새나가는 일도 없었다. 자식들도 이미 셋은 시집장가를 보내여 세간을 났고 남은 막내아들마저 도소재지에 나가 선반공으로 일하고있었다. 애면글면 키우던 자식모두가 어느덧 품에서 훨훨 날아가버리고 이제는 그들만이 옛보금자리를 지키고있는 셈이었다.

두 내외가 다 공로보장을 받고있기에 생활에서는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었다. 그들의 하루일과란 기껏하여 세끼 때식을 끓이고 화분이나 채전을 가꾸든가 아니면 제때에 닭모이를 주고 저녁에는 텔레비존수상기앞에 나왔어 보도를 듣고 영화를 보는 것이 전부였다.

그래서 아바이가 취미를 붙인것이 낚시질이었다. 한생 목형공으로 늙어온 아바이는 눈썰미가 있고 무슨 일에서나 극성스러워 그가 낚시대를 메고 달천강가에 나서기만 하면 허탕을 치는 일이 없었다. 해가 질무렵이면 늘 팔뚝같은 잉어나 메기가 아니면 손바닥같은 붕어들이 들어있는 그물망대를 들고 돌아왔는데 그때는 마치 개신장군처럼 희색이 만연하여 안해앞에 나타나곤하였다.

이런 날은 안해가 잊지 않고 푸짐한 생선국이 오른 저녁상에 의례히 술 한고뿌를 받쳐서 들여왔다. 아바이는 상을 물리고나서 거나해서 기타를 벗겨들고 갈리고 느린 목청으로 《가슴에 꿰는 피를...》하고 흥얼흥얼 노래까지 불렀다. 감회에 젖어있는 듯한 그 노래에는 의용군으로 입대하여 전쟁의 불비를 헤치던 잊을수 없는 청춘시절의 추억이 깃들여있었다.

이웃들은 남다른 정서를 타고 새나오는 기타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한 미소를 머금고 늙고 무던한 부부의 여생을 축복하였다.

최두삼아바이에게 한가지 소원이 있다면 생전에 고향에 돌아가 혈육들을 만나고 송아지동무들과 열싸안고 통일의 기쁨을 나누는것이였다. 부모님들은 이제는 아들을 기다리다 원한을 품은채 불모의 땅에 고향이 되었을것이다. 몇달이면 통일을 하고 돌아오겠다고 부모님들에게 큰절을 하고 떠나왔건만 백발이 성성해진 오늘까지 고향은 마음속의 동경으로 남아있었다. 능쟁이범벅에 된장 한술가락을 넣은 도시락을 허리춤에 차고 토우를 몰아가며 들판을 베려 다니던 어린 시절도, 주무방(산)비탈에 설레이던 보리이삭들의 설레임소리도 한해한해 덧쌓이는 인생의 년륜속에 가리워 그동경마저 이제는

아득한 몽상처럼 사라져가고있었다. 어찌다 아바이의 입에서 고향이야기가 나오면 자식들은 마치면 옛말을 듣듯 그저 레사롭게 감수하기가 일쑤였다. 그것이 그지없이 서거러웠지만 어찌하랴. 자식들이 아버지의 그 간절한 심경을 어이 헤아릴수 있을것인가?...

안해의 마음은 그저 외지에 나가있는 막내아들에 게만 가있었다. 성미가 거세고 활달한 딸아들과는 달리 막내는 어머니를 닮아서인지 몸집도 가냘프고 성격도 온순하였다. 어려서부터 집안의 응석받이로 키워서 지금까지도 어머니한테는 철부지와 다름없었다. 집에서 떠나자 처음에는 한주일이 멀다하게 편지를 보내왔고 무엇이나 사소한 생활의 불편도 숨김없이 다 적어보냈다. 부모들의 심정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아들이었다.

그럴 때마다 최두삼아바이는 보던 편지를 안해앞에 내동댕이치듯하며 쓰겁게 군입을 다시였고 아들 대신 안해가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청원하였다.

하지만 안해는 덮어놓고 아들편역을 들었다.

편지를 받는 날이면 안해는 돋보기를 드리우고 고작 16절지 한장에 불과한 종이장에서 눈을 떼지 않고 보고 또 보았으며 회답을 쓰느라 온밤을 뜬눈으로 새우다싶이하였다. 안해는 한번 편지를 받으면 두번 회답을 하고 소포를 보내느라 극성이었다.

그러던 막내아들한테서 웬일인지 차차 편지가 떠지더니 요즘에는 아예 끊어지고말았다.

안해가 편지를 기다리다못해 나중에는 《막내이기도 이제는 집에 정이 떠졌수다.》하고 성글은 속눈썹을 슬쩍일 때면 아바이는 서운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위안하듯 이렇게 말했다.

《우리 막내가 이제는 일에 취미를 붙였다는거야.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지 않나.》

그래도 안해의 서글픈 표정은 가셔지지 않았다.

《하긴 만이도 그랬지요. 군대에 나가선 뻔질나게 편지를 하더니 빨간령장에 노란줄이 늘자부터는 아예 편지하는 법을 몰랐수다.》

《허허, 당신은... 자식들이라는게 다 그런거지 뭐.》

아바이는 시뻘뻘이 말하며 입가에 허구픈 미소를 지었다. 옛날부터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 십분의 하나라도 따르면 효자라고 하지 않았는가?... 자기들도 젊었을 때는 그랬었다. 자식들이 자라면 부모의 슬하를 떠나가고 세월이 흐르면 부모에 대한 정은 자연히 자기 안해와 자식들에게 옮겨지기마련이었다.

이것은 인간생활의 하나의 자연스러운 법칙이었다. 그것을 몰라도 아니고 알면서도 줄창 기다리고 마음을 쓰는 것이 늙은이들의 한갓 로파심이라기보다는 어쩔수 없는 인간생활의 본능인가싶었다.

이 가정에서 기타소리가 툭 끊어진 것은 7월의 무더운 여름날부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뜻밖에서 거하시겠다는 놀라운 소식은 그지없이 행복하던 이 가정에 악몽과도 같은 피로움을 들뜨워놓았다. 믿을수 없는 사실 앞에서 몸부림치며 눈물만 흘리고 있던 최두삼아버이는 낯시대를 건너놓고 그날부터 아버지 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사적지에 나가살다싶이 하였다.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있는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마다에 생존시에 못다한 충성심을 쏟아가꾸듯이...

그러던 어느날 막내아들한테서 놀라운 전보 한장이 날아들었다.

안해는 전보장을 받아들자 그길로 허둥지둥 령감한테로 달려왔다. 그는 꽃밭에 물을 주고있는 아버지를 띠여보자 성급히 다가오며 불렀다.

《여보-》

아버이는 놀라 눈을 치켜올리었다.

《왜 그러우?》

안해는 몹시 서두르며 령감한테 들고온 전보장을 내보이였다.

아버이는 눈시울을 쪼프리고 잠시 전보장을 더듬었다. 아들이 인민군대에 입대한다는 전보였다. 전혀 예견하지 않던 일이었다.

안해는 낫차로 도에 가야겠다면서 먼저 역근처에 있는 맏이네 집으로 향하였다.

(우리 막내가 군대에 나간단 말이지...)

그는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줄곧 아들에 대한 생각에 머리가 번거로웠다. 대견한 생각과 함께 서운한 마음도 가라앉힐수가 없었다.

(혹시 군대에 나가서 상관들의 속이나 태우고 중대의 집이나 되지 않겠는지?...)

×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서 소꿉장난을 하고 있던 어린 손녀애가 반기며 바지자락에 대롱대롱 매달리었다.

《할아버지, 삼촌이 인민군대가 되엿대.》

《그래... 너 어떻게 왔니?》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왔지뵈. 상점에서 닭도 사왔다.》

손녀는 작은 두팔을 한껏 벌리며 까만 눈알을 굴리었다.

안해가 어느새 와서 떠날 차비를 서두르는 모양이었다. 음식을 만드는지 열려진 부엌문으로 흰김이 꾸역꾸역 새나왔다.

아버이는 부엌앞에 가서 안을 기웃이 들여다보았

다. 안해는 금시 가마우에 시루를 얹어놓고 떡가루를 안치느라 여념이 없었다. 가시대앞에서 머느리가 까만 닭 한마리를 튀어놓고 한창 털을 뽑고있었다.

《허, 이거 꼭 대사집같군그래.》

아버이가 부엌안을 들여다보며 넋지시 한마디하자 머느리가 마주보며 얹은 입가에 조용히 웃음을 머금었다. 안해가 령감한테로 낫을 돌리었다.

《령감도 같이 안가겠수?》

《내가 가선 뭘해? 로친네나 가서 보면 되지.》

그러자 안해는 막내가 군대에 나가는데 어쩌면 보고싶지도 않는가고 끝끝 허를 차더니 령차시안을 물어보았다.

낫차는 이미 시간이 박두하였으니 믿을수가 없게 되었다.

《오후 4시차에 가야겠구먼...》

《에도 철이 없지, 왜 미리 전보를 쳐주지 못한담...》

안해는 일손을 놀리며 제결에 아들을 원망하며 공연한 푸념질이다.

최두삼아버이는 손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웬일인지 마음이 설쫘한게 안정되지 않았다. 맏이를 군대에 보낼 때와는 달랐다. 늙으면 절로 감정이 어리여지는탓인지도 몰랐다. 그때는 젊고 온 정신이 그저 공장에만 가있는데다 또한 집안에 자식들이 돌이나 있었으니 별로 서운한것도 모르고 쾌사로운 기분으로 떠나보냈었다. 그런데다 맏이는 어느 모로 보나 성미가 들차서 어데 보내도 걱정이 없었지만 막내는 그늘밑의 싱아대처럼 키만 컸지 성미도 연약하고 오돌차지 못하였으며 아직 집안에서는 응석받이였다.

막내가 일곱살에 잡혀 학교에 다니던 어느날이었다. 교복을 차려입고 책가방을 멘 아들이 안해의 손에 이끌리어 학교로 가던 도중 안해가 다니던 직장앞을 지나게 되었다. 어머니와 헤어져야 할 시각에 아들은 별안간 떨어지지 않겠다고 몸부림을 하며 생떼를 썼다. 어머니가 달래고 아버지가 눈을 부라려도 아들은 무가내였다. 아버지는 아연해졌고 어머니는 달래다 못해 울상이 되어버리었다.

최두삼은 옆에서 그것을 보다못해 애리애리한 아들의 뺨에 손찌검을 안기고나서 다짜고짜 아들의 손목을 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은 더 극성스럽게 울었다. 그는 아들을 옷칸에 집어넣고 밖으로 자물쇠를 잠그었다. 한번 단단히 혼살을 내서 그 응석부리는 버릇을 툭 떼버릴 작정이였다.

오래동안 쉴게 울던 아들의 울음소리가 그치는가 싶어 옷간문앞에 가서 귀를 강구었더니 울음은 소리가 작아졌을뿐 그친것이 아니였다. 울음소리는 장마철의 비소리마냥 그칠락말락하면서 한것이나 계속되였다. 참으로 끈질기기도 하였다.

최두삼은 마루에 앉아 애꽃은 담배연기만 련속

빨아올리었다. 그러는데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어 안해가 집에 들어섰다.

《막내가 학교에 간게지요?》

안해는 대문안에 들어서자 먼저 아들소리부터 꺼냈다.

최두삼은 돌아앉아 말없이 담배연기만 내뿜었다.

그 순간 어머니 말소리를 듣고 옷장에서 아들이 왕-하고 울음을 터치었다.

《내 손을 들었소. 시러베자식-》

안해는 황급히 옷간의 자물쇠를 열고 아들을 끼고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버리었다.

성미는 급하지만 자식들한테 손찌검을 하는 일이 없는 최두삼은 난생처음 아들을 때린것이 두고두고 후회되기도 하였지만 그때로부터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어두운 그늘이 좀처럼 사라질줄을 몰랐었다.

그후에는 앞집의 원일리와 대비되면서 그런 마음이 더 짙어졌는지도 몰랐다. 아들과 원일리는 늘 그림자처럼 붙어다니었다. 공부도 같이 했고 놀아도 같이 놀았다. 아들이 있는곳에는 원일리가 있었고 원일리가 있는곳에 가보면 아들이 있었다. 몸집은 아들처럼 갈라하였지만 영민하게 생긴 얼굴과 생기 있는 눈동자만 보아도 그애는 침착하고 담찬 성미임을 알수 있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것이 어른다와서 최두삼아바이는 자기 막내가 원일리와 같이 처신하기만을 바랐고 그래서 집에 오면 각별히 친절하게 대해주었던것이다.

《원일리에 비하면 우리 성학이는 아직 철부지야.》

원일리가 집에 왔다가는 날이면 아바이는 늘 이렇게 입버릇처럼 외이었다.

《당신은... 그저 제 아들은 응석반이로만 본다니까. 우리 성학이한테도 좋은 점이 없을라구...》

《또또, 제자식 역성드는건 못난이들이 하는짓이야.》

그러면 안해는 말대신 얼굴만 흐리었다.

《하긴 애비라는게 처음부터 길을 잘못들인탓이지...》

《아니 무슨 짐승이라고 길을 들어요? 그렇게 억박지르기만 하면 안돼요.》

안해는 매번 이렇게 아들을 두둔하였고 아바이는 그러는 안해를 나무리었다.

원일리는 졸업후 탄광에 진출할 결심을 한것을 보아도 여간 똑똑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사이에 안해가 방에 들어와서 옷장문을 열어놓고 나들이옷을 꺼내놓는다. 아들한테 가지고갈 만년필이며 필수품들을 찾아 꾸레미를 꾸리느라 부산을 피웠다. 언제 봐도 막내가한테라면 극성을 부리는 안해였다.

그때 마당으로 만이가 들어섰다. 어깨에는 새 배낭이 걸쳐져있었다.

아들을 보자 안해는 차시간전에 음식을 하자면어서 부엌에 나가 일손을 도와야겠다고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해한다.

《어머니, 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해는 영문을 몰라 눈을 홑뜨고 만이를 마주보았다.

《성학이가 왔습니다. 래일까지 시간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왜 같이 안왔냐?》

《네, 역에서 동무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배낭을 맡기고...》

만이가 배낭을 벗어놓자 안해가 그것을 품에 받아안고 별안간 눈을 습쩍이었다.

《에도 참... 집에서 절 얼마나 기다리기에... 철이 없구나.》

안해는 서운한 얼굴로 만이를 지켜보더니 이윽고 꺼내놓았던 옷가지들을 다시 옷장안에 개어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인차 오라고 일렸으니 곧 집에 오겠지요.》

《그럼 아예 찬들을 더 준비해야겠구나. 동무들이 모두 밀려올테니...》

안해는 다시 행주치마를 두르고나서 벽장에 올라가 콩이며 감자들을 다래끼에 담아가지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손녀애가 최두삼의 무릎앞에 다가앉으며 좋아서 해드득거리었다.

최두삼아바이는 손녀애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들의 배낭옆으로 옮겨앉아 끈을 풀었다. 안에는 막내가 입던 옷가지와 소지품, 기념으로 받은 수첩과 학습장 몇권이 있었다.

아바이는 그가운데서 연토색가위의 사진첩을 꺼내들었다. 거기에는 공장에 가서 찍은 여라문장의 사진이 붙어있었다. 기대공과 함께 찍은 견습공때의 사진도 있고 충성의 노래모임끝에 찍은 사진도 있었으며 강안공원에 들놀이를 나가 찍은 사진도 있었다. 맨 뒤에 작업반전원이 찍은 사진은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기념이었다. 앞줄의 한가운데 기발을 들고 앉아있는 나이지숙한 사람이 작업반장인 모양이었다. 역시 아들은 작업반에서도 막내가였다. 그러니 철없는것이 작업반장의 속도 어지간히 태웠을것이다.

아바이는 이런 생각에 잠기자 그동안 아들의 생활에 무관심했다는 일종의 자책감으로 하여 입귀에 회심의 미소를 그리었다.

이 사진들은 마치 막내이의 사회생활의 력사가 그대로 어려있는듯싶었다.

입대를 기념하여 찍은 사진들은 아직 붙이지 않은채 그대로 있었다. 뒤에는 각이한 필체로 씌여진 글들이 있었다. 《성학이를 초소로 보내며》, 《병사시절을 부디 위훈으로 빛내어주세요.》 《위대한 수령님의 위훈을 받들어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를 총대로 웅위하는 일당백전사가 되라!》

사진들을 들고 잠시 굴발들을 더듬던 아버지는 이윽고 사진첩을 접어 배낭안에 넣고 담배를 붙여 물었다.

만이가 아낙네들의 일손을 도우려고 부엌으로 나가자 손녀애는 사이문턱에 다가붙어 칭얼대기 시작하였다.

부엌에서는 음식을 만드느라 아낙네들이 땀을 철철 흘리고있었다.

저녁무렵이 다 되어서야 부엌일도 끝났는지 달가닥거리며 상을 차리는 소리가 들리었다. 마당으로 어둑어둑 땅거미가 스며들면서 차차 날이 어두워졌다.

안해가 행주치마로 이마의 땀을 문다지며 방안으로 들어와서 벽시계를 보았다. 빨리 와야 온 가족이 한상에 둘러앉겠는데 기다리는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래간만에 동무들을 만났으니 그럴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시간만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절로 초조해지는 마음을 누잡힐수가 없었다.

아들은 9시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삼촌을 기다리며 한창 재롱을 부리던 손녀애도 어느덧 잠에 취해버리었다.

그모양을 보자 최두삼아버지는 어서 아이를 깨워서 식사를 시키라고 일렀다.

《애들아, 오지 않는 애를 기다려 밤을 새울수는 없지 않느냐. 어서 식사를 하고 돌아들가거라.》

안해는 못내 서운해하는 얼굴로 또다시 벽시계를 쳐다보더니 말없이 부엌으로 나갔다.

모두 상에 둘러앉았으나 안해는 막냉이가 오면 함께 하겠다고 한사코 술을 들지 않았다. 아버지도 몇술 뜨다말고 인차 밥상에서 물러났다.

아들과 며느리가 손녀애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자 방안에는 또다시 고즈넉한 정숙이 깃들었다. 텔레비존이 래일의 순서를 알려주었다. 아직 안해는 부엌에서 들어올줄을 몰랐다.

《여보, 왜 그러구있소?》

그때야 자리에서 일어선 안해는 잠시 한곳에서 더듬거리더니 방안으로 들어왔다.

《여보, 우리가 공연히 성학이를 기다리는것이 아닐가요?》

안해의 낮으나 갈린 목소리였다.

《그애를 공연히 객지에 내보냈는가봐요. 객지에서 자라면 부모들 정이 떠진다는데... 옆에 데리고 있었을걸...》

《별소리...》

아버지는 말끝을 얼버무리고 힐끗 안해의 표정을 살피었다. 잔주름이 무수히 잡힌 꺼진 눈언저리에는 여전히 그늘이 비껴있었다. 지금까지 안해는 아들을 두고 서운해하는 기색을 나타낸적이 없었다.

아버지 역시 안해와 같은 심정이었으나 애써 그 마음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아들을 두고 여러가지 갈마드는 생각에 잠겼다가 담배불을 끄고 그대로 방바닥에 허리를 붙이였다.

안해가 이불장안에서 베개와 이불을 내려놓았으나 아버지는 팔베개를 한채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안해는 그대로 앉아 아들을 기다릴 모양이였다.

어디선가 어렴풋이 우뢰소리가 들려왔다. 한소나기 퍼부을 모양이였다.

×

최두삼아버지는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장에서 셔츠를 꺼내입었다.

앉아 졸고있던 안해가 눈길을 들고 어데 가려는가고 물었으나 그는 입을 봉한채 마루로 나섰다.

아버지는 곧바로 해송이네 집을 향해 걸음을 옮기였다. 해송이한테 가서 알아볼수밖에 없었다.

날이 흐려서 주위는 검은 포장을 드리운듯 한치 앞을 가려볼수 없었다. 간신히 길을 더듬어 어정어정 걸음을 옮겨놓는 최두삼아버지는 또다시 허우룩한 심경에 사로잡히였다. 기껏해서 집에 있을 날이 이틀밤인데 그마저 어머니결에서 보내지 못할것이 무엇이란... 사실 아들을 초소로 떠나보내는 이 마당에서 자기도 아버지로서 해주어야 할 말도 있었다. 이제 헤어지면 언제 만나 따뜻이 이야기해줄 기회인들 있겠는가?... 집에서 성의껏 음식까지 만들어놓고 기다리고있는것을 아들인들 모를리 없었다. (웅석반이로 자랐으니 부모들이 귀한걸 알수 없지...)

허전하고 야속한 생각에 잠겨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있는 아버지의 눈앞으로 하나의 간절한 회억이 불현듯 되살아났다...

그날도 바람세찬 캄캄한 여름밤이였다. 남해에서는 집채같은 파도가 사나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끝없이 기슭으로 밀려왔다.

최두삼은 주무망기슭을 내리여 대나무숲이 태질하듯 설레이는 마을근처로 조심히 접근해왔다. 오래동안 놈들의 눈을 피해 산속에서 헤매다보니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였다. 머리칼은 더부룩히 이마와 귀를 덮었고 무명적삼은 가시에 찢겨여 너덜거리였다. 그는 대나무숲을 빠져나와 곧바로 돌담옆에 붙어서 집주위를 살피었다. 불이 꺼진 방안에서는 모두 잠이 들었는지 인적이기 없었다.

최두삼은 토방에 올라서서 나직이 어머니를 부르고 방문을 열었다.

《두삼이냐?》

어느새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쪽으로 이불을 밀어놓고 등잔불을 켰다.

《네가 웬일이냐?》

아버지가 따라 일어나며 아들의 거동을 살피었다. 어린 동생들은 여전히 자고있었다.

《아버지, 이제 곧 떠나겠습니다.》

《어데로 말이냐?》

《물론으로 가야지요. 인민군대가 목포를 해방하엿답니다.》

인민군대의 남진소식은 물에서 멀리 떨어진 섬마을에도 날아오고있었다. 꿈같은 소식에 접하자 마을의 젊은이들은 지체없이 물으로 건너가 인민군대에 입대하자고 분연히 떨쳐나섰던것이다. 아버지도 이미 그 기운을 눈치채고있었다.

《음, 가거라. 내 너의 앞길을 막지 않겠다.》

혼연한 낮빛으로 거둡 고개를 끄덕이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어서 밥을 지으라고 일렀다.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다. 동료들이 배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그래도 길량식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는 부엌으로 나가더니 주먹밥 몇덩어리를 싸 보자기를 들고 들어왔다. 먼 배길을 떠나야 하는 아들에게 기껏 보리밥 몇덩어리를 안겨주는 어머니는 못내 가슴이 쓰라려 치마자락으로 눈굽을 훔치였다.

《아버지, 어머니, 꼭 조국을 통일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최두삼은 트고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등을 오래동안 쓸어만지다 늙은 부모님들앞에 깊이 허리를 굽혔었다.

《좋은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꾸나.》

아버지가 아들의 잔등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몇달만 기다려주십시오.》

《부디 몸성히 돌아오너라.》

자는 동생들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어서 떠나라고 등을 밀었다. 떠나는 아들에게 흰쌀밥 한그릇 푸짐히 먹여보내지 못하는 어머니였고 바래주는 사람 하나없이 외로이 집을 떠나는 아들이었다.

최두삼은 이틀동안 사나운 풍랑을 헤치고 간신히 남해안의 어느 포구마을에 올라 땀에 절고 해진 무명적삼을 벗어던지고 처음으로 인민군대 군복을 갈아입었다. 그날은 최두삼이 두번다시 인생으로 태어난 운명적인 날이었다. 그런데 우리 성학이는 좋은 세월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행복만을 받아안고 자랐거든...

그는 혼자 입안으로 외이며 곧추 큰길을 지나 해송이네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으로 꺾어들었다. 방안은 이미 불이 꺼지고 불빛이 새나오는 부엌에서 그릇부시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두삼아바이는 조심히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서 주인을 찾았다.

해송의 어머니가 부엌문을 열어잡고 기웃이 밖을 살피었다.

《아, 성학의 아버지군요. 이밤중에?...》

《네, 우리 성학이를 기다리다 혹시 여기에 오지

않았는가 해서...》

《왔지요, 동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방금 전에 모두 헤어졌답니다. 혹시 길이 어긋난게 아닐까요?》

《아마 그렇게 된게군요.》

아바이가 인차 발길을 돌리자 해송의 어머니가 대문밖에까지 따라나오며 어두운데 길을 조심하라고 거듭 당부를 하였다.

그는 골목에서 빠져나와 다시 큰길을 향해 어정어정 걸음을 떼놓았다.

(철이 없지... 어머니가 것처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것도 모르거든... 어쩌면 보고싶지도 않을까?...)

아바이의 입에서는 절로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아들에 대한 련민에서라기보다 누를길 없는 야속함이였다. 정말 자라면 부모들에 대한 정이 떠지기 마련인가?... 그래서 장가를 보내면 4촌이 된다는 말이 생겨났는지도 몰랐다.

덧없는 생각에 잠겨 걸음을 옮겨놓던 최두삼아바이는 큰길옆에서 나는 인적기에 고개를 돌리였다. 나무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두사람이 마주서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안에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서있는것은 어딘가 모르게 처녀인듯싶었다. 밖에서 울타리기둥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고 서있는 청년은 군복을 입고있었다. 호리호리한 키며 쭉 빠진 목 그 몸매가 낫이 익었다.

(혹시 우리 성학이가...)

뇌리를 스치는 이런 생각에 아바이는 걸음을 멈추고 눈살을 찌프린채 귀를 강구었다.

《...성학동무, 저의 결심도...》

처녀의 또렷한 목소리였다.

《운심동무, 고맙소, 난 정말 기뻐...》

순간 아바이는 이마살을 찌프린채 고개를 돌리였다. 보지 말았어야 할것을 본 그때의 민망스러운 기분이라고 할는지?... 그런것만도 아니였다. 놀라움과 실망이 새롭게 마음속에 갈마들면서 아들에 대한 기대가 일시 허물어지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철부지인 아들이 어느새 저런 생각까지 하였던 말이지. 앞길이 창창한 그 나이에 벌써... 그렇다고 당장 달려나가 아들을 꾸짖을수도 없었다.

최두삼아바이는 아들을 데리고가려던 원래의 생각을 버리고 하는수 없이 혼자 큰길쪽으로 걸음을 옮겨놓았다.

아들은 자정이 켜 지나서야 집에 돌아왔다.

안해가 서둘러 상을 차려왔으나 아들은 더 먹을 수 없다고 하면서 땡수만을 청하였다.

《그래도 먹으려무나. 어머니가 지은 밥인데...》

아바이는 안해의 그 성의마저 거절해버리는 아들을 보기가 딱하였다.

그러자 아들은 마지 못해 상앞으로 나앉았으나 몇술 들지 않고 인차 물러나더니 네활개를 한껏 펼

치고 그대로 깊은 잠에 푹아떨어지고말았다.

×

아들옆에 누웠던 안해는 날이 밝기전부터 부엌에 나가 밥을 짓는다, 새음식을 만든다 하면서 부산을 피웠다.

최두삼아바이는 이러저러한 생각에 잠을 설치고 일어나앉아 담배를 붙여물었다.

아들은 덮었던 담요마저 한쪽으로 차던지고 배와 허리를 드러내놓은채 구들바닥에서 덩굴며 정신없이 자고있었다.

아바이는 그모양을 이윽히 지켜보다 담요를 가져다 아들에게 덮여주었다.

《막내가 잠을 몹시 갈개는데 군대에 나가면 일 없을가요?》

새문을 열어잡고 방안을 살피던 안해가 마음이 놓이지 않아 걱정을 하였다.

《원 별 걱정을...》

《저에는 유치원에서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애를 먹었다우.》

《허참 당신은...》

아바이는 턱을 들고 안해를 향해 시무룩히 웃어보였다. 나이로 보면 이제는 스무살이 되었고 키도 자기보다 한뼘이나 크지만 아들은 여전히 어린때와 같은 철부지로만 보이는 모양이었다. 하긴 나이가 들어 아버지가 된 다음에도 부모들앞에서는 어린애로 취급받게 되는것이 부모와 자식간에 변하지 않는 다심한 정이요, 인간생활의 어쩔수 없는 하나의 본능인듯싶었다.

지금 아들에 대하여 원심을 쓰게 되는것이 그래서일것인가?... 아바이는 본능도 로파심도 아니라고 속으로 그것을 부정하였다. 그렇다면?...

그는 자식을 넷이나 길렀지만 이러한 류다른 생각에 잠겨보기는 처음이 었다.

아들은 밥상이 차려진 다음 깨워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얘야, 오늘은 어데 나가지 않겠지?》

아들이 깔았던 포단을 개며 안해가 간절한 어조로 말했다.

《가야 해요. 어머니, 거 점심을 좀 푸짐히 싸아주지요.》

그러자 안해는 들고있던 포단을 맥없이 바닥에 떨어뜨리며 낮색을 흐리었다.

《어머니, 왜 그래요?》

《왜 그러는가고? 어쩌면... 네가 우리결에 있으면 이제 얼마나 더 있겠니? 그리고 너를 만나보겠다고 유치원선생도 왔댔다.》

안해가 목메여 말끝을 흐리자 아들은 미안해하며 입가에 시뻘뻘이 미소를 그리었다.

《...동무들과 약속을 해서...》

아들은 몹시 난처해서 말을 더듬었다.

《그래 동무들과의 약속은 귀하고 이 늙은 애비에 미와의 약속은 아무렇지도 않다는거지? 지난밤에 아버지가 널 찾아떠나기까지 한걸 알거나 하느냐?》

안해는 구들바닥에 퍼더앉아 연송 원망하는 목소리로 불만을 쏟아놓았다.

《어머니, 제가 미쳐... 용서해줘요.》

아들은 낮색이 굳어지면서 사죄하듯 말했다.

안해의 토라진 마음은 좀처럼 돌아서지 않았다.

《어제 만든 음식도 그대로 있다. 뒤두면 못쓰게 될테니 다 가지고가거라.》

아바이는 듣다못해 안해한테 질책의 눈총을 쏘았다.

《여보, 좀 그만하구려. 아침부터 무슨 푸념질이 그리 많소? 그애도 다 생각이 있어 그러겠는데...》

안해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버리었다.

얼마후 그들은 밥상에 둘러앉아 말없이 조반을 먹었다. 아들을 책망한탓에, 어머니를 노엽힌탓에, 안해를 나무린탓에 그들은 오래간만에 밥상에 마주앉았으나 제각기 마음이 무겁고 개운치 않았다. 상을 물리고나서도 그 어색한 분위기는 가셔지지 않았다.

아들은 차마 나가겠다는 소리를 더는 입밖에 내지 못하였으나 자주 시계를 들여다보다가는 구들바닥이 꺼지도록 깊은 한숨만을 내쉬었다. 어서 만이나 손자들이 오면 그 분위기가 가셔질수도 있겠지만 그애들마저 나타나지 않았다.

최두삼아바이는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연기를 날리며 아들의 기색을 살피었다. 주주 모두숨을 지으며 어깨를 처저내리고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자니 가슴이 여간 답답하지 않았다. 간밤에 길가에서 보았던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되살아나면서 지금 자기들이 아들을 구속하고 괴롭히고있다는 생각이 자꾸 가슴에 파고들었다. 아들이 저대로 자기들결에 있다한들 저 울적해진 기분이 가셔질리 없고 흐려진 낮빛이 밝아질리 만무하였다.

혹시 윤심이란 처녀와 만나기로 약속한것이나 아닐가?... 어제부터 아바이한테는 어느덧 이러한 생각이 머리에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아들이 처녀와 만나는것도 마지막일것이 아닌가? 그러자 윤심이란 처녀의 목소리가 귀가에 쟁쟁히 울리면서 공연히 마음이 뒤설레이기까지 하였다.

(아들을 내보내야 한다.)

아바이는 이렇게 속다짐을 하고 부엌으로 나가서 안해한테 어서 음식꾸레미를 싸서 아들을 내보내라고 일렀다.

안해는 남편의 의사를 거역하지 못하고 군말없이 음식을 보자기에 싸서 방안으로 들여보내었다.

멜가방에 음식보자기를 넣고 방문을 나서는 아들

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빛을 받은듯 환히 밝아지고 병글거리는 입언저리에서는 열적은 웃음이 떠올랐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가보고 될수록 인차 돌아 오겠어요.》

안해는 여전히 시뻘뻘해져서 말없이 아들을 지켜 보았다.

《그래라. 오늘은 형이랑 와서 기념으로 사진을 찍는다고 하였으니...》

안해대신 아버지가 이렇게 타이르며 어서 가라고 손짓을 해보이었다.

아들이 집을 나간지 얼마 안되어 만이와 사위가 손자에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다. 고운 옷들을 차려 입은 어린것들이 대문안에 들어서자 할아버지의 옷자락에 매달려 군대삼촌이 어데 갔는가고 찾으며 성화였다.

《할아버지, 사진 안찍나요?》

《찍어야지. 군대삼촌이 오면 할머니랑 어머니랑 다 가서 우리 사진을 찍자.》

이렇게 어린것들을 달래었으나 정오가 되도록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나저제나 하고 기다리다 막내없이 2시가 넘어서 모두 상에 둘러앉아 점심을 먹었다.

어린것들이 또다시 할아버지한테 매달리며 어서 사진을 찍으러 가자고 성화를 부리었다. 만이가 그러는 애들을 달래다 못해 눈을 부라리자 철없는것들이 입을 비죽거리며 울음을 터쳐놓았다.

최두삼아버이는 어수선했던 방안의 분위기를 알아보고있자니 가슴이 답답하여 마당으로 나섰다. 오늘날은 만사를 제쳐놓고 들어오리라고 믿었는데 무슨 일로 지체되는지 알수 없었다.

그는 허전한 생각에 잠겨 집주위를 서성거리었다.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졌다. 하루종일 불별이 쏟아져내리던 마당은 집 그림자에 덮여버리었다. 지붕우에서는 깃을 찾는지 참새들이 모여들어 극성스럽게 짹짹거리었다.

만아들이 동생을 찾아가보겠다고 마루에 나와 신을 신는것을 아버지가 말리었다.

잠시후 인민반장아주머니가 저녁 한끼를 같이하겠다고 찾아왔다.

《소년단넥타이를 매고 다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군대에 나가게 되었으니 잠간이지요.》

반장은 안해의 손을 마주잡고 상냥하게 눈웃음을 지었다.

《우리 막내가때문에 반장이 속을 태웠지.》

《별소리를 다하시네.》

《그것들이 저 놀이터에서 뿔은 차면서 얼마나 애를 먹었다구...》

안해는 진심으로 사죄하듯 말했다.

《그거야 우리가 뿔을 찰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지 못한탓이었지요.》

반장은 언제나 아이들에게는 너그러웠고 모든 아이들을 제자식처럼 사랑하였던것이다.

《이제 들어오면 꼭 어머니가 성학이를 데리고 오세요.》

《고마와요.》

반장은 차린건 없지만 섭섭해서 그러니 기다리겠다고 또다시 당부하고 돌아갔다. 뒤이어 성학이를 만나보겠다고 유치원시절의 선생이 또 찾아왔다가 서운한 얼굴로 발길을 돌리었다. 아들을 기다리다 못해 이제는 지쳐버린듯 어른도 아이들도 모두 울상이 되어 말없이 앉아있었다.

부뚜막에 걸터앉아 막연히 천정만 바라보고있는 안해의 눈가장자리에는 이슬같은것이 어리었다.

그 모습을 띄여보자 최두삼아버이는 아들에 대한 애틋한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치받치는 원망감을 누를수가 없었다.

그때 대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난데없는 어린 처녀애가 마당안으로 들어섰다.

《저, 이 집이 성학이오빠네 집이 옳나요?》

《그래, 그런데 넌 누구냐?》

아버이가 처녀애한테로 몇걸음 마주나갔다.

《난 해순이라고 해요. 우리 오빠이름은 해송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아버이는 처녀애의 손목을 잡고 토방앞으로 이끌었다.

《저... 성학오빠가 이걸 가져다주라고 해서...》

소녀는 말끝을 삼키고 아버지앞에 들고온 쪽지편지를 내주었다.

최두삼아버이는 얼른 편지를 펴들고 눈시울을 쏘프리였으나 글씨들이 사물사물한게 읽을수가 없었다. 그는 방안에 들어가서 돋보기를 가지고나왔다.

집에서 몹시 기다리겠기에 간단히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학급동무들과 함께 원일이가 일하고있는 탄광에 갔다오겠습니다. 윤심이란 녀동무는 위대한 수령님 유훈을 받들고 원일리와 함께 영원히 탄광에 뿌리를 내릴 결심을 하고 오늘 같이 떠나갑니다. 학급동무들이 모두 가서 그들을 축하하고 막장에 들어가서 같이 석탄 한차라도 실어주고 헤어지렵니다. 담임선생님도 같이 갑니다. 어머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아들 성학울림

최두삼아버이는 편지를 펼쳐든채 오래동안 그대로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눈앞은 안개에 가리우듯 뿌연게 흐려지고 얼굴이 불길에 닿듯 화끈해졌다.

윤심이란 처녀가 원일리와 함께 탄광에 영원히 뿌리를 내린다고?... 그런데 그 윤심을 아들과 남다른 인연이 있는 한갓 범속한 처녀로 여긴탓에 지금 아버이는 얼굴이 화끈거리었다. 윤심이는 과연

원일리와 뜻을 같이 할수 있는 더없이 훌륭한 처녀였다. 그들을 축하하고 같이 석탄 한차라도 실어주고 해지겠다고 찾아간 아들을 집에 붙들어놓지 못해 안달이 나서 따라다니다니?... 만약 아들이 동무들과 헤어져 기다리고있는 어머니곁으로 왔다면 기쁨대신 더 큰 수치와 아픔을 체험하였을것이다. 응석받이로만 여겨오던 아들이 언제 이렇게 생각이 엉뚱해지고 자랐는지 알수 없었다.

그는 자기의 머리속에 새겨져있는 아들과 이 순간의 아들을 두고 깊어지는 생각에 잠겨 말없이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변함없는 한모습이면서도 처음 대하는 아들의 모습에 아버지는 의혹과 경탄에 가슴이 절로 달아올랐다.

×

떠나는 사람, 바래주는 사람들이 붐비며 작별이 벌어지는 역구내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악대들이 나팔을 불고 소년단원들이 소고를 두드리며 꽃다발을 흔들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입대자들을 겹겹이 둘러싸고 꽃다발과 기념품을 안겨주며 야단법석이었다.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목마를 태우며 환호를 울리는축도 있었다.

성학이는 겹겹이 진은 친 그전날의 학급동무들속에 있었다. 그들속에 탄부복장을 한 원일리와 윤심이도 있었다.

담임선생이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무어라고 오래동안 이야기를 하더니 종이로 싸 기념품을 안겨주었다. 선생이 물러나자 또다시 청년들이 아들한테로 모여들었다.

최두삼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뒤전에 서있었다. 그옆에 떠나는것을 배웅하겠다고 따라온 인민반장과 이웃아낙네들이 서있었다.

도저히 아들앞으로 접근할수가 없었다. 손자들이 딸이와 사위의 품에 들리며 군대삼촌에게 손을 까딱거리며 인사를 보냈으나 아들은 동무들에게 온 정신을 잃고 그들에게는 눈길 한번 던지지 않았다.

아들은 동무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주먹을 쥐여보이기도 하면서 제법 틀지게 답례를 보내었다.

《어머니, 저것봐요. 막내가 얼마나 틀져요.》

인민반장이 아들한테 눈길을 던진채 안해한테 속삭이었다.

《애두 참, 여기 동네어머니들이 온것도 모르지 않나요.》

안해는 저으기 미안해하는 기색이었다.

《별소리... 저때야 그저 동무들밖에 몰라요. 그게 장하지 않나요.동무들이 없어봐요.》

아버지는 아낙네들이 주고받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 고개를 끄덕이었다. 하지만 이틀동안 줄곧 아들

을 자기들곁에서 떼놓고 헤어져야 할 마지막 이 순간까지도 막아서고있는 청년들이 야속하게 여겨졌지만 어쩔수가 없었다. 이제부터는 부모들곁에서가 아니라 전우들곁에서 자라고 제 뜻을 키워갈 아들이었다. 이제 열차가 도착하면 아들은 그대로 떠나가고 말것이다.

최두삼아버지는 허우룩해지는 심정으로 자기 생각을 쫓다 청년들이 부르는 노래소리에 정신을 차리었다.

한가운데에서 건들거리며 박자를 치고있는것이 해송이었다. 언제 보아도 푸점이 좋고 송글스러운 청년이었다.

노래가 끝나자 해송이가 턱을 들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윤심이한테로 달려갔다. 청년들이 덩달아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부르라고 열을 올리었다.

아버지는 은근히 호기심이 동하여 귀를 기울이였다.

설레이던 청년들이 일시에 숨을 죽이였다. 잠시 침묵이 지나서 노래대신 처녀의 맑고 또렷한 말소리가 들리였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분명치 않았으나 처녀의 말소리는 차차 귀가에 쟁쟁히 울려왔다.

《...앞으로 훌륭한 노동자기사가 되겠다던 성학동무가 위대한 수령님 유훈을 받들고 조국보위초소에서 자기의 청춘시절을 빛내일 결심을 하였다는 소식은 저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어요. 우리의 청춘을 누구를 위해 바쳐야 하는가를 새롭게 가르쳐 주었다고 할는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누구보다도 성학동무의 입대를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하하고싶어요.》

조용하던 장내에서 박수소리가 터지였다.

《...저는 사실 원일동무와 함께 탄광에 진출할것을 결심하고도 동요하였거든요. 그런데...》

몹시 갑자르며 새나오는 처녀의 말을 해송이가 밀막았다.

《하 이거, 사로청회의도 아닌데... 어서 노래나 부르라구!》

청년들이 거기에 호응하여 웃고 떠들며 환성을 질렀다.

《동무들, 우리 노래를 부르자요.》

윤심이가 한결 흥분된 어조로 말하더니 먼저 선창을 땀다.

병사들아 노래하자 그이 모신 기쁨

가슴은 넓어지고 새힘 솟는다

뒤이어 청년들이 손을 내저으며 같이 따라불렀다.

아 **김정일**장군 따르는 길에

우리모두 영웅이 되자 영웅이 되자

청년들은 더욱 목청을 돋우고 손을 세차게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최두삼아바이는 노래가 주는 감흥에 사로잡히면서 마음이 즐겁고 흐뭇해졌다. 그전날의 학급생들은 그때의 그 순결한 우정으로 아들의 입대를 축하하고있었다. 저것들을 어찌 철부지로만 치부할수 있으며 그들결에서 아들을 떼놓을수가 있겠는가? 아바이는 그들이 그지 없이 고맙고 대견스러웠다.

노래가 끝나고 해송이가 아들을 지명하자 장내에는 잠시 엄숙한 분위기에 잠기었다.

아들은 잠시 근엄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시를 읊었다.

용서하시라 어머니시여
무명천으로 통바지 해주었다고
투정질하며 어머니의 속을 태우던
이 아들을 용서하시라

최두삼아바이는 떨리며 울려나오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 별안간 가슴이 후더워오르면서 눈시울이 달아올랐다.

...그러나 용서하지 마시라 조국이어
진격의 길에서 내 주저하며
순간이나마 생명의 귀중함을 생각한다면
하여 나의 가슴을 겨누는 적의 탄알이
전우의 가슴을 뚫게 된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마시라...

막내이라고 응석을 부리며 안해의 속을 태우던 아들이었다. 어째까지도 어머니의 심정을 그리도 몰라준다고 야속해하고 원망까지 한 아들은 지금 속을 태워준 어머니만이 아니라 선생님께 그리고 조국앞에 용서를 빌며 엄숙히 맹세를 다지고있는것이 아닌가?...

아들은 더한층 웅글어진 목소리로 침착하게 시를 읊었다.

아바이는 그 모습을 뜨거운 눈길로 바라보다 지금껏 아들을 너무도 모르고있었다는 덧없는 생각에 잠겨 허공을 향해 시선을 돌리었다. 그것이 늙은이의 한갓 눈먼 사랑때문이었던가? 그랬다. 그 눈먼 사랑이 아들의 진모습을 알아볼수 없게 만든것이였다. 분별없는 그 사랑이...

아바이에게는 아들이 그지 없이 장하고 대견스러웠다.

멀리에서 렬차의 기적소리가 울리었다. 그 순간 아들을 둘러싸고있던 동무들이 약속이나 한듯 일시에 비켜서서 아바이앞으로 환히 길을 띄워놓았다.

아들이 최두삼아바이한테로 걸어왔다.

《아버지, 곧 떠나게 됩니다.》

《오냐.》

《어머니, 용서하세요. 기다릴줄 알면서도 한번도 어머니곁에서 ...》

아들은 눈길을 내리고 사죄하듯 말을 더듬었다.

《애두, 용서는 무슨 용서냐?》

《그래도 아버지는 저한테 해줄 말씀도 있었겠는데...》

아바이는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새나오자 목이 메여 말문이 막혀버리었다. 떠나기전에 꼭 아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해줘야겠다고 벌려온 그것이 마지막순간에 왜서인지 그 어떤 말귀도 생각나지 않았다. 이제 와서 해줄 이야기도 없었다. 그간 아들의 모든 행동은 자신의 생각보다 더 앞서있었던것이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겠는가?

머뭇거리고있는 아버지를 마주보다 아들이 신병훈련을 잘하고 반드시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바라시는 일당백의 훌륭한 병사가 되겠다고 맹세하듯 말했다.

아바이는 아들의 어깨에 다정히 한손을 얹고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래야 한다 내가 부락할 말도 바로 그것이다. 네가 벌써 그런 결심을 하였으니... 이 아버지는 너의 결심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 알겠니?》

《알겠습니다.》

최두삼아바이는 만이한테서 배낭을 받아서 아들의 두어깨에 지워주었다.

아들은 인민반장이며 이웃어머니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조카들을 일일이 안고 불을 비비더니 문득 아바이에게 고향의 주소를 물었다.

최두삼아바이는 그 뜻밖의 행동에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아들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뜨거운 불덩어리가 온 가슴에 꽉 차오르면서 눈곱이 화끈거리었다. 지금껏 자기의 깊은 심중에 동정으로 남아있던 고향이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향이야기를 하면 그저 하나의 옛말처럼 감수하던 아들이었다.

《아버지의 고향주소를 말이나?》

아바이는 갈린 목소리로 되물으며 아들의 영채도는 눈동자를 지켜보았다. 40여년... 단지 리력서를 쓸 때 몇번 적어본 주소였다. 그는 몇자 안되는 주소를 온 넋을 기울여 말하듯 몹시 힘겹게 뜨직뜨직 외이였다.

아들은 수첩장에 그것을 토박토박 적어넣었다.

《그런데 그건 알아서 필하려느냐?》

《아버지두... 언제든 통일이 될것이 아닙니까?》

그때 아버지가 가지 못하면 저라도 가서 친척들도 만나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산소도 찾아봐야지요.》

순간 아바이는 목이 메여올라 말없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오래동안 쓰다듬었다. 옆에서 안해가 웃고름을 들어 눈곱을 문다지였다.

《성학아, 넌 참 용쿠나. 고맙다, 고마와...》

어느덧 렬차가 서서히 구내로 들어섰다. 악대들이 나팔을 불고 환송군중들이 환호를 올리였다.

렬차가 몇자 공장의 작업반장과 동무들이 내리었다. 도의 경내까지 아들을 바래주겠다고 일부러 따라나온것이였다. 아들은 공장동무들과 학급동무들에게 에워싸이어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있었다.

출발을 알리는 기적소리가 울리자 아들은 좀 떨어져있는 원일리와 윤심이한테로 가서 자기가 받은 꽃다발을 안겨주더니 공장동무들과 함께 승강대에 올랐다.

드디어 렬차는 환송의 물결을 헤가르며 천천히 역구내를 미끄러지기 시작하였다.

그날 저녁, 집에까지 따라왔던 만리와 청년들이 다 돌아가자 밤에는 최두삼아바이내외만이 남았다. 그들은 밤이 깊어서 밥상에 마주앉았다.

안해는 남은 음식들을 그릇마다 무뚝뚝 담아서 상을 차리고 거기다 술 한병까지 받쳐왔다.

《여보, 우린 지금껏 막내이를 그저 응석받이로만 여겨왔소. 그런데 속에는 령감이 들어있었던말이요.》

최두삼아바이는 손수 술을 한잔 부어마시더니 못내 대견해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글쎄말이웨다. 난 령감한테 고향주소를 물을 때 자꾸 눈물이 나서 혼났수다. 정말 그동안 셈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달라졌을가요?》

안해는 밝은 미소를 짓고 정겹게 남편을 마주 보았다.

누가 아들을 그렇게 변모시켰는가? 원일리와 윤심을 비롯한 동무들이? 아니면 유치원선생이나 담임선생과 이웃 아낙네들이며 햇내기를 맡아 키운 공장의 작업반원들인가? 그들모두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한마음한 뜻으로 더 높이 모시고 따르자는 불같은 결의를 한 그들이였다. 막내이라고 부르며 애무해온 자기들의 사랑은 언제나 이 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날수가 없었다. 그 울타리안에서는 막내가였지만 그들은 성확이를 나라를 생각하는 만아들로 키워놓은것이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나라의 만아들로 자라고있는것이다.

아들이 행복만을 받아안고 자라서 응석받이로 되였다고 여겼던 자신이 오히려 행복에 젖어 어느덧 나라의 응석받이로 되였는지도 몰랐다.

《그애를 보니 난 마음이 든든하오. 내 평생 소원이 다 풀린것 같단 말이요.》

《나도 그래요. 처음엔 서운했수다만 이제와서 보니 얼마나 자랑스러운가요.》

《암, 그렇구말구...》

늙은 부부는 숨김없이 마음속 감회를 털어놓으며 소리없이 밝게 웃었다.

이 봄의 노래는 어디에

리종덕

레성강물문이 열리면
노래의 대문도 열리는가
기쁘고 즐거운 봄노래
하늘가득 넘쳐나던 연백별

이 봄도
종다리 높이 뜨고
민들레도 때이르게 피었건만
이 봄의 노래는 어디에

모관마다 도란도란
수령님 모시였던 이야기
나누며
가슴부풀어 씨뿌리던
지난 봄의 노래는 그 어디에

농산반 처녀들 들에 나서면
노래 절반 웃음 절반이라더니
아, 이 봄엔
그저 일손들만 바쁘구나

어버이수령님 유훈 지켜
피눈물속에서도 알알이 익힌
그 씨앗을 뿌리는 이 봄
정녕
수령님 계시지 않는 봄인가

아니여라 아니여라
물노래에 젖고 동음소리에 실린
농촌테제의 해빛밝은 이 땅

수령님의 숨결로 숨쉬는
이 봄인데야, 이 봄인데야

어버이수령님의 희망대로
정보당 열톤을 열매지을
그 씨앗을 뿌리는 이 봄인데야
그 가을을 안아올 이 봄인데야

오 위대한 령도자를
만퐁년들에 모시고
눈물의 웅어리를 감격으로
터칠
그 가을날에 두었구나
이 봄의 노래는 이 봄의 기쁨은

배심

김문창

기업소청사의 2층에 자리잡고있는 지배인실은 북향방이의 넓다란 방이었다. 여러해전 늦가을 청사를 완공하고 구내 여기저기에 들어박혀있던 부서들을 끌어들이는 때 방 배정안을 작성한 행정부지배인은 이 방에 기술발전과 현대화설계실을 넣기로 하였었다. 그런것을 방 배정안을 최종검토하던 최우석지배인이 지배인실로 정해진 남향방이의 제일 좋은 방을 현대화설계실에 주게 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 방을 차지했었다. 그무렵 부에서 내려왔던 부부장(그는 최우석지배인과 대학동창생이었다)은 한낫에도 해빛신세를 지지 못하고 숨저고리를 등에 걸친채 앉아 문건을 열심히 들여다보고있는 지배인을 웃음으로 시까슬렀다.

《허허, 조선소 사령관이 음달에서 숨저고리까지 쓰고앉은게 보기가 좋구만...》

그에 최우석지배인은 이렇게 응수했다.

《뭐 지배인이 온 하루 방에 들어앉아 해별이나 쏘이는 사람인가. 이 방에선 조선소 온 구내를 한눈에 바라볼수 있네. 사령관의 감시소가 해별보다 그제 더 중요하지.》

청사건설과 지배인이 현대화설계실과 방을 바꾼 문제를 두고서는 오래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존경의 념을 품고 화제에 올리곤하였다. 최우석지배인과 같이 배심이 센 일군이 아니면 보수계획에 물려놓고 4층짜리 요란한 청사를 건설할 엄두를 감히 내지도 못했을뿐아니라 끝장을 보아내지도 못했을것이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같으면 남향방이의 제일 좋은 방을 기업소의 기본참모부서도 아닌 설계실같은데에 내주지 않았을것이라고.

지금 최우석지배인은 탁구판같은 커다란 책상에 드레지게 앉아 커다란 주먹을 입가에 지그시 붙인채 생각에 잠기고있었다. 방금까지 진행한 생산협의회에서 제기된 안들을 지체없이 실현시키자면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했다.

협의회에서는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다. 현재 못하고있는 대형집배를 진수시키기 위한 진수설비들우에서 요구하는 날까지 얼마든지 제작해낼수 있을것 같았다. 이제는 걸린 고리들이 별로 크게 있을것이 없었다. 진수설비제작에 필요한 강재(500여톤이나 되었다)도 거의 다 끌어들었고 걸려있던 기술적 문제들도 풀렸으니 조직사업만 잘하고 냅다 밀면 되었다.

최우석은 푸하고 안도의 숨이 나왔다. 오늘부터

는 자리에 누워도 발편잠을 잘수 있을것 같았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우리결을 떠나신 그 청천벽력과 같은 시각부터 어느덧 념달이 지나갔다. 그사이 최우석은 가슴이 무너지는듯한 아픔과 자책감속에서 어느 한순간도 편히 지내본적이 없었다. 새로운 짐배를 더 못기 위하여 부와 정무원의 책임일군들을 몇번씩이나 찾아다니며 때로는 배심을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억지를 쓰기도 하면서 강재와 다른 자재들을 추가로 받아왔고 새 진수설비를 만드는 문제도 부의 지시가 있기전에 스스로 결심하고 아래일군들을 발동시켜 그 준비를 다그쳐왔다. 출장가서는 두주먹을 부르쥐고 뛰어다녔고 기업소에 들어오면 언제나 새벽 2~3시가 지나서야 사무실의자에서 새우잠을 자거나 집에 들어가보곤하였다. 그렇게 애먼글면 애를 태웠던 결과 이제는 새 짐배생산에서 부적으로 제일 큰소리를 치게 될수 있을것 같았다.

협의회에서 제기된 안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궁리해보고있던 최우석은 문기척소리에 눈을 쳐들었다. 이 새벽에 누가 찾아온것인가?

현대화설계실 설계원 김동후였다. 그는 지배인의 조용한 사색을 깨뜨린것이 저으기 죄스러운듯 문가에 선채 선뜻 안으로 들어올념을 내지 못했다.

김동후는 지배인을 포함하여 기업소안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있는 사람이였다. 예순이 다 된 나이탓도 있었지만 보다는 그가 조선소의 발전에 기여한 무시할수 없는 공적과 남다른 인후한 성품때문이었다. 그는 중앙에 등록된 숨은 공로자이며 공훈설계가였다. 하지만 그는 서리발이 희숙 희숙한 머리를 그 누구에게나 숙이었고 반말투로 말하는 법을 몰랐으며 그지 없이 조용하였다. 지어는 떠들기마련인 술좌석에서까지도 입을 잘 열려하지 않았다. 그는 술을 보기만 하면 입가에 미소부터 짓고 앉은 자리에서 한두명쯤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하는 애주가였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마시면서도 무엇인가 연구에 몰념한 사람처럼 쌍꺼풀진 눈을 아래로 지그시 떨구고 침묵을 지키기만 하였다. 마치도 그는 술을 다른 사람들처럼 웃고 떠들고 즐기기 위해 마시는것이 아니라 사색을 더 지긋게 해보려고 마시는것 같았다.

최우석은 그가 이 한밤중에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 대뜸 짐작이 갔다. 협의회에서 자기가 제기한 새 짐배 진수안을 토의에 붙여주지 않은것때문일것

이었다.

김동후는 오늘 지배인실에서 새 짐배의 진수문제(그것은 곧 진수설비를 만드는 문제였다.)와 관련하여 협의회가 있다는것을 알고 오후 첫시간에 최우석을 찾아와 자기가 연구한 다른 안을 제출하였었다.

《협의회에서 논의에 붙여주었으면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처럼 주먹거리며 도면과 계산문건을 너대의 전화기가 주렁이 놓여있는 지배인책상의 한구석에 올려놓았다.

최우석은 몸을 반쯤 일으켜 그가 조심을 타며 놓은 문건을 시답지 않게 앞으로 끌어다보았다. 진수설비를 새로 만들지 말고 현재 가지고있는 구조물을 보강완비하여 리용하자는 안이었다. 진수설비를 제작하는것보다 기일을 3분의 1로 단축할수 있고 강제도 500여톤이 아니라 60여톤만 쓰면 되는것으로 적혀있었다. 그것은 다른 나라들과 국내 다른 조선소들에서 하고있는 기존방법과 완전히 다른 새방법이었다. 하지만 첫눈에 위험성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래서 최우석은 새 안을 연구하느라 수고했다는 말도 해주지 못하고 그냥 내보냈었다.

최우석은 협의회전에 그가 창안한 도면과 계산문건들을 다시 한번 주의깊게 들여다보았다. 독창적으로 생각해낸 기발한 착상인것만은 사실이었으나 지지하고 내밀어볼 용단은 나지 않았다. 그의 안대로 한다면 진수시에 선체의 국부들이 건디여내지 못하고 파멸될것 같았다. 만일 강도가 파괴되어 그렇게 되는 날이면 수많은 자재와 로력을 그대로 바다속에 처박는 돌이킬수 없는 무서운 후과를 빚어내게 된다. 그리고 사업을 무책임하게 한것으로 하여 조선소는 어떤 추궁을 받게 될것인가. 최우석은 주먹을 입에 댄채 단호하게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래서 그는 김동후의 안을 협의회에 상정시키지조차 않았었다.

최우석은 문가에 서있는 김동후를 앞막으로 불러들이고 책상 맨 아래단 빼람에 넣었던 그의 도면과 계산서를 꺼냈다.

《동후동무,(최우석은 그와 나이가 어금지금하여 그를 늘 이름으로 불렀다.) 협의회에 상정시키지 않은것때문에 섭섭하게 생각할수 있겠는데 리해하우. 검토해보았소. 강제도 대단히 절약하고 기일도 훨씬 앞당길수 있는건 좋은데 난 지배인으로서 그런 모험을 할수가 없어서 그랬소. 부에서도 절대 승인하지 않을게요.》

《그러니 될수 없다는것입니까?》

김동후는 한참동안 잠자코 있다가 지배인을 향해 얼굴을 무겁게 쳐들었다. 그의 쌍까풀진 커다란 눈

에는 믿음을 배반당한 때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비껴있었다. 최우석은 그것을 모르는듯이 하고 담배를 붙여물고 폭신한 의자등받이에 허리를 쫓혔다.

《지배인동지, 될수 없다는 과학적근거는 무엇입니까?》

《진수시에 선체 국부들이 파괴될수 있소.》

《국부강도계산을 다 해보았는데 일없습니다.》

《계산수치와 실천이 언제나 다 일치한다면 과학자들이 무슨 실패라는 쓰디쓴 잔을 마시군하겠소. 동후동무는 자기가 력학계산에서 지나치게 만능이라고 생각하고있는게 아니우?》

김동후는 억이 막히는지 입을 다물었다. 그는 앞막의 한점을 지못게 내려다보기만 했다. 그는 갑자기 석고상으로 되어 버리길라도 한듯했다.

이윽도록 그렇게 굳어져있더니 마침내 어려운 결심을 채택하기라도 한듯 탁상위에 놓인 손을 지그시 주먹으로 바꾸어쥐며 고개를 다시 쳐들었다.

《지배인동지, 제 얘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그는 먼저 허락을 받은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못 격해진것 같은 이런 때에조차 그의 목소리는 여느때와 다름없이 의연 나직하였다. 《지배인동지는 우리 조선소에 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말씀을 잊고 사는것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문건들을 그렇게 빼람속에 넣지 않았을것입니다. 전 제가 제기한 안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조선소가 언제 것처럼 기존방식에 포로가 되어 배를 무은적이 있습니까. 8천톤급대형려객선을 진수시킬 때부터 만톤급, 1만4천톤급, 2만톤급... 매번 우리 식으로 대담하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번에 우리가 건조하는것과 같은 선박을 진수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들에서는 다 해당한 진수설비를 만들어가지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다. 제가 제기하는 안에 모험적인데가 있다는것은 저도 압니다. 그렇다고 해보지도 않고 물려선다면 어찌되겠습니까.》

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배인동지만은 지난 시기처럼 대담하게 밀어주리라 믿어있었습니다. 물론 새 진수설비를 갖추고 하면 좋기야 하지요. 하지만 지금 때가 어떤 때입니까, 강제 한톤한톤이 얼마나 요긴하게 써야 할 때입니까. 전 그렇게 해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제대로 받든다고 말할수 없다고봅니다.》

최우석은 좀해서 입을 열지 않는 김동후의 말이어서 그 어떤것이라도 잠자코 너그럽게 다 들어주리라 마음먹었었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있다는 말을 듣고는 그는

대로 참고 지날수가 없었다.

《그만두우! 말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막해도 되는 건줄 아우?》

그는 노여움을 견잡지 못하고 눈망울을 좋지 않게 굴렸다. 《그런 식으로 말하겠으면 나가는게 좋겠소.》

《제 말이 지나쳤다면 용서하십시오. 가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할건 8천톤급대형려객선을 못던 때 일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김동후는 지배인의 책상우에서 자기의 도면들과 계산서를 조심스럽게 끌어다안고 걸음소리를 죽여 가며 조용히 자리를 떴다.

(뭐, 대형려객선을 못던 때를 잊지 말라구?)

최우석은 문쪽으로 걸어가는데 김동후의 연약한 잔등에 시선을 꼭 박고있다가 그가 사라지자 반박이라도 하듯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8천톤급대형려객선을 건조하던 때의 일을 최우석이 어찌 잊을수 있으랴. 그때의 일을 회상할 때면 그는 커다란 자부심과 긍지를 새삼스럽게 맛보곤했다. 그것은 그가 조선소에 지배인으로 부임되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로부터 과업을 받고 건조한 첫 선박이었다.

려객선은 불과 몇달사이에 건조해야 했다. 관례대로 선체를 먼저 진수시키고 내장물을 조립하여 완성하자면 그이께서 요구하시는 날까지 기일을 도저히 보장할수 없었다. 기일을 보장하자면 결정적으로 다른 새 방도가 있어야 했다. 매일같이 협의 회가 벌어졌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도 신통한 방안이 제기되지 않았다. 최우석에게 숨이 열리게 해준 것은 김동후였다. 그가 제기한 방안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그것은 동서고금의 조선공업의 력사에 있어보지 못한 매우 어마어마한 방안이었는데 기성 관례의 배건조공정을 무시하고 땅우에서 선체조립뿐 아니라 기관조립, 배관조립, 배선공사와 목공작업 등을 다 진행하여 통채로 진수시키자는 것이었다.

그의 안은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지상에서 그렇게 모든것을 다 조립하면 그 무게가 굉장하잖아 하는데 진수대가 그 무게를 받아낼수 없다는 것이었다. 조선소안의 체노라 하는 기술자들은 거의 모두가 될수 없다고 팔을 내저었다. 그들은 현존 진수대의 구조물을 일부분만 보강하면 될수 있다는 김동후의 론증을 막무가내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최우석은 며칠 생각던 끝에 김동후의 제안대로하기로 결심했다. 위험하긴 하였지만 그는 김동후의 계산수치들을 더 믿고싶었다. 그런 모험적인 어마어마한 안을 대담하게 제기하고 주장해나선다는 것은 실로 보통일이 아니었다. 자기의 계산수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그럴수 있을것인가.

기사장과 부기사장들까지 거둬 반대의를 표시하면서 최우석에게 모험하지 말것을 제의했다.

《사령관이 한번 결심했으면 다시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작전을 변경시킨다는건 뭐요? 후에 사고가 나면 내가 법앞에 설테니 동무들은 집행이나 하시오!》 최우석은 단호하게 나갔다.

불과 두달남짓한 사이에 지상에서의 확대조립이 전부 끝났다. 8천톤급대형려객선은 갑판우의 구조물들이 짐배와는 달리 산악처럼 높아보였다. 겉으로는 태연한척하였지만 조립이 끝난 배를 아슬하게 쳐다보며 최우석은 저도 모르게 불안이 스며드는 것을 어쩔수 없었다. 과연 무사히 진수될수 있을것인가? 진수대에 대한 걱정도 컸지만 그와 함께 고가 높은 배가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 하중중심이 변화되어 전복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새롭게 또 들었다.

우에서는 진수를 앞두고 최종적인 기술검토를 하기 위하여 강력한 기술그루빠를 내려보내주었다. 거기에는 우리 나라의 조선공학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되어있는 교수박사인 학자도 망라되어있었다. 그는 최우석이나 김동후뿐아니라 조선소의 급수높은 기술자들모두의 옛스승이었다.

기술그루빠가 어떤 결론을 내릴것인지? 조선소 사람들은 모두가 한껏 긴장되어 줌을 쥐고 기다렸다. 마침내 기술그루빠의 진단이 내려졌는데 통채로 진수할수 없다는 것이었다. 최우석이 남모르게 우려했던바대로 진수시에 하중중심이 변화되면서 배가 전복된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립증하기 위하여 기술그루빠는 모형시험을 세번씩이나 하였는데 배는 세번 다 진수되면서 전복되고말았다. 기술그루빠의 보고를 받고 선박공업부의 한 책임일군이 평양에서 그날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다. 그는 이미 조립을 끝낸 갑판우의 구조물들과 기관들을 전부 해체하여 들어낸 다음 진수할데 대한 지시를 주고 떠나갔다.

최우석은 눈앞이 캄캄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 어떻게 보고를 드릴것인가. 그는 이틀동안 밤 한술가락 입에 대보지 못하고 가슴이 솟덩이가 되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다. 삼일째 되는 날 김동후가 찾아와서야 자신을 다잡았다.

《지배인동지, 출로를 찾았습니다. 배의 량선측에 다 고무풍선처럼 공기랑크를 몇개 달아가지고 진수 시킵시다. 그러면 배의 중량을 훨씬 감소시킬수 있고 하중중심의 변형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최우석은 물우에 빠진 사람이 짚오래기라도 잡는 식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김동후가 새삼스럽게 돋보였다. 그의 얼굴과 몸가짐에서는 동요와 한

숨의 빛을 티끌만큼도 찾아볼수가 없는것이였다.
성질이 조용하기 그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배심이 든든할수 있을것인가.

《정말 자신이 있소?》

《다 계산해보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기술그루빠에서는 김동후의 착상을 다시금 기술
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런데 교수박사가 자신이 직
접 계산한 수치에 근거하여 그것의 불가능성을 또
론증하였다. 공기탱크들이 진수시에 강한 충격을
받아 선체에 무서운 타격을 주면서 파괴할수 있다
는것이였다.

조선소는 라침판을 잃은 배처럼 어찌할바를 몰랐
다.

그러던 날 밤 1시가 지나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최우석에게 전화를 걸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선박공업부의 책임일군으로부터 다 보
고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지배인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사무실에 있을것 같아 전화를 건다고 하시였
다.

《그래 배를 통채로 진수시킬 방도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까?》

최우석은 조선소에서 벌어지고있는 사실을 그대
로 죄다 말씀드렸다.

《그러니 그 김동후동무가 중앙기술그루빠와 맞
서고있는셈이구만.》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김동후에 대하여 상
세히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잠시 생각해보시는듯
동안을 두셨다가 확신에 차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
다.

《보통 동무가 아닙니다. 기성관념을 깨뜨리고 배
를 땅우에서 전부 확대조립하여 진수시킬데 대한
새로운 방법을 주장했다는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당을 철저히 신뢰하고있지 않으면
그런 대담성을 발휘할수가 없습니다. 지배인동무,
나는 가스탱크를 달아가지고 진수시키자는 그의 방
안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수령님께서 이미 가르쳐주
셨지만 과학기술문제에서는 다수가결의 원칙이 적
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수박사선생도 계산에서
실수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산한것을 다시 검
토해보고 대담하게 그대로 진수해보십시오. 후에
문제가 생기면 당에서 함께 책임.0져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우석은 목메이는 걱정을
가까스로 누르며 힘차게 대답을 올렸다.

김동후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말씀을 전달받
고 옛스승의 계산서를 이틀동안 밤을 밝혀가며 분
석해보던끝에 두곳에서 오산한것을 발견하였다. 그
에게는 실로 콜롬부스가 새 대륙을 발견한 때와도
같은 일이였다. 그러나 그는 환희에 차서 웃거나 흥

분을 건잡지 못해하는 기색같은것은 전혀 나타내지
않고 지배인실에 수집음라는 처녀처럼 들어와 책상
우에 교수의 계산서를 펼치였다. 그리고는 평상시
의 그 나직하고도 잔잔한 목소리로 말하는것이였다.

《지배인동지, 이 계산서에서 오산한것을 발견했
습니다. 저는 배의 진수를 기술적으로 담보합니
다.》

《됐소! 됐단 말이요. 하기로. 통채로 진수하잔말
이요! 조선소의 주인이야 우리네 우리가 결심할 타
이지.》

최우석은 크게 흥분하지 않는 김동후를 속으로
참말 이상스레 여기며 커다란 주먹으로 책상을 두
드려댔다....

8천톤급대형려객선은 이렇게 진수되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보고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후에 이 려객선을 친
히 돌아보시면서 사진으로 보던것보다 아주 대단하
다고, 이런 큰배를 대담하게 지상에서 확대조립하
여 통채로 진수시킨것은 매우 자랑할만한 일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런 큰 담력을 가진 조선소
로동계급과 기술자들이 있으니 앞으로 그 어떤 배
도 다 만들수 있다는 용기와 신심이 더욱더 굳세여
진다고 여간 만족해하지 않으시였다.

×

김동후한테서 이야기를 들은지 이틀째되는 밤이
였다.

최우석은 배무이현장을 돌아보고있었다. 배무이
전투는 어데서나 불이 붙었다. 그가 가공직장을 나
와 선체조립직장에 갔을 때였다. 대어섯명의 제관
공들이 철관우에 이마들을 맞대고앉아 담배를 피우
며 쉬고있었다.

최우석은 자기가 나타나면 그들이 휴식도 못하고
일어설것 같아 한편으로 그냥 지나치려 했다.

그런데 그들이 주고받는 말에 그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여, 지금 우리가 뭇는 배말이야, 설계실에서 새
진수설비를 따로 만들지 않고 진수시킬 방안을 연
구해냈대.》

《그래? 어떻게 한다는거야?》

《현재 있는 구조물을 보강해서 쓰자는거래. 그러
면 강재도 수백톤이나 절약하고 새 진수설비를 만
드느라 술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대.》

《거, 대단하구나! 그러면 우리 조선소가 또 한바
탕 장훈을 부르는게 아니야?》

《체, 그런데 설계실에 있는 우리 누이 애기를 들
으니 반대파가 많아 될것 같지 않대.》

《소극분자, 보수주의자야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 하지만 지배인만 결심하면 돼. 너희들은 다 모를수 있는데 8천톤급대형려객선을 무을 때도 그래 1만 4천톤급과 2만톤을 진수시킬 때도 복잡하게 구는 반대파가 한두사람이었다구. 누구는 비행기까지 타구와서 못한다구 했었어. 그런걸 그때두 지배인이 결심하구 내밀어서 다 해냈지.》

《피, 모르겠습니다. 그런 지배인이 이번에는 그런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누이가 얘기하던데 그에게 있는 협의회에서 지배인동지가 반대했답니다. 지배인도 이젠 피나무속대가 된것 같습니다.》

《뭐? 거 모를 소리군.》

《고문아버이가 한번 지배인한테 찾아가 얘기해보십시오.》

《사실이 그랬다면야 한번 만나봐야지.》

《여, 용수, 지배인두 이젠 나이가 있으니 달라지겠지. 그래서 사람을 환상적으로 대하지 말란게야. 자, 지배인은 지배인이구 어서 일어나 또 한바탕 조져보세.》

최우석은 소래라도 씹은듯이 낯을 찡그리며 그곳을 떠났다. 그는 선체조립직장을 나와 청사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뭐, 내가 달라졌다구? 적당히 살아가자는 사람이라구? 뭐 노동자들이 그렇게 보기 시작했던말이지...)

최우석에게는 자기를 달라졌다고 하던 김동후의 말이 새삼스럽게 상기되었다.

최우석은 어제와 오늘 동후가 한 말을 두고 많이 생각해보았었다. 그렇지만 그의 말을 도저히 인정하게 되지 않았다. 자기가 절대 달라질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지금도 부나 정무원에 올라가면 자기를 여전히 배심이 세고 담이 큰 지배인이라고 내놓고들 말하고있으며 그래서 그가 제기하는것이면 응해주지 않고 못배기는것으로 여기었다. 그자신이 자기는 실지 그렇게 하고있다고 믿고있었다.

이번에 하고있는 새 짐배생산을 위해 그가 뛰여다닌것만 해도 그랬다. 부장, 부총리를 몇번씩 만났고 나중에는 총리방에까지 대담하게 찾아갔다. 그렇게 하여 끝끝내 새 진수설비를 만드는데 필요한 500여톤의 철강재와 다른 자재들을 추가로 전부 받아냈다. 웬만한 다른 지배인들같으면 엄두도 못냈을것이다. 적지 않은 지배인들은 부총리와 총리를 만나는것을 얼마나 어렵게 여기는지 몰랐다. 그들은 기껏해야 부장한테까지나 제기해보고 물러섰다. 최우석은 그런 지배인들에게 줄장부라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부총리나 총리방에 찾아가는것을 그렇게 두려워해가지구 무슨 큰 일을 해내겠는가고...

조선소에서 지금까지는 그를 두고 달리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 지배인은 하늘이 무너져도 꺾일 안할 사람이야.》

최우석은 우에서나 조선소안에서 자기를 두고하는 이같은 평가를 이렇게 저렇게 들어오며 어느덧 자기자신을 그렇게 인정하는데 습관되고말았다.

(그런데 내가 달라졌단 말이지? 실지 그렇게 된게 아닐가? 노동자들은 공연히 그런 소리를 하지 않을게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이 자기를 알려면 늘 군중이라는 거울속에 자기를 비쳐보아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최우석은 최근의 자기를 두고 심각히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새 진수설비를 만드는데는 그가 다른 나라들의 진수방법과 기술문헌들을 연구하면서 결심하고 부와의 합의밑에 시작한것이였다. 그것을 위해 그는 실로 허다히 뛰여다녔다. 그런데 돌연히 김동후가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새 방안을 제출하였다. 최우석은 그의 제기안이 다 지어놓은 밭에 물을 부으려는것만 같은 생각이 먼저 들어 깊이 분석해볼 념조차 가지지 않았다. 한두번 들여다보고 위험한 구석들이 느껴지자 책상 맨 아래단빠람에 넣어버렸다. 그 빠람은 그에게 더는 필요없게 된 책장들이나 종이장들을 넣어두는곳이였다.

《무엇때문에 그 제안을 협의회에서 토론에 붙여보지도 않고 그같이 외면해버렸는가?》 최우석은 아래일군에게 따지고들기라도 하듯 자기자신에게 엄격히 물어보았다. 《자기가 애써온 결심을 갑자기 철회하기가 힘들어서였던가? 아니면 그 안이 위험하여 피하느라고 그랬던가?》

첫 물음에는 단호하게 도리질을 하였다. 그는 자기가 그런 너절한 자존심때문에 혁명의 리익을 저버리는 속된 인간은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후의 물음앞에서는 선뜻 도리질을 하게 되지 않았다. 아직 이 세상에서 해본적이 없는 그런 방법에 손을 뻗치는것이 두려웠던것이 사실이였다. 8천톤급대형려객선을 진수할 때나 1만4천톤급, 2만톤급을 건조할 때처럼 다른 방법이 더는 없다면 또 모험해볼 수밖에 없었을것이나 이번에는 그럴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았다. 다른 조선소들에서 이미 하고있는 방법이 있고 우에서도 그렇게 할것을 요구하고있는데로부터 모험할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었다. 공연히 파악도 없는 방법에 매달렸다가 지배인말년에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후과라도 발생시키면 어찌랴. 어언중 그한테는 이 위구가 그자신도 모르게 더 갈마들었다. 그래서 김동후의 제안을 외면했던것이였다. 인정하기가 스스로 창피스럽긴 하였지만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였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새 노동자들이 알고 이 지배

인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 최우석은 자기의 일이 언짢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였으며 외로운 생각도 들었다.

최우석은 청사쪽으로 뻗은 포장길을 스적스적 걸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초겨울 찬바람이 구내길우에 널린 어지러운 마른 잎사귀들을 몰아가기에 급급했다. 밀려가던 몇개의 잎사귀가 양탈을 부리듯 최우석의 바지자락에 달라붙었다. 구내등의 파란불빛에 그것들을 내려다본 최우석은 은연중 불쾌감을 느끼며 구두코송이로 떼어버렸다. 했지만 먼지를 들 쓴 다른 잎사귀들이 연방 날려와 또 매달렸다. 어떤 것들은 구원의 소용돌이를 만나기라도 한듯 그의 발치에서 빙글빙글 맴돌기까지 했다.

최우석은 불현듯 자기자신이 이 락업들과도 같은 생활의 보이지 않는 가랑잎들속에 묻혀있는듯한 생각이 일어 황황히 도망치듯 걸음을 재우쳤다.

커다란 청사의 수십개 창문들은 모두 시꺼멓게 눈을 감고있었다. 오직 두개의 창문에만이 불빛이 비껴있었는데 그것은 김동후가 있는 설계실이었다.

최우석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12시가 넘었다.

그는 현관문을 어깨로 밀고 들어가 계단을 올라갔다. 자기자신도 모르는 그 어떤 힘에 끌려 설계실 앞에까지 이르렀다. 문기척도 없이(그는 청사의 모든 밤을 자기 방처럼 두드리지 않고 들어가는데 습관되어있었다.) 문손잡이를 잡았던 그는 안에서 새어나오는 녀자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고 손잡이를 놓았다.

《어서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는걸 보고야 가겠어요.》

《됐소, 방해할 끼치지 말고 어서 뒤두고 가보우. 지배인동지가 다시 찾을수 있는데 오늘밤중으로 다시 강도계산을 다 해박야겠소.》

《생각이 없는분이 뭘 다시 찾는다고 그래요. 나도 벌써 이야기를 판데서 다 들었어요. 난 지배인동지까지 반대하는걸 왜 당신이 그렇게 해보겠다고 기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보구 뭐라는지 알아요? 이제 나이를 먹더니 설자리 앓을 자리를 몰라본다구...》

《그런 시시껄렁한 얘기를 할 시간이 있으면 새기술서적을 한페이지라도 더 들여다보라구 하오.》

《사실이 그렇지요 뭐. 하라고 직접 파업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지배인까지 위협해서 못하겠다는걸 왜 기어이 해보겠다는거예요?》

《이것참, ...당신두 조선소사람이니 알지 않소. 조선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만 살아야 한단말이요.》

방안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말소리도 더 나오지 않았다. 무엇인가 그릇가지들을 치우는 소리가 나더니 애원에 찬 녀인의 부탁이 다시 울려나왔다.

《그럼 이거라도 한잔 하세요. 아직 증기도 보내지 않는 추운 방에서 병을 만나면 어찌겠어요.》

《필요없소. 이제는 내가 일체 술을 입에 대지 않기로 결심한걸 알지 않소.》

《좋아요. 그렇다면 나두 여기 앉아 당신과 함께 밤을 새겠어요.》

최우석은 공장진료소 의사인 신진심의 아무때보나 웃음기가 떠도는 인상좋은 얼굴을 그려보며 설계실문앞을 떠났다.

자기 방에 들어와 불을 켜 그는 폭신한 안락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고 앉아 방금 들은 김동후의 말을 되새기며 생각에 잠겼다.

(그래, 김동후야말로 어제도 오늘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바라시는대로만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이다. 대형려객선을 만들 때는 물론 매번 새로운 과업이 제기될 때마다 그렇게 일해오고있다. 그이께서 심어주고 키워주신 배심을 가지고 새로운 안을 대담하게 제기하여왔다.

그런데 나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있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든다고 하였으니 김동후나 로동자들이 한 말이 백번도 옳은것이 아닌가.)

최우석은 온몸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게 일어나 설계실에 전화를 걸었다.

《동후동무요? 혼자 있소? 제기했던 기술문건을 가지고 와주우.》

잠시후에 김동후가 나타났다. 그는 저번보다 문건들을 더 두텁게 안고있었다. 숨저고리를 걸치지 않은 그의 얼굴은 추위에 저으기 질려있었다. 최우석은 입었던 숨저고리를 벗어 그에게 걸쳐주었다.

《요먼저날밤 동무가 한 말을 두고 많이 생각해보았소. 뭐 감출것도 없지. 속이 몹시 좋지 않았댔소.》

《제 말이 너무 지나쳤던것 같은데 용서하십시오.》 김동후는 숨저고리를 벗어놓으며 사과하듯 나직이 말했다.

《용서야 뭐. 동무가 해야지. 그럼 속에 열을 내보지요. 일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야 일로 열을 올려야지. 안그렇소? 그래 동무의 안대로 진수시키는 경우 선체의 안전성이 정말 확고히 담보될수 있을것 같소?》

김동후는 이미 제출했었던 계산서와 다른 새로운 계산서를 책상우에 펼치였다. 계산서는 자못 두툼하였다. 얼핏 보건대도 보통 계산방법으로 한것이 아님을 알수 있었다. 이틀동안에 그가 얼마나 많은

정력과 사색을 소비했는가를 대뜸 느낄 수 있었다.

《선체의 국부강도와 총강도계산을 다시 다 해봤구만!》

《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할 수 있습니다.》

최우석은 계산서를 한장한장 번져가며 곳곳에서 질문을 들이댔다. 김동후는 매번 그가 물어보기 바쁘게 설명을 해나갔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말마디마다에서 확신이 강하게 울리었고 그의 얼굴도 어느새 속에서 달아오르는 열기로 하여 불깃해졌다. 두사람은 열렬한 논쟁에 언제 날이 밝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허 벌써 밤이 다 됐구만. 됐소. 이 안대로 해보시오.》 최우석은 커다란 주먹으로 책상을 꼭 누르고 일어서며 힘있게 말했다.

《전 지배인동지가 꼭 이렇게 하리라는걸 믿었습니다.》

최우석은 동후의 길고 마디진 손가락들을 자기의 커다란 손으로 뜨겁게 모아잡는것으로 그에 대한 진심으로 되는 고마움을 표시했다.

잠시후 두사람은 밤을 지새운 피로를 날려보내며 퇴근길에 나섰다. 두시간만 있으면 온 기업소가 출근할 시각이었다.

봄 너는 가도

김원국

같이 가자누나 봄

부는 바람조차 옷자락에 매달리는 봄이

청춘 우리의...

하늘높이 살림집들 일떠세우며

우리 속도전의 열풍 불러일으킬 때

봄 너도 여기에

찬바람 밀어내며 훈풍을 불러오고

푸른색 노란색으로

우리 고층살림집들 화려히 단장시킬 때

봄 너도 공원에

꽃들과 푸른 잎새 한껏 피워놓더니

이제는

우리와 한마음으로 통한다는듯

제 가는 길도 같이 가자누나

서둘러 푸른 잎새 록음으로 덮으며

우리를 부르는 봄이여

자연의 봄 인생의 봄

봄은 갈아도

우리

가는 길이야 어찌 갈으랴

봄 네가 가는 길은

한철 사람들 유혹하다 사라지는 길이어도

청춘 우리가 가는 길은

식을줄 모르는 열정으로

이 땅을 꽃피워야 하는 길이거니

가라 봄이여

봄 너는 가도

청춘 우리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대기념비들과 더불어

이 땅에 영원히 남아있으리라

영원한 동행자의 불타는 심장

-시인 오영재와 그의 창작세계-

리수립

시인 오영재는 우리의 많은 시인들가운데서도 남달리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사랑과 배려를 받으며 자라난 시인이라 말할수 있다.

의용군출신병사로 전쟁의 포화속을 달리며 화선입당의 영예를 지닌 그를 전후에 아버지수령님의 배려로 일떠선 작가학원이 받아주었다.

소망하던 시인이 된 그는 문단에 나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는 혈혈단신으로 공화국의 품에 안긴 그에게 정치적생명을 주시고 시인으로서의 값높은 삶을 마련하여주신 아버지이시였다.

그에게는 또다시 행운이 났다.

혈기는 왕성하였으나 여러모에서 아직 미숙하던 그의 걸음걸음을 따듯이 보살피시며 정치적생명을 지켜주시고 빛내여주신 또 한분의 아버지께서 계셨으니 그이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이시였다.

당과 국가사업에 그토록 분망하시였던건만 그이께서는 시인의 작품들을 밤새워 읽어주시고 그를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굳게 믿어주시였다.

언제나 그의 창작과 생활을 끊임없이 이끌어주신 그이께서 친히 지도하여주신 작품만 하여도 무려 60여편에 이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높은 신임과 배려 속에 그는 **《김일성상》** 제관인의 영예를 지냈다. 그가 서사시 **《인민의 아들》**과 함께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심을 담아 편지를 올리였을 때에는 못내 기쁘게 여기시고 당에 추천한 시인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영광의 최절정에 올려세워주시였다.

그는 오늘 우리 시단의 중견으로 창작의 양양기에 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께서 계시어 훌륭한 시인이 나타나는 법이다. 문학발전사의 이 심원한 합법칙성을 오영재의 경우가 또 한번 확증하여주고있다.

하지만 수령복을 누리는 시인들 누구나가 훌륭한 시인으로 저절로 등장하는것은 아니다. 안겨진 수령복을 참답게 누릴줄 알아야 훌륭한 시인으로 자랄수 있다.

시인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위대한 영웅, 위대한 인간이신 **김정일** 동지를 중심으로 현실세계와 인간생활을 보는 새로운 세계관, 인생관의 높이에 오르기 위해 애썼으니 그것은 그가 시 **《정일봉-제일봉이여!》**에서 심장으로 웨쳤듯이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사상의 제일봉, 사랑의 제일봉으로 솟아계시기때문이었다.

사상에서 절대의 진리이시고 위대한신분, 사랑에

서 가장 열렬하시고 뜨거우신분, 그분의 사상은 진리이자 사랑이었으며 그분의 사랑은 곧 사상이자 진리였다.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사랑의 혼연일체에서 위대한 인간을 실감하고 그 제일봉에 높이 올라 조국을 보고 민족의 오늘과 미래를 부감하는 그러한 세계관, 참된 미학관으로 시적개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 바로 여기에 수령복을 참답게 누리려는 이 시인의 남다른 자세와 고심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시인 오영재의 창작적개성을 다른 시인들과의 대비속에서 한마디로 특징화한다면 정론적이며 량만적인 개성이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그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정치에 매혹되어 그것을 자기의 신념으로 만들어 심장으로 내뿜는 과정에 그리고 그이의 광폭적이고 열정적인 믿음과 사랑에 매혹되어 그것을 자기의 정서와 열정으로 만들어 온몸을 불태우는 과정에 어느덧 정론가이면서 량만가 그리고 만능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독특한 시적개성을 확립하였다.

시인으로서의 그의 창작적개성은 우선 지성과 감성으로 확고히 담보된 정론적인 성격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시인은 우리의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펴나가시는 위대한 정치에 대한 열렬한 공감과 숭배로부터 정치적인것에 강렬히 흥분하면서 그것의 서정화에서 남다른 독창성, 심오성을 보여준다. 그의 정론적인 시세계가 위력한것은 정치적인것을 정면으로 폭있게 안아들이면서 정치성과 서정성, 철학성의 통일을 웅심깊게 보장하기때문이다. 바로 이것은 그의 시적개성에서 주도적이며 지배적인 면모를 이룬다.

시인으로서의 그의 창작적개성은 또한 감정의 진실로써 확고히 담보된 량만가적체질에서도 인상깊게 나타난다. 시인은 시대현실에 량심을 가지고 침투하면서 생활의 진실을 파고들며 더 나아가서 시대현실에 자신의 뜨거운 열정을 쏟아부어 생활감정을 팽배하게 확충한다. 바로 여기서 진실이자 량만이요 량만이자 진실인 그의 강렬한 혁명적량만성이 나래쳐오르고있다.

그의 창작적개성은 또한 시가문학의 모든 종류와 형식들을 적극적으로 능란하게 활용하는 만능가의 솜씨에서도 볼수 있다. 그는 시문학의 기본형식인 서정시로부터 짧은 형식의 가사문학 그리고 긴형식인 장시와 서정서사시 그리고 장편서사시 등 거의 모든 시가형식들을 능란하게 활용하는 다재다능을 과시한다. 그것을 성과적으로 담보하고있는 비결은

높은 자질과 기량에도 있지만 다양한 묘사 방식과 형식들의 리용에서 그가 철저히 시의 생명인 서정성을 견지하는 옳바른 관점과 립장에 있다.

언제인가 한 시인은 시인 오영재의 정력적인 창작활동을 생각할 때 자연히 시문학전선의 기수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하였다. 정통을 찢른 말이다. 시인으로 살아오는 근 40년세월 그는 600편 가까운 참으로 많은 장시와 서정시, 서정서사시와 장편서사시 그리고 가사작품들을 써내었다.

허나 그를 열정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말은 그가 많은 작품을 써낸다는 량적표상에만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다.

보다 중요하게는 그 많은 시편들의 태반의 세계가 시대의 주도적감정, 다시말하여 주체혁명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발현되는 우리 인민의 전형적감정에 대한 정열적인 토대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의 시작품들에서 기본주제를 이루는것은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감정을 비롯하여 주체사상을 신념화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려는 뜨거운 지향이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조국에서 사는 무한한 긍지와 사회주의제도를 끝까지 옹호하며 빛내이려는 열정, 나라의 자주성을 짓밟으려는 온갖 원수들에 대한 증오심과 조국을 통일하려는 불같은 열망이다.

흔히 사람들은 시인의 류다른 생활경력을 넘두에 두면서 그를 《복수자의 선언》과만 결부시키고 분렬의 비극을 통탄하는 조국통일주제의 시인으로 표상하기가 일쑤다.

그러나 1970년대이후 그의 시문학은 통일주제에 집착하는 일면성에서 높이 올라섰다.

그 시의 서정적주인공은 분렬의 고통을 터치는 원한에 찬 성격으로부터 당과 수령의 령도아래 주체혁명위업을 다그치는 전체 인민의 사상감정의 대변자로 폭있게 발전하였다. 그가 창조하는 서정적주인공은 오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향도하시는 시대의 한복판에 선 거대한 공민이며 애국가-투사이다. 시인은 이러한 서정적성격으로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중요주제를 전투적으로 담당해 나가고있다.

그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만도 서사시 《인민의 아들》을 비롯하여 시 《위대한 심장을 주다》, 《인민은 기쁩니다》, 《통일을 안아오자》, 《우리 집》, 《조국이며, 감사를 드리노라》, 가사 《백두의 말발굽소리》 등 인상적인 시편들을 많이 내놓았다.

창작실천에서 발휘되는 그의 혁명적열정과 전투력은 잊지 못할 1994년 몇달사이의 창작을 상기하는것만으로도 충분히 느낄수 있다.

시인은 지난해 6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0돐을 기념하여 장시 《빛나라, 불멸의 위업이며》를 출

룡히 창작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그리고 련이어 어버이수령님의 서거를 추모하여 가사 《위대한 그 영상 영원하리》를 창작하였는데 이 작품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커다란 만족을 드리였다. 이 기간 시인은 서정시 《조국이며, 앞으로》를 창작 발표하여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일떠선 우리 인민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시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전에 드리는 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추도시창작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당사업개시 30돐기념 음악무용시 《조선아, 너를 빛내리》 창작에도 적극 기여하였다.

혁명의 요구를 심장에 안고 한몸바쳐 감당해나가는 시인의 활약은 참으로 시문학을 혁명의 보검으로 높이 든 투사-열정가의 면모를 인상깊이 보여준다.

수령복을 타고난 시인이며 그 복을 참답게 누릴 줄 아는 시인 오영재를 우리 인민은 당의 가수, 시대의 나팔수로 사랑하며 자랑한다.

시인 오영재의 창작에서 가치를 가지는 특징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정치성과 서정성, 철학성의 튼튼한 결합으로 시형상에 시대정신을 뚜렷이 구현해나가고있는 점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의 사상성은 정치성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나며 정치성은 사상성의 최고표현이다.》

강한 정치성, 이것은 오늘의 우리 시문학과 시인 오영재의 창작세계의 주되는 특징이다.

정치성은 시문학으로 하여금 당의 사상적무기로서의 높은 사상성을 보장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앞장서게 하는 강력한 담보로 되고있다.

정치성이 강화됨에 따라 시적전형화의 방식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생겼다.

시인 오영재는 우리의 위대한 정치를 시화할데 대한 시대적요청속에서 자기의 개인적이며 세태적인 생활감정을 승화시켜 개성화와 일반화의 통일을 실현하는 기존방식의 제한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우리 시대의 숭고한 정치적리념을 생활적정서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일반화와 개성화의 통일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이것은 정치투쟁이 날카롭게 벌어지고 개인의 운명이 정치와 직결되는 오늘의 시대에 시적전형화에서 나타난 새로운 시대적추향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러한 전형화방식은 많은 경우 시형상을 정치적론리와 개념의 피상적인 도해나 윤색에 그치게 하는 난점과 제한성을 가진다. 그것은 정치적 리념과 사건, 주장 등 정치적인것이 직접적인 체험이 어려운 폭이 큰 대상들로서 론리적개념이나 추상적인 개괄로써 처리되기때문이다.

우리 시문학은 마땅히 우리 당이 펼치는 위대한

정치에 적극적으로 복무하면서 그것을 풍만한 서정으로 훌륭히 구가하여야 한다.

시인 오영재는 자기의 시세계에 정치적인것을 정면으로, 전폭적으로 안고나가면서 그것을 서정화하는 비상하고 완강한 탐구와 노력을 바쳐왔다.

그의 탐구적노력은 특히 정치적인것을 감성화, 주정화하는 면에서 뚜렷하다.

시인은 장시 《빛나라, 불멸의 위업이여》에서 거대한 정치경제제를 감각적으로 천명하여 독자들을 흥분시켰다.

...

수면우의 사소한 변화에서도
그밀에 흐르는 해류의 큰 움직임을 보시듯
그날에 고르롭지 못했던
우리 당의 숨결도 가늠하시교

...

...

우리 당의 기둥을 쓸며
우리 당의 전통을 훼손하려는자들
금강산 묘향산의 산놀이로만 사람들을 부를 때

오직 한분

우리 당에 백두산을 안고오신 지도자동지

...

일찌기 1960년대초에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앞에 밀려들고있던 이색적사조의 위험성을 간파하시고 우리 당 건설과 활동을 주체의 궤도에 반석같이 올려놓으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은 해류와 백두산에 대한 감성적인 형상으로 노래되었다.

여기에는 거대한 폭과 깊이를 가지고있는 정치대상의 본질과 특징을 생신한 회화적감각과 풍만한 환상으로 추구해들어가면서 정서적으로 천명한 탐구의 열매가 있다.

정치적인것의 본질을 감성화하기 위한 시인의 노력에서 특징적인것은 감각적인 파악의 결과를 철두철미 시적인 종자, 정서적인 씨앗으로 전환시키며 이 감각적인 씨앗을 시상으로 일관성있게 견지하는 완강성이다. 시인은 정치적인 대상을 감각적으로 통감한데 기초하여 대상의 본질을 체현한 정서적알맹이를 찾아쥐고서야 정치를 시화하는 길에 나서고 있다.

조선지식인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올린 시 《붓을 들어 노래하노라 위대한 우리 당을》을 사람들은 오늘도 생생히 기억한다.

...

폭풍이여 불테면 불라
형형색색의 미친 바람이여 회오리쳐보라
그 어떤 힘도 유혹도

당기의 붉은 바탕에 수직으로 서있는 우리의
붓을 기울게는 못하리

...

시인은 우리 당마크에 새겨진 금빛붓의 곧추선 느낌을 강렬히 감득하고 그것을 당과 수령에 대한 지식인들의 충성심을 토로하는 시형상의 정서적인 씨앗으로 삼았다. 시에서는 이 정서적인 감각을 주축으로 정론적인 분석과 주장들이 내뿜고 들이맞히면서 정열적인 시세계를 펼치고있다.

여기서 두드러지는것은 대상에 대한 정서적감각이 흔히 상징적인 형태를 띠면서 시세계를 철학적으로 부각하는 점이다.

이 시인이 정치적인것을 감성화, 주정화하면서 시적세부에 의거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시인은 자기의 폭있는 시적사고와 웅심깊은 정서적 호흡으로 하여 세부의 리용보다도 상징, 그것도 무게있고 웅대한 감각의 상징에 즐겨 의거한다.

그리하여 시 《위대한 심장을 주다》나 《우리 집》에서 보는바와 같이 왕왕 정치적인것을 정서적으로 감득시켜주는 대담하고 웅건한 상징적 형상들이 출현한다.

이 상징들은 정치적인것을 외적표상으로서가 아니라 내면적정서로써 직감시키며련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여주는 효과적인 형상수단으로 되고있는바 이것은 시의 본도에서 추구된 감성화의 특색있는 경지라고 할수 있다.

시인은 정론적인 추구과정에 언제나 심도깊은 체험적사색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정론적분석과 서정적이며 철학적인 해명의 유기적인 통일을 달성한다.

그는 정론가로서의 분석력과 서정시인으로서의 정서적사고력을 겸비함으로써 정치적인 주장에 대한 서정적표현과 함께 그 지성도를 해결할줄 아는 시인이다.

정치적주제를 정면으로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시문학에서 정론적분석을 추구하는것은 결코 도외시할수 없는 중요한 공정이다. 그러나 정론적분석 그 자체에만 치중할 때 시아닌 일치가 정론이 나타나게 된다. 정치적문제를 직접적으로 해명하는 시문학에서 정론성은 그 중요한 속성으로는 될수 있으나 본질로는 될수 없다. 본질적인것은 어디까지나 정론적분석과 서정적이며 인간학적인 해명의 통일에 있다.

시인 오영재의 특기는 우선 정론가도 무색케 할 정론적분석의 높은 경지에서 불수 있다.

장시 《빛나라, 불멸의 위업이여》를 다시 보자.

시인은 위대한 령도자의 당사업령도 30년을 우리 당을 백두의 높이에 끌어올린 30년이며, 우리 인민에게 새로운 민족적기질을 형성시킨 30년이며 정치를 인민의 머리우에서 인민의 심장속으로 옮겨 령도자와 인민을 영원한 하나로 만든 30년으로 분석하였는바 이것은 수령, 당, 대중의 호상관계에

서 정도자의 지위와 역할을 론증한 뛰어난 정론의 세계인것이다.

정치적인 문제를 분석하며 론증하는 시인의 사색적인 추구는 이처럼 그 론리성에서 예리할뿐아니라 그 정치성, 철학성에서도 투철하다.

그는 언제나 시인으로서의 위치와 자각을 안고 론리적사고를 정서적이고 철학적인 사색으로 지향시켜나가고있으며 그것을 체험적인 사색의 깊이로써 담보하여나간다. 이것은 정론적인 내용을 체험자의 응심깊은 주정으로 내뿜게 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되었다.

이 장시에서만 보아도 시인은 전반부에서부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살아온 력사적체험자의 절절한 생활적주정속에 정론적주장을 펼치였다. 특히 후반부에서는 그이의 당사업정도 30년이 가지는 인류사적의의에 관한 분석을 가고오는 《세기》를 의인화한 상징적형상들의 대화로써 처리하였는데 이 환상적인 세계는 정론과 시가 하나된 응심깊은 주정의 개방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 특이한 랑만적수법이 독자들을 감흥시키는 리유는 우선 그것이 세기를 이어 흘러가는 유구한 인류사의 흐름우에 높이 올라 웨치지 않을수 없는 시인의 강렬하고 절대적인 숭배와 환희의 열정의 산물로 되어있기때문이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이 형상이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동지의 위업이 가지는 인류사적의의를 제기하고 그이를 파란맑고 착잡한 20세기를 참답게 총화하시는 위인으로, 다가오는 21세기의 휘황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이 세상에 오직 한분밖에 안계시는 절세의 위인으로 밝힌 그 철학적깊이에 있다. 그리하여 이 후반부는 충만된 정서와 양양된 열정, 새로운 철학적발견과 높은 지성으로 독자들의 감흥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훌륭한 경지를 보여주고있다.

바로 이러한 정서적이고 철학적인 사색의 투철성에 의거하여 시인은 정치적인것의 주정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고있다.

정치적인 주제를 정면으로 노래하는 시문학을 단순한 정론으로부터 시적인 정론, 생활의 철학으로 비약시킬수 있게 한 이 시인의 창작성과는 참으로 귀중하다. 그것은 시의 본도를 떠나 정론 그자체에 열중하는 사람들을 크게 깨우치고있다.

시인 오영재의 창작에서 가치를 가지는 특징적인 것은 다음으로 진실성과 랑만성이 통일된 시형상으로 독자대중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는 점이다.

주체의 시론은 시의 참다운 본질을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라고 밝혀주었다. 시의 생명력과 가치는 그 투철한 현대정신에 있다.

하기에 참다운 시인으로서 사회앞에 나서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문제는 시대와 시문학, 시대와 시인의 호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데 근본적으로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인은 시대의 가수, 시대의 나팔수가 되여야 한다.**》

참다운 시인은 언제나 랑심과 열정을 가지고 시대현실을 대한다.

시대와 현실을 가슴에 안고 노래를 터칠 때 시세계는 진실로써 충만될것이며 시인은 시대의 가수로 불리우게 된다.

하나 시대와 시인의 관계는 이에만 그치는것이 아니다. 참다운 시인은 언제나 시대의 선도자로서 대중을 광명한 앞날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찬 나팔소리를 울린다. 이를 위해 시인은 한가슴에 시대를 안고 창창한 대공에로 나래쳐오른다.

시세계의 랑만성이 여기서 얻어지게 된다.

전자의 측면이 시인이 시대현실로부터 받아안은 뭉치라면 후자의 측면은 시인이 시대현실에 안겨주는 뭉치라고 말할수 있다. 받고주는 이러한 호상성속에서 참다운 시가 탄생하는것이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시대의 진실을 담아 노래하는 가수로서의 시인은 시대를 불러일으키는 나팔수로 되는것이다.

시인 오영재의 시세계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진실에 투철하고 랑만으로 팽배한 그의 독특한 시형상은 대중속에서 견인력과 감화력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에도 끄떡없이 자기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 바로 이것이 시인의 순결한 랑심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노래에 담은 시대의 진실이다.

그의 시 《조국이며, 감사를 드리노라》는 사람들 랑심의 목소리로 들어잡은 진실한 노래였다.

...

내 알고있노라

제국주의의 광풍은 미친듯이 세계를 휩쓸고

이 땅에 몰려와 우리를 위협하고있음을

하여 그대 준엄한 90년대의 진펄길 헤쳐가고

있음을

알고있노라

다심하고 심려깊은 어머니의 그 마음으로

인민에게 더 주지 못하는것을 두고 마음 피로워하고있음을

...

이 시를 읽으면 현시대가 현실감있게 육박해들어오며 그러한 시대적정황속에서 이 땅우에 세워진 사회주의 새 생활의 참다운 모습이 뚜렷이 안겨온다.

시에서는 분식된 감정이 아니라 생활의 진실이 생동하게 노래되고있다.

인민에게 더 주지 못하는것을 두고 마음 피로와

하는 어머니, 세찬 광풍속에서 인민의 삶을 지켜나
선 어머니 ...

우리 운명의 개척자, 수호자로서의 위대한 어머
니조국의 고귀한 은정을 노래한 시형상은 준엄한
현실속에서 깨끗한 양심을 지닌 시인만이 찾아낼수
있는 진실중의 진실이며 사리에 맞고 설득력있게
친근하게 안겨드는 형상이다.

바로 여기에 시대의 가수로 독자의 사랑을 받는
시인의 모습이 나타나고있다.

그의 시형상은 생활감정의 진실에 투철할뿐아니
라 생활의 노도치는 바다를 격동적으로 담아내는
랑만적열정으로 팽배하다. 투철한 진실이 랑만으로
부풀고 랑만이 진실을 강렬히 불러내는 여기에 그
의 시가형상의 독특한 면모가 있으며 건인력과 감
화력의 주되는 담보가 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긍정의
열정은 옹호의 걱정으로 심화발전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문학의 서정적주인공은 주체의 사회주의를
더욱 강화하며 수호하는 투사의 랑만적인 모습으로
강렬히 부각되어질것을 요구하고있다.

혁명적랑만성을 강화하는 문제는 현시대의 절실
한 표정으로 나섰으며 이 시대적요구를 구현하는
앞장에 시인 오영재가 서고있다.

위대한 령도자를 마음의 기둥으로 모신 우리 시
대인간의 신념과 의지의 강렬성, 견결성, 위대한 령
도자를 삶의 태양으로 모신 우리 인민의 필승의 신
심과 혁명적력관의 투철성, 충만성 바로 이것이 시
인의 창작세계에 뿜어넘치고있는 혁명적랑만의 원
천이다.

시 《조국이여, 앞으로》(《로동신문》 1994년
8월 2일부)는 바로 그러한 랑만적감정을 정열적으
로 개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잃어 크나큰 비애의
바다에 잠겼던 인민을 향해 시인은 눈물을 거두고
걸어왔던 그 걸음으로 가야 할 그 길을 헤쳐나가자
고 격동적인 호소를 터친다.

시인의 목소리는 격동적이고 랑만적이지만 결코
허황하지 않다. 그것은 사람들의 가슴을 진정으로
파고들며 일떠세우는 강렬한 힘을 지녔다.

가장 거대한 슬픔을 안으시고도 그 슬픔 또한 제
일먼저 이겨내신 강철의 인간, 절세의 령도자를 마
음의 기둥으로 의지하였으며 수령을 잃은 애도의
나날 백년을 살아도 잊지 못할 심원한 자각과 값높
은 성장을 한 우리 인민의 내면세계, 시인은 바로
그속에 뿜고들어가 진실중의 진실을 노래에 담았고
그 진실에 심장의 불을 달아 역척같은 투지와 불
타는 랑만을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안겨주었다.

...

하늘이 무너져내린 그 더미속에서
땅이 꺼져내린 그 칠칠 어둠속에서
어떻게 솟구쳐올랐더냐, 조국이여

...

강철의 인간

의지의 인간이시여라, 우리의 **김정일**동지

순식간에 우주가 어둠의 장막으로 덮이고

지구가 몸부림치는 불행의 충격을

제일먼저 한가슴으로 받아안으신 그이이시건만

천길 아득한 슬픔의 벼랑을 제일먼저 딛고 오

르셨나니

...

그 모습을 기둥으로 안고

내 조국은 일어섰노라

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그이는 인민에게 비장한 각오를 주시었노라

...

여기에는 생활감정을 랑만적으로 부각하는데서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에 대한 심원한 사색적추
구에 기본을 두는 시인의 옳바른 관점과 자세가 뚜
렷하다.

비상히 폭넓고 무게있는 표현과 그 표현들의 극
적인 대조는 사람들로 하여금 령도자의 위대성과
그 위대함을 가슴에 안은 인민의 막강한 힘을 새삼
스레 각성시키고 혼연일체로 분발하여 난국을 뚫고
나가도록 나래를 달아주며 우렁찬 진군나팔을 울린
다.

여기에 시인에게 특유한 시문장의 음악적률조가
그 효과를 배가한다.

시인의 정서적인 사색과 호흡은 일찍부터 민족과
조국이라는 거창한 폭을 안으며 시문장의 긴 음조
를 형성하게 하였다. 그는 즐겨 한 호흡에 담을수
있는 최대의 길이로 시행을 조성하면서 정서와 열
정을 사색의 심연으로부터 끌어내고있으며 즐기차
게 펼쳐나가고있다.

그의 시문장의 긴 음조는 랑만적열정의 거창한
전개를 담보하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이 긴
문장안에서 굴절이 틀동적으로 조직되고 박자와 흐
름새가 탄력적으로 조성될 때 시대를 안고 몸부림
하는 걱정은 음악적인 감흥을 동반하면서 독자들의
가슴을 파고들어 깊이 더 깊이 흔들려준다.

그의 시가의 혁명적랑만성은 지난 시기 흔히 보
아왔듯이 혁명승리의 앞날을 전망하며 힘을 내는
단순한 미래적형상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의 우리
인민이 지닌 혁명성과 전투력을 밝히며 그것을 더
욱 강렬히 고취하는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형
상이다. 바로 여기에 시인 오영재의 랑만적시형상
이 가지는 보다 큰 가치가 있다.

이러한 랑만적열정의 밑바탕에서 후답게 안겨오
는것은 시인의 공민적인 애정이며 열정이다. 자신
의 살점과도 같고 피와도 같은 조국, 《흥하고 시름
없던 그런 날에보다 그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가슴에서 피가 흐를 때 목메여 소리쳐 부르며 달려간다》고 한 이 시의 뜨거운 구절들은 그의 랑만이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며 그 운명을 책임지고나서는 애국자의 불타는 사랑과 열정의 어쩔수 없는 분출임을 느끼게 하고있다.

참으로 이 시인에게서 시형상의 진실성이 랑심의 발현이라면 랑만성은 애정과 열정의 열매로 되고 있다.

진실에 투철하고 랑만으로 팽배한 위력한 시형상은 랑심으로 순결하고 애정과 열정으로 불타는 시인-애국자의 심장에서만 터져나올수 있다.

참다운 시를 위하여 시인은 애국자로 살아야 한다. 다른 삶은 있을수 없다.

시인 오영재의 창작에서 가치를 가지는 특징적인 것은 다음으로 그가 시가문학의 여러 형식들의 발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있는 점이다.

그는 우리 시단에 흔치 않은 만능의 재사로서 오늘까지 7편의 장편서사시와 25편의 장시, 10편의 서정서사시 그리고 많은 서정시와 가사작품들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주인공다운 태도로 이 형식들의 발전에 귀중한 노력을 바쳤다. 그중에서도 가사와 장시형식의 발전에 바친 시인의 기여에는 특출한바가 있다.

그는 전문적인 가요시인이 아니지만 노래없는 혁명은 승리할수 없다고 가르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높이신 뜻을 간직하고 혁명의 위력한 무기를 버리는 마음으로 가사창작에도 각별히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그의 가사문학에는 《여기가 우리 사는 마을입니다》와 같은 생활적양상의 가사도 있지만 그보다 령도자의 위대성을 칭송한 가사들과 당에 대한 송가, 인민들의 신념과 의지를 노래한 가사 등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주제의 가사작품들이 기본을 이루고있다.

그의 폭있고 정열적인 개성은 장중한 송가나 전투적인 가사창작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는바 《인민은 우리 당에 영광드리네》나 《우리의 행군길》은 바로 그러한 작품들이었다.

가사문학발전에 대한 그의 기여는 령도자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주제의 작품창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칭송하는 가사창작에서 시인의 관심과 탐구가 기울여진것은 지난날 흔히 하여온 업적에 대한 개괄적이며 장중한 칭송이 아니라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에 기초하여 인민의 흠모심과 충성심을 생활정서적으로 다채롭게 풀이하는것이였으며 이를 통하여 위대성을 칭송하는 가사의 문학성을 한단계 높이는 문제였다.

그리하여 가사 《사랑의 미소》는 태양의 인력보다 더 강렬한 령도자의 위대한 인격을 특징적인 생활세부에 의거하여 뜨겁게 안겨주는 절절한 양상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되였으며 가사 《흰눈덮인 고

향집》은 령도자의 탄생이 가지는 의미를 자연전경에 대한 상징적인 승화로써 승엄하고 사색깊이 안겨주는 인상적인 작품으로 되였다.

가사 《백두의 말발굽소리》는 이 주제분야에서 주목되어야 할 특색있는 작품이다. 여기서는 령도자의 위대성이 랑만적인 형상에 담겨져 백전백승의 기치, 백두산의 강철의 령장을 힘있게 부각하고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시인이 해당한 소재, 해당한 종자에 상응하게 문학적인 형상과 수법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구사하여 위대성을 칭송한 가사문학에서 끊임없이 새 세계를 개척하고 형상적품위를 높여나가고있음을 보여준다.

시인은 가사창작을 대함에 있어서 언제나 절가형식의 정교성에 앞서서 문학성을 중시하는 시인다운 태도를 견지한다. 그리하여 시적인 종자가 없고 형상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가사를 배격하면서 인간학적인 풍격과 시적인 품위를 높이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최근에 그가 창작한 가사 《위대한 그 영상 영원하리》도 바로 이러한 창작자세에 의하여 또 한편의 명작으로 태어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아버지수령님을 영결하던 비통한 그 시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에 의하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안겨진 환히 웃으시는 수령님의 인자하신 그 영상에서 종자를 잡은 가사작품이다.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가슴아픈 7월의 그 나날에 아버지수령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하는 인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을 헤아리시여 환한 미소를 지으신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리모두의 가슴에 안겨주시였다.

가사는 력사의 그 시각에 우리 인민의 가슴을 가득채운 한없이 승엄하고 영원한 사상감정을 시적으로 훌륭히 천명하였다.

해빛처럼 밝게 웃으며 우리들을 반기시던
대원수님 인자한 영상 세월이 흐른들 잊으랴
인민의 마음속에 천년만년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시네
...

아버지수령님은 가지지 않으시였다. 해빛처럼 밝게 웃으시며 반기시는 대원수님의 인자하신 그 영상을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을수 없는 인민의 마음, 그 마음속에 아버지수령님께서 천만년을 태양으로 살아계시며 인민을 인도하시는것이다.

시인은 이렇게 심장으로 절감한다.

여기에는 지극히 생활적이고 정서적인 진실의 경지가 있다.

언제나 환히 웃으시던 태양의 모습.

인자하신 태양의 그 영상은 기나긴 한평생 시련

과 간고를 한몸에 안고 헤치시며 인민에게는 오로지 기쁨과 행복만을 안겨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주는 숭고한 화폭이다.

태양은 영원불멸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해 이룩하신 그 위대한 업적은 인민이 사는 이 땅, 이 누리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의 태양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높이 모시려는 인민들의 신념도 영원불멸할것이다.

가사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철석같은 신념과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대한 숭고한 의리의 뜨거운 분출을 담고있다.

시인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태양같은 영상을 우러르는 인민의 진정을 생활-정서적으로 깊이 감득하면서 그것을 또한 철학적으로 더욱 승화시킨다.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대원수님 그 영상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 위대한 모습에 어렸네
주체위업 한길에서 못다바친 그 충성을
장군님 따르며 다하리

인민의 마음속에 천만년 간직될 그 영원한 웃음이 어느덧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영상에 어리어 안겨진다. 태양같이 밝으신 그 웃음속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모습을 하나로 합치시킨 이 비상히 시적이며 환상적인 화폭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우러러 인민들의 심장에서 뜨겁게 우러나오는 시대적감정의 진실을 더욱 깊이 천명한다.

한없이 숭고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력, 불멸의 업적과 고결한 덕망으로 하여 만민의 태양으로 빛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언제나 한 모습으로 우리 인민속에 계신다.

김일성동지는 곧 **김정일**동지이다.

그리하여 가사형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신념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기에 어버이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는 더욱 심화된 신념의 깊이로 이끌어간다.

우리모두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만민의 하늘이시고 태양이시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의 승리를 보며 그이의 성스러운 위업의 승리를 본다.

가사는 한몸이 열백번 부서지고 가루되여도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뜻대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리라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와 맹세를 숭엄히 울려준다.

가사의 형상에는 위대한 령도자들께서 지니신 한없이 밝고 빛나는 정서가 넘쳐나고있으며 우리 인

민이 지닌 흠모의 절절한 감정과 비애를 딛고 일어서는 충성의 강렬한 의지가 용솟음치고있다.

참으로 가사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생불멸함과 대를 이어 계승해가는 영원한 충실성의 의미가 해빛같은 영상과 그 생활적이며 환상적인 일치속에서 그리고 밝고 절절하며 의지적인 감정의 줄기찬 흐름속에서 감명깊이 철학적으로 안겨오고 있다.

시가문학형식의 발전에 대한 시인 오영재의 기여는 장시형식분야에서 더욱 뚜렷하다.

그는 1960년대초에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데 이어 많은 장시를 써냈는데 그것은 폭이 큰 호흡과 양양된 열정으로 특이한 이 시인의 개성에 알맞는 시형식이였다.

그리하여 오늘의 시단에서 장시라면 시인 오영재를 련상하리만큼 되였다.

장시형식은 위대한 력사적사건들이 벌어지는 오늘의 시대에 어울리는 큰 규모의 서정시로 역할하고있다.

이 분야에서 시인 오영재의 활동은 그가 장시《수령님께 드리는 송가》(1966년)를 창작하여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사상전선에 나선 때로부터 눈에 띄게 나타났다. 이때부터 시인은 장시형식을 정론적양상으로 발전시켜나가면서 그것을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칭송하고 혁명적수령관을 확립하는 위력한 무기로 발전시키는데서 큰 역할을 놀았다.

이 과정에는 물론 난관도 없지 않았다. 그것은 규모의 크기에만 치우치고 내용의 문학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미숙성이였으며 정론적인것의 도해나 윤색을 넘지 못하여 시로서의 견인력과 감화력을 얻지 못하는것이였다.

장시형식의 발전에 초기부터 중요한 역할을 놀아온 시인은 이 과제 해결의 앞장에도 주인공계 나섰으며 드디어 장시《빛나라, 불멸의 위업이여》를 창작함으로써 새로운 리정표를 세우고 밝은 전망을 열어놓게 하였다.

이 장시가 보여주는 긍정적인 경험은 우선 노래되여야 할 대상의 정수를 따서 그것을 체험의 터전에 심으며 그 체험을 무르익혀 생활감정을 성격적으로 확충한후 정론적인 내용을 철저히 주정화하여 피력하는것이다.

이것은 장시를 서정의 문학으로 되게 하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여기에 장시형식의 발전을 추동한 이 작품의 가치있는 측면이 있다.

이 작품은 또한 체현된 주정을 피력하면서 서사적인 이야기, 생활적인 화폭들을 적절히 안배하였으며 특색있는 형상수법들도 적극 활용함으로써 독자들의 감수력을 견인성있게 지속시켜나간 좋은 경험을 창조하였다. 긴시를 읽어나가는 독자들의 감흥을 서정적인것과 서사적인것의 다채로운 배합, 인상적인 형상수법들의 활용으로써 련속 자극하며

양양시켜나간 여기에 장시형식의 발전을 더욱 추동한 이 작품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중간부분에서 펼쳐지는 로교수의 딸 순희의 이야기로부터 의인화된 《세기》들의 대화수법에 이르러 결속되는 변화있고 감흥을 주는 주정의 피력방식은 상식적인 논리를 생활적표상이 희박한 막연한 감정으로 장황하게 풀이하면서 장시의 문학성을 거세하던 경향을 극복하는데서 좋은 시사로 되었다.

이처럼 진지하고 탐구적인 노력에 의하여 우리가 개척한 정론적양상의 장시형식은 이제 한단계 더 높은 발전을 확고히 내다볼 수 있게 되었으니 여기에 주체의 시문학건설에서 발휘한 시인 오영재의

주인다운 태도가 있다.

이상에 론한것은 최근 시기 시인 오영재의 창작적개성의 새로운 발전상의 일단이다.

아직은 이 시인이 창작의 발전기, 양양기를 걸어가고있다.

그의 창작세계에는 아직껏 미흡한 점들이 없지 않다. 그는 더욱 분발할것이다.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성숙으로 나아가는 창작의 길을 우리 당의 찬란한 해발이 비쳐주고있으니 신심에 넘쳐 내달는 시인 오영재의 앞날에는 크나큰 보람과 끝없는 행복만이 약속되어있다.

부탁은 오직 하나, 시인이여 앞으로!

여기 한번 서본 사람이라면

전계승

하늘높이 치솟은

이 절정,

망망한 천리수해, 만리운해가

후련히 안겨드는

여기

붉은 기치 높이 드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첫 답사의 행군길 개척하시던

불멸의 자욱파라

오늘은 나도 오른

여기

-백두산에 오르면 힘이 솟고

혁명을 할 결심이 굳어진다면

그날의 그 말씀

아아한 봉우리마다 메아리치며

내 가슴 흔드는

여기에 서니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끝간데없는 천리수해, 만리운해여

내 가슴 작아도 우주를 안은듯

끝없는 랑만에 가슴 벅차고

지구도 들었다놓을 크나큰 담력

온몸에 솟구쳐올라

내 믿어마지 않나니

여기 백두산마루에 한번 서본 사람이라면

백두산에서 시작된

끝나지 않은 혁명의 길

폭풍만리, 천만리를 손들어 가리키시며

위대한 결심을 안겨주신

그이따라 끝까지 가고가리라

언제나 이 산정에 자신을 세워

백두의 바람결에 마음을 씻으며

여기서 옷자락 날리던 그 심정 그대로

멀고도 험한 길에 목 마를세라

고산초의 향기로 장수힘을 돋구며...

그 어떤 광풍이 불어온대도

폭풍속에 더욱 붉게 타오르는 기폭처럼

선두의 영예를 지켜 굵힘없을 한마음

혁명의 성산에서 다지였기에

그토록 위대한 혁명의 결심을

높이 든 사회주의 기발에 담아 휘날리며

전사의 위훈을 펼쳐가리라

아 향도의 자욱어린

여기 백두의 상상봉우에

옷자락 날려본 사람이라면...

백양나무는 설레인다

한익훈

7호로의 강형권로장은 쇠물앞에서 스무해나마 잔뼈를 굳혀온 사람이다. 올해 마흔세살로서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다.

하지만 나이로 보나 로장년한으로 보나 강철직장에서 제일 막내이로장이다. 그보다 10년, 20년 이상의 년장자들과 다른 로장들중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나라가 다 아는 로력영웅도 두사람이나 된다.

우연한 일치라고 하겠는지 그가 맡고있는 7호로 역시 쇠물을 녹여온 력사가 제일 짧은 신설로이다. 로의 배전실허리에 붙어있는 두터운 동판으로 주목같이 따낸 《청년호》라는 세글자가 마치 로의 젊은 연혁을 말해주는듯싶다.

막내이로에 막내이로장... 참 신통한 일이다. 그러나 강형권은 천성적으로 요란하게 우람한 체격을 타고나서 다른 로장들보다 윤후하게 돋보인다.

큰 키에 작업복손술이 당장 툭 터져나갈것처럼 두어깨가 짙 버그러지고 통통한 얼굴에 술진 눈썹 밑에서 두눈이 어굴어굴하는, 말하자면 무엇이냐 다 엄청나게 크고 무겁고 뜨거운 중량감과 위압감을 풍기는 대강철기지-천리마체강련합기업소의 장엄한 정서에 빠진데 없이 잘 조화된 호남아이다.

하긴 그는 상씨름군으로 소문난 사람이다. 몇해 전 남포시적으로 진행된 비교씨름경기에서 맞다드는 적수들을 죄다 들배지기로 보기 좋게 뺏아뜰치고 1등을 해서 중소를 상으로 탄적도 있다.기로 보기 좋게 뺏아뜰치고 1등을 해서 중소를 상으로 탄적도 있다.

이해 정초에 텔레비죤으로 방영된 전국비교씨름 경기를 보면서 강선사람들은 강형권이 거기에 참가하지 못한것을 몹시 아쉬워했다. 들배지기로인 그가 참가했다라면 영낙없이 1등은 떴는 당상이란다. 본인자신도 그 당시에 일이 바쁜 몸이어서 그 경기에 참가하지 못한것을 퍼그나 섭섭해하고있다.

이 《들배지기로장》이 요즈음은 특수재질의 엄청난 중량의 발전기타빈축을 성공적으로(처음해보는 일이지만) 부어내여 더욱 유명해졌다. 그 타빈축으로 말하면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의 마지막유훈에서 주신 과업을 관철하는것이어서 누구나의 깊은 관심과 부러움을 자아냈다. 필자가 부쩍 호기심이 당기여 7호로를 찾은것도 전적으로 그때문이었다.

1강철직장의 성미가 유순한 김윤오부문당비서로부터 그 일을 훌륭히 해낸 감동적인 이야기를 대충 듣고 7호로를 찾아갔을 때 나는 그만 별난 실수를

했다.

금방 한차지의 쇠물을 부어낸뒤였는데 용해공들 속에서 례의 한사람이 우선우선 웃으며 알은체를 했다. 나도 체격이 우람한 상대를 제껴 알아보았다. 작년초에 공장에 들렸다가 얼핏 낯을 익힌 반장이였다. 그날 7호로에서는 그의 새 기술혁신안인 전국의 수명을 세배나 높일수 있는 소천정링구를 설치하고있었다.

서먹서먹한 사람들속에 아는 반장이 있다는 다행스러움으로 해서 나는 저으기 기뻐다.

《반장동무, 수고합니다.》

반기며 건넌 나의 인사말에 한동안 어리둥절해서 서로 눈길을 마주치던 용해공들이 약속이나 한것처럼 즐겁게 미소를 지었다. 내가 자기네 로장더러 뻔뻔스럽게도 반장이라고 했으니 그럴수밖에 없었다.

《전 로장동무는 어디 다른데로 조동된게지요?》

《...》

로장은 대답대신 헛기침을 짓었다.

한동안이나 이마살을 찌프리고 울적한 표정에 문혔다가 힘들게 말을 뱉다.

《한두식로장은 지금 우리곁에 없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7호를 목숨으로 지켜내고 순직했지요.》

나는 찌르는듯한 아픔이 심장을 허비여 가슴이 줄어드는것 같았다. 참 어쩌면 그럴수 있는가?

사연을 들어보니 한두식로장이 발휘한 영웅적소행은 눈물겹게 감동적인것이였다. ...어느날 쇠물한 차지를 뽑고 보니 아뿔싸 로벽의 한귀퉁이가 뭉쳐 녹아났다. 모두들 얼굴이 컴컴해졌다. 중요대상설비생산으로 한차지의 쇠물이라도 더 뽑아야 할 때에 로보수에 들어간다는것은 매우 치명적인 일이었던것이다.

《로를 멈춰서는 안되오. 힘든대로 저걸 하나 교체합시다.》

한두식로장은 그 누가 달릴새도 없이 아직 열기가 이글거리는 로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반장들인 강형권과 현수복이 뒤따랐다.

800키로그램이나 되는 마그블록을 고열속에서 짧은 시간에 교체하는 일은 간단치 않았다. 대체로 일은 순조롭게 되어갔는데 기중기가 물어올리던 낡은 마그블록이 기우뚱하면서 그만에 로벽으로 날아들었다. 아차하는 그 위기일발의 순간에 《비켜라!》 소리치며 한두식로장이 비호같이 몸을 날려 바닥에 마그가루를 퍼느라 정신없이 일하던 강형권

을 밀쳐버렸다. 그래서 엉망으로 될뻔했던 강형권과 로벅은 무사했으나 한두식로장은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애타게 흔들며 부르는 강형권의 무릎에서 숨을 거두며 마지막 힘을 모아 이런 말을 남기었다.

《우리 7호로도 일을 잘해서…꼭 어버이수령님을 모시는 영광을…부탁하요.》

한두식로장은 신여섯살의 한생을 7호로에서 마쳤다. 하지만 그가 떨친 위훈과 간절한 마음의 호소는 7호로사람들의 마음속에 뜨겁게 간직되어있다. 그가 순직하며 지켜낸 로에서 그가 구원해낸 강형권이 지금 그가 비우고 간 자리를 곳곳이 지켜가고 있다. …이야기를 마친 강형권로장은 두눈구석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문다지었다.

1강철현장을 나선 우리는 나무그림자들이 드리워 서늘한 그늘이 지어진 공원의자에 마주앉았다. 오후시간이 퍼그나 갔으나 아직은 초가을하늘이 밝았다. 소슬바람이 대동강쪽에서 살랑살랑 불어왔다. 눈앞으로 시원하게 뻗어간 큰길끝에서는 키높이 자란 세그루의 백양나무가 세차게 설레고있었다.

그중의 한그루 백양나무에 눈길이 끌리면서 나는 부지중 가슴이 울렁거리었다. 전쟁이 방금 끝난 그해 8월에 파괴된 공장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무너진 벽체우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로 공장을 더 크게 일떠세울 방도를 환히 밝혀주실 때 타다남았던 그 백양나무가 저렇듯 키높이 자라 설레고있다는 감회깊은 충동이 뿜어올랐던것이다.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조국에 개선하신 그해 어느날에 그리운 만경대의 고향집에도 들러보지 않으시고 이 공장 로동계급을 먼저 찾으시여 이제는 동무들이 조국의 운명을 걸머지고 나아가갈 기둥이며 주춧돌이라고 하시며 새 조국 건설의 앞장에 내세워 주신 어버이수령님! 그때로부터 공장이 천리마의 고향으로, 《강선속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는 대강철기지의 위용을 힘있게 떨치도록 끝없는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수령님!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은정의 귀중한 축도로서 저 백양나무가 곳곳이 서서 끝없이 설레는듯싶었다.

《백양나무는 예나제나 변함없이 세차게 설레는 구만.》

《웁습니다. 정말 고마운 백양나무지요.》

혼자말로 뇌이는 내 말에 기다리거나 한듯 강형권로장이 제격 대책해나섰다.

《저 백양나무의 심심한 모습에서 우리는 때없이 공장을 찾아주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이의 귀중한 유훈을 강철로 잘 받들어야 저 백양나무가 더욱 무성하게 자라 세차게 설레게 된다는 자각을 가다듬지요.》

지난해 7월 19일 평양에 올라가 어버이수령님과 의 가슴터치는 영결식에 참가하고 절통감에 몸부림치며 공장에 돌아왔을 때도 저 곳곳이 서있는 백양나무가 어버이수령님은 영원히 동무들과 함께 계신다고 우리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듯싶었습니다.

참으로 보면 볼수록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하게 복받치게 하는 백양나무입니다.… 그런 우리 강선사람들이어서 그 발전기 타빈축을 밟는 과제가 떨어졌다는 소문은 삼시에 온 강선바닥이 들썩하게 퍼지였습니다. 모두들 우리 1강철을 몹시 부러워했습니다. 그럴수밖에 없지요. 그게 어떤 일입니까?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난 7월 5일과 6일 정무원책임일군협의회에서 주신 유훈의 뜻을 우리 강선이 관철하는 첫 과제였던것입니다.

사실 그때 그 일을 직접 말아하게 된 우리 1강철사람들은 여간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전 그 일을 우리 로에서 당겨하고싶은 생각이 굴뚝같았으나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는 그 어떤 절망적인 불안으로 해서 여간만 마음이 울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자신을 따뜻이 이끌어준 다른 선배로장들과 감히 승벽내기할 명분이 서지 않는 저였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우리 7호로가 말아 해냈다는것을 생각하면 좀처럼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일을 우리 7호로가 해낸것으로 하여 지금 작가선생이 저와 마주앉아있습니다. 다른 그 누구네가 했다면 지금 내가 아니라 다른 그 누가 작가선생과 마주앉아있을것입니다. 그러구보면 그 일을 말아안은것자체가 사실 큰 성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일을 말던 때를 생각하면…》

로장은 빙그레 웃으면서 나를 건너다보았다.

×

지난해 8월중순의 어느날 오후였다.

강형권이 현수복네 3교대작업반원들과 함께 금방 출강한 로앞에서 장입준비를 하고있는데 누군가 다급히 찾았다.

《로장동지, 지령실로 전화독촉이 왔어요.》

7호로적으로 제일 막내이인 열아홉살의 허성민이 로력에 올라서서 크고 고운 두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몹시 급해맞아했다.

《직장장실로 빨리 오래요. 협의회가 있다가요.》

강형권은 허리를 펴고 꿈무늬에 찻던 수건을 뽑아 땀흐르는 실한 목덜미를 훔쳤다.

《무슨 협의회래?》

《그야 뻔하지요.》

허성민은 원불에 보조개를 지으며 능청스레 히죽 웃었다.

《발전기타빈축을 맡길 적임자때문이겠지요워.》

강형권은 절로 한숨이 내불리었다. 다른 로장들의 만만찮은 얼굴이 얼핏얼핏 떠올랐다. 어쩐지 자기가 패할것만 같았다. 하면서도 신심을 잃는 자신이 몹시 불만스러웠다.

잔뜩 긴장되어 몇걸음 옮기는데 로밀에 내려가 슬라그남비를 정리하던 갱긋한 얼굴의 현수복반장이 그 류달리 부리부리한 눈을 반짝이면서 황황히 강형권을 불러세웠다.

《로장, 우린 민겠소.》

현수복은 다가오자마자 강형권의 팔굽을 짚었다.

《뭘 믿는다는겁니까?》

돌파선 강형권은 잔뜩 미간을 찌프리었다.

《형 이걸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니... 〈정치사업〉 두 안하구 그냥 보냈더라면 큰일 날번했군.》

나이 선살을 넘겼으나 부하지 않은 몸이 균형잡히여 체조선수처럼 날렵해보이는 현수복은 쓰겁다는듯 입맛을 다셨다.

《남은 속이 타죽겠다는데 마음 편하게 웃는구만, 한심하다는거는... 여보 로장, 로장의 태도여하에 우리 7호로의 체면이 달렸다는걸 명심하게.》

《원 나더러 어찌라는겁니까. 체면에 물릴게 두렵다고 간도 모르는 주제에 물덤병 술덤병 할수야 없지 않습니까. 씨름판이라면 또 몰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죽지가 늘어진걸 보니 체가 틀렸군. 이거야 염통이 끓어올라 어디 건디겠나. 정 안되겠으면 들배지기라도 할판이지. 그 재간은 뒀다 국끓여먹겠수.》

현수복은 술잎에 불달리듯 확 달아올라서는 제말에 다시 그루를 박았다.

《생개똥개한 소리는 싹 걷어치우고 어찌하나 그 일을 맡아안고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은 바른대로 로장자격이 없수다.》

강형권은 흥하고 코방귀를 뀌었지만 속은 좋지 않았다.

《그 일을 당기는게 그렇게 딱딱듯 쉽게 생각되면 어디 반장이 가보시우. 난 어쩐지 자신이 잘 서지 않는구만요.》

《아니, 그것도 말이라고 하오?》

현수복이 약이 치받쳐 껍 맞붙질하고는 맥을 놓고 털썩 주저앉으며 주먹으로 가슴을 탕탕 두드리었다.

《저런 줄난 로장을 알면 한두식로장이 땅속에서도 가슴을 칠거요.》

강형권은 때없이 날카로운 애수가 가슴 한복판을 뻑 굽는듯싶은 절통감에 휩싸여 몸을 휘청거리다가 참을길없는 분노가 북받쳐 얼굴이 화독같이 달아올랐다.

《뭐요?》

그는 부들거리는 손으로 현수복의 어깨를 잡아일

으키고는 가쁜 숨을 토폴며 금시 시퍼런 불뚝이 쏟아질듯한 눈으로 싸웠다.

《아무리 못난 로장이래도 그렇게 가슴을 허벼놔야 시원하겠소? 너무합니다. 제길할...》

강형권은 현수복을 탁 밀쳐버린채 더 말없이 고개를 수긋하고 비칠거리며 걸어갔다. 꼭 실성한 사람같았다.

협의회에서 직장장 김홍국이 이번 일의 중요성과 그 의의에 대해서 재삼 반복하여 강조하는 동안에도 강형권의 눈앞에서는 현수복이 안타까움과

절절함을 다잡지 못하여 바글바글 끓던 애바른 모습이 어론거리었다. 어쩐지 제가 그의 심정을 너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옥했던것 같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자기도 모르게 불같은 한숨이 나가고 몹시 심사가 울적해졌다.

갑자기 옆에 앉았던 1호로 로장이 성급 일어서며 그 일을 자기네가 하겠다고 부르짖는바람에 강형권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호로의 로력영웅인 주유복로장이 큰 몸으로 책상을 밀치며 일어나고 뒤따라 한사람 또 한사람... 강형권도 헤덤비며 일어섰다. 모든 로장들이 다 일어섰다.

바빠맛아난 직장장이 의아해진 눈길을 허둥거리며 이 사람 저 사람을 갈마보다가 입귀에 담배를 문채 성냥통을 든 손을 해해 내저었다.

《자자 모두들 앉소. 앉소... 동무들이 그렇게 나 오리라고 타산 못한건 아니요. 처음 해보는 일인데 욕망만 앞세우지 말고... 아니 거 7호로 로장은 왜 그냥 망두석처럼 뻗치고 서있는거요?》

《저...》

강형권은 빙빙 갑자르며 벌겋게 동한 뒤통수기를 매만지다가 저자신도 놀라리만치 방안이 찌렁하게 부르짖었다.

《전 빈손으로는 못가겠습니다.》

모두들 놀라운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빈손으로는 못간다?... 거 떡심중구만. 여보시오. 7호로장 어째서 동무네만 그 일을 맡고싶겠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저도 끄떡없을 배포유한 용해공출신의 직장장이 침착한 동작으로 불을 달지 못한 입귀의 담배가치에 성냥을 그어대고 실눈을 지으며 웃었다. 좌중에 가벼운 웃음이 일었다.

순간 강형권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온몸의 피가 머리로 몰려드는것 같았다.

그는 씹씹거리다가 들배지기를 할 때처럼 불끈 힘을 주어 푸들쩍거리는 주먹으로 책상을 탕 내려쳤다. 담배꽂초가 수복히 담긴 쇠재털이가 공중뿔을 했다.

《저는 룡담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한두식로장은 우리 7호로가 아버지수령님을 한번도 모시지 못한

것을 안타까와하며 눈을 감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나 그의 절절한 마음의 호소대로 일을 잘 해서…》

강형권은 탄식처럼 긴 한숨을 내불었다.

《그런데 이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영영 우리로에 오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7호로가 어버이수령님의 그 유혼의 과제조차 받아안지 못한다면 제가 무슨 체면으로…》

목구멍이 칼칼해지면서 뜨거운것이 메여올라 그는 말하기가 몹시 힘들었다.

그는 겨우 격해진 마음을 누치고 얼굴에 번진 눈물을 손등으로 뺨-닦았다.

《제가… 너무한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를 키워주고 이끌어준 선배로장동지들,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에 한번도 기쁨을 드리지 못한 저희들 7호로를 좀 도와주십시오.》

강형권은 앞으로 내민 두손을 중풍이나 만났듯 부들부들 떨다가 밀둥잘린 나무처럼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물을 뿌린듯 조용해진 방안에 어깨를 떨며 다잡느라 애를 태우는 강형권의 흐느낌소리만이 들렸다.

한동안이 지나 로력영웅 정찬주로장이 조용히 일어나 코소리를 내며 띠엎띠엎 말했다.

《7호로 로장이 참 좋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감동됩니다. 우리모두 그 일을 7호로에 양보합시다. 그리고 일이 잘되게 도와줍시다.》

몇사람의 고집스런 로장이 불만스런 마른기침만 쿵쿵 짓다가 잠잠해졌다.

《임자 잘했어. 과시 <들배지기로장> 다와.》

뒤자리에 바투 앉았던 리성춘교관아바이가 주름투성이의 껄쭉한 얼굴에 함뿔 웃음을 머금고 강형권의 실락한 어깨를 두드리었다.

협의회가 끝나 문밖에 나섰을 때에는 날이 저물었다. 강형권은 바라마지 않던 소원을 꿈처럼 성취한 기쁨에 가슴들먹이면서도 은근히 가슴 한편이 걱정으로 무거웠다.

(과연 욕망만 앞세운게 아닌가. 처음 해보는 중한 그일에서 자그마한 실수라도 생긴다면…)

착잡한 생각에 잠겨 철충계를 내리는데 누군가와락 달려들어 두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로장동무, 어떻게 됐소?》

두눈이 콧꽃해서 마주보는 사람은 뜻밖에도 현수복반장이었다. 강형권은 제생각에 잠겨 대답했다.

《우리가 너무 욕망만 앞세웠는지 모르겠소.》

《욕망이구 뭐이구 어떻게 됐냐말이요?》

《반긴 받았소. 그런데 그게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이고보니…》

《처음이구 뭐구 인젠 됐수다. 아무렴 <들배지기로장> 이 어련할라구… 여 동무들, 우리가 맡았다 누만.》

현수복이 두손을 쳐들며 부르짖자 현장에 붙어있는 교대인원외에 모두가 떨쳐나선 7호로사람들이 강형권한테 왁-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왁자지껄 떠들어대며 80키로그램이나 나가는 우람한 강형권을 공기돌다루듯 가볍게 공중으로 날려올렸다.

강형권은 신심이 생겼다. 힘이 부족 났다. 이런 동무들과 함께라면 그 무엇인들 못해내겠는가.

《동무들, 고맙소. 우리 이제부터 7호로에 어버이수령님을 모신 심정으로 그일을 해냅시다. 그러면 모든게 다 잘될게요.》

강형권이 목메여 건네자 모두들 열렬히 호응하는데 현수복이 그의 손을 죽 잡았다.

《아까는 내가 너무한것 같소. 어쩐지 로장이 축잡혀서 그 일을 못당길것 같은 걱정이 들어서…》

《됐습니다. 반장동무가 정신이 번쩍 들게 잘 답새겨준 덕에 비상한 용단이 컸더랬수다.》

두사람은 가슴을 들먹이며 마주친 손을 흔들었다.

류다른 사연으로 빚어졌던 두사람의 별난 다툼질은 불을 다루는 사람들의 뒤없는 즐거운 《화해》로 깨끗이 마무리된셈이었다.

×

《이젠 답니다.》

강형권로장은 주머니에서 담배주머니를 찾아들었다.

내가 성급히 《제비》를 꺼내었으나 그는 머리를 저었다.

《그건 숨숨해서 틀렸습니다. 담배맛이야 이 독초 이상 없지요.》

그는 하얀 봉대가 두툼하게 감긴 왼쪽손때문에 몹시 불편하게 담배말이를 했다. 그래서 내가 굵다랗게 담배를 말아주면서 그 봉대가 감긴 손을 가리켰다.

《왜 다라는거요. 로장동무는 아직 그 봉대를 감게 된 사연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러니 원, 우리 비서동무가 그 얘기도 다 한계군요. 그게 무슨 큰 일이라고.》

강형권로장은 성냥을 드룩 그어 담배불을 붙이면서 빙그레 웃었다.

그 얘기를 나는 좀전에 만났던 김운오부문당비서한테서 대충 들었다. …세번째 주원료를 부어넣었을 때 이상하게도 한쪽구석의 쇠물이 잘 끊지않아 원인을 알아본즉 전극 하나가 애를 먹이고있었다. 당장 불길과 연기가 룡트림하며 솟구치는 로천장으로 강형권이 달려올라갔다. 생각처럼 전극이 순조롭게 뽑혀나오지 않았다. 지겨운 순간순간이 흘렀다. 옷자락에 불이 달리고 살이 익어나는듯했으나 강형권은 물러서지 않았다. 자기 몸에 화상을 입는 것보다 시간이 지체되어 일이 랑패를 볼가봐 겁났

다. 그래서 전극을 뽑아 제자리에 바로세울 때까지 그는 한순간도 불과 연기 속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한두식로장의 영웅적위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온몸을 불속에 맡기고 끝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낸 강형권로장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발휘한 위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그 순간에 우리 모두 7호로도 일을 잘해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는 영광을 꼭 성취하기를 바라던 한두식로장의 절절한 부탁을 생각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의 과제를 맡아 해내는것을 그이를 모신것으로 여긴 우리들이어서 금시 그 어떤 엄혹한 일이 닥친다 해도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전극이 말썽을 일궈 좀 난통을 겪은건 사실이지만 일은 통털어 잘되었습니다. 신바람나서하는 일이 잘 안될리 없지요. 제가 이렇게 못나게 손이랑 화상을 입은것은 전적으로 부주의한탓입니다.》

이렇게 그는 내가 은근히 기대한 그 얘기를 별다른것으로 스쳐버리었다. 제 자랑에 몹시도 린색한 사람이었다. 이야기는 계속했으나 그 얘기는 아니었다.

《쇠물을 끓이는 우리 일에서 제일 힘든 때가 전극연결시와 제진작업때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쇠물을 끓이는 때보다 주물형타에 쇠물을 부어넣은 다음 탈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겪어야 하는 정신적부담이 더 힘들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어낸 제품이 합격되느냐 못되느냐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흘린 땀의 가치가 평가되니깐요. 정말 하루가까이나 기다려야 하는 탈개시간이 백년맛잡이로 길게만 여겨집니다.》

×

강형권은 잠만 생기면 자연 그 엄청난 크기의 형타가 길게 누워있는 조피장으로 발길이 끝렸다. 자신들이 한 일이 기원하는대로 잘되었는지 하는 걱정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밥맛도 없었다.

오후시간이 퍼그나 지나서였다. 얼마 안있으면 형타를 탈개하게 된다니 더욱 마음이 조급해졌다.

또다시 조피장으로 간 강형권은 형타의 건너편에서 사람은 보이지 않고 두사람의 말소리가 들리기에 의아해서 걸음을 멈췄다.

《교관아바인 이게 자신있어요?》

7호로의 막내이인 허성민이가 걱정예 차서 묻는 목소리였다.

《암 그러잖구. 7호로사람들의 깨끗한 마음이 한테 녹아든건데 어련할라구.》

리성춘교관아바이의 자신만만한 대답이다.

《난 이게 성공못하면 건디여낼것 같지 못해요. 어제밤 꿈에 글썽 이게 부원료가 지내 많이 투입돼

서 불합격이 됐다잖아요... 마음놓이지 않아 공장에 나와보기까지 했다니깐요.》

(그래서 저 친구가 새벽에 얼굴이 수수떡이 돼서 나왔었군. 그리구두 날 만났을 때 뭐 작업장에 두고 온게 있어 왔었대구?)

강형권은 대견스런 허성민을 꼭 껴안아주고싶은 충동이 일었다.

교관아바이가 한바탕 꺾꺾 웃고나서 말을 이었다.

《원 방정맞은 꿈도 다 있겠다. 마음 꼭 놓아라. 모두들 로에 어버이수령님을 모신 심정으로 해낸 일인데 틀림없다.》

《교관아바이가 그렇게 자신있어하니 나도 마음놓여요. 하긴 시료분석치가 만점인 쇠물을 부어넣었으니깐요. 교관아바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는데서 앞장서서 일을 잘하면 언제인가 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7호로에 오실거예요. 야 정말 그러면 신설로여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는 영광을 못지닌것을 그처럼 안타깝게 여기던 한두식로장의 소원도 성취되구... 우리모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 그래-참 성민이두 이제 제법 쇠물맛이 나게 말하누만, 다 자랐어.》

《그러나 교관아바이, 난 이게 잘못되기만 하면 우리 7호로에서 물러가겠어요. 무슨 체면으로 그냥 여기서 일해요. 어버이수령님을 생전에 한번도 모시지 못한 로에 그이의 유훈도 똑똑히 받들지 못한로... 사람들이 얼마나 깔보겠어요. 생각만해도 막 미칠것 같아요.》

강형권은 가슴을 한대 되게 얼어맞은듯싶었다. 머리가 퉁 내돌리었다. 숨이 차올랐다. 허성민의 말이 백번 옳다. 정말 이게 성공 못하면 7호로는 완전히 파멸이라고 생각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공장기술일꾼들이 조피장으로 모여들었다. 형타의 탈개시간이 된것이다.

강형권은 어쩐지 그리로 가기가 두려웠다. 꼭 심상찮은 일이 벌어질것만 같은 불안감이 가슴을 옥죄었다.

그는 현수복반장과 함께 자기네 로의 출강구옆에 무저있는 부원료무지우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웠다. 《로장동무, 불 좀.》

새로 만 손가락같이 굵직한 담배를 입귀에 문채 강형권의 손에 들린 담배를 뺏는 현수복의 손은 덜덜 떨고있었다. 몹시 긴장해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의 발치에 담배꽂초가 하얗게 널린것을 보고 강형권은 한숨을 지었다. 자기 발치에도 매한가지였다.

탈개가 끝나자 사람들이 주물품가까이로 모여들었다. 강형권은 숨이 멎는듯하다. 땀이 빠직빠직 났다. 금시 심장이 귀밑으로 튀어올라 뛰는듯싶었다.

그런 숨가쁜 한동안이 흘러 질관리지도원이 사람

바자를 꺾어내고 나와 강형권네를 띄어보더니 막 손을 흔들었다. 무엇이냐고 웨치는듯싶었지만 로가 끓어대는 소란스러운 동음에 삼키며 입눌림만 간신히 띄었다.

이쪽에서 튕겨나듯 일어섰을뿐 아무런 반응이 없자 질관리지도원은 손나팔을 해가지고 소리쳤다.

《성공이요! 성공...》

《아, 성공이라누만!》

현수복반장이 두눈에 눈물이 글썽해서 강형권을 와락 그러안았다. 잔뜩 활시위처럼 팽팽해있던 강형권은 긴장이 풀려서인지 자칫하면 쓰러질번했다.

순간적인 감동의 복받침으로 해서 모두가 어리둥절해있는데 누군가의 흐느낌소리와 같은 목멘 부르짖음이 터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한동안 만세의 함성이 1강철직장과 조피장안을 들었다놓았다.

《로장동무, 우리의 성공을 두고 가장 기뻐해주실 어버이수령님께서...어버이수령님께서 아...》

현수복이 로장의 가슴을 껴박고는 털썩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소리내어 울었다.

강형권도 가슴이 무너지는듯한 허탈감에 지쳐서 휘청거리었다. 두눈뿌리가 쿵 쑤서났다. 어쩔새없이 복받치는 눈물을 주먹으로 훔쳐대는데 언뜻 백양나무의 우듬지가 눈길을 잡아끌었다. 푸른 하늘이 한가득 비껴든 넓은 창유리너머로 거연히 솟아 설레이는 백양나무가 놀라움게도 갑자기 더 높이 자라오르고 더 세차게 설레이는것 같았다.

부지중 주물형타에서 나누던 교관아바이와 허성민의 말이 글자처럼 생생히 떠올랐다.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정말 《쇠물맛》이 나는 그들의 말이 백번 옳다는것을 저 백양나무의 싱싱한 설레임이 명백한 진리로 깨우쳐주는듯싶었다.

그렇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계시어 어버이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것이다!

그는 복받치는 충동을 견잡지 못하며 흐느껴울고 있는 현수복의 어깨를 짚었다.

《반장동무, 저 백양나무가 설레는걸 보시우. 우리가 처음 해보는 일을 멋지게 성공시켰다고 막 기뻐해주고있소!》

할 말은 많았으나 너무도 가슴이 벅차올라 그도 그만. 오열의 보폭을 이겨내지 못하고 현수복의 어깨에 얼굴을 비비며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

이야기를 마친 강형권로장의 두눈은 벌겋게 짓물렀다. 몹시 흥분된것 같았다.

어버이수령님께 기쁨과 만족만을 드리는데서 인

생의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을 간직해온 우리 인민의 고상한 생활흐름이 조금도 변치 않고 더 열렬해지고 뜨거워졌음을 새삼스레 절감하는 나의 눈시울도 후덥게 달아올랐다.

주체조선의 위대한 시조이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통성번영을 위해 심장의 고동을 멈추시는 마지막순간까지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며 남기신 영생불멸할 유훈을 한생의 가장 영예로운 혁명과업으로 여기고 깨끗한 량심과 도덕적의리로 관철해나가는 우리 나라!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조국에서만 볼수 있는 수령과 인민의 이 혼연일체!

그 위력한 힘으로 영원히 전진할 이 나라의 력사와 더불어 백양나무는 천년만년 더욱 무성하게 푸르러 세차게 설레일것이다!

...

누군가 숨가빠 달려와 강형권로장을 찾는바람에 나는 감동의 깊은 심연에서 깨어났다.

키가 쭉 빠지고 호리호리한 그리고 동그란 얼굴에 두눈이 천연스러운 애 어린 청년이 자그마한 입이 뽀로통해서 서있었다.

《로장동진 정말 한심해요. 직장장실에서 지금 로장들의 협의회가 시작됐다고 빨리 찾아보내라고 독촉인데 태평무사해서...》

로장도 웃고 나도 웃었다. 우리가 태평무사하게 심심풀이얘기나 나누는 사람들로 보인것이 우스웠다.

《작가선생, 이 동무가 우리 7호로에서 제일 막내가지만 늘 《쇠물맛》이 나는 소리만 탕탕 하는 그 허성민입니다. 장차 우리 로를 믿음직하게 지켜갈 래일의 주인감이지요.》

그와 인사를 나누면서 나는 얼핏 떠오르는대로 그래 지금은 7호로를 뜰 생각이 날 때가 없느냐고 물으려다가 그만두었다. 믿음직스러운 청년의 마음을 공연히 기분잡쳐놓는것은 좋지 않은 일같아서였다.

《무슨 협의회래?》

로장이 불었다.

《아마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의 뜻으로 되는 새로운 대상설비를 부어야 할 일감때문인것 같아요. 벌써 로장들이 서로 자기네가 하겠다고 승벽이 보통 아닌것 같아요.》

《엉?!... 그런데 왜 이제야 알려?》

로장이 헤덤비며 일어서는 서슬에 무릎에 놓였던 담배주머니가 아까운 독초가루를 흘리며 나뒹굴었다.

《그러나 너무 긴장할건 없어요.》

원불에 귀여운 보조개를 파며 청년이 생글 웃었다.

《진짜지 아마 이번엔 일감이 넉넉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7호로야 전번일도 멋있게 성공했는데 응당 또 맡겨줄거예요.》

《허참, 떡심 좋다구야.》

손가락으로 청년의 안장코등을 툇겨주고 로장은 솔뚜껑같이 큰 손을 나에게 내밀었다.

《작가선생, 아마 오늘은 이만해야 하겠군요. 안됐습니다.》

나는 머리를 저으며 그의 등을 밀었다.

《어서 가보시오. 어찌하나 들배지기를 떠서라도 또 그 일을 7호로가 당기기를 바라오.》

로장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일감이 넉넉하다니 좀 마음이 놓입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몹시 긴장됩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의 뜻을 받드는 일에서 어찌나 모두 승벽이 센지

이번에도 우리 7호로에 차례지리라고 장담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맞서봐야지요. 길고 짧은건 대박야 하지 않습니까.》

강형권로장은 온통 저녁노을속에 휩싸여버린 사무실쪽으로 바쁜 걸음을 놓았다.

순간 나는 조선화 《강선의 저녁노을》이 신비하게 현실로 재현된 감동적이고 정서적인 화폭을 보는듯싶은 심정에 사로잡혔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강선로동계급의 변함없는 충효일심의 뜨겁고도 열렬한 기상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장엄하게 불타는 강선의 저녁노을속에서 키높이 억세게 자라오른 백양나무가 세차게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9 총폭포 외1편

(총련) 박주명

총암은 하늘에 닿고
폭포는 땅에 드리워
절경의 으뜸을 자랑하는
9총폭포야

너를 보려 숨가빠 올랐건만
올라와 짓든 사연 들으니
힘든 생각 없었던듯 사라지고
목메이게 차오르는건
오직 하나 고마운 생각뿐

이 길 열어주시려
비내리는 덩불길 헤쳐주신분
그분의 은정 총총에 어리어

폭포는 거리도 총총 아름답구나

폭포의 아득한 높이에 오를수록
폭포보다 더 높이 솟아나는건
더 잘 모시리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천세만세 모시고 따르리
절절히도 뜨거운 그 한마음

9총폭포야, 많고많은 아홉총
그것을 뵈으며 내 알았네
아름다움에도 뜨겁게 느껴지는 아름다움이
있음을

서곡폭포

절승절경의 묘향산
깊은 계곡을 탄성속에 오를 때
처음 맞다든 서곡폭포앞에서
그것이 폭포의 서곡인줄
내 미처 몰랐네

무릉폭포 은선폭포 다 지나
일만폭포 다 보인다는
만폭대에 올라서야
서곡폭포의 그 뜻을 내 알았네

저마끔 장엄하고 아름다운
총총 폭포의 계곡에
울리는 노래는 천만가지여도
하나같이 울리는 음향은
이 절승 이 절경 인민에게 안겨준
고마운 당의 은정에 드리는 감사라고
서곡폭포는 서곡으로 읊조렸구나

(필자는 총련 조선대학교 문학부 학생임)

맹산을 길들인 사람들

로창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맹산군의 모범을 따르자는 구호도 내놓고 그 모범을 적극 따라배우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자력갱생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우리 당의 혁명적경제전략관철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맹산군을 찾아가는 우리에게 한겨울의 날씨도 추위를 양보해주어 한결 푸근하였다.

맹산땅의 관문이라고 부르는 이슬아치고개에 오르니 멀리 북창지구와는 대조되는 전경이 안겨왔다. 놀라움속에 고개를 내리는 우리를 군당의 한 일군이 맞아주는것이였다.

《먼길을 왔는데 인사도 나눌 겸 여기서 좀 쉬었다 가지 않겠습니까?》

그는 우리에게서 피로의 기색을 엿보았는지 이런 권고부터 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우리의 피로는 씻은듯이 없어졌다.

앞에 펼쳐진 읍소재지의 전경이 자꾸만 마음을 끌어가고있었다.

《휴양지에 온것 같아 피곤이 날아났습니다. 어쩐지 걷고만싶구만요.》

우리가 일군은 재촉했다.

살구나무를 심어놓은 아스팔트 포장길에 들어서니 도시의 한 구획에 들어선 기분이었다.

《이 도로를 따라 우측에 있는 덩지 큰 집들이 문화기관이고 봉사망들입니다.》

평양의 청류관을 련상시키는 국수집이 눈길을 끄는가 하면 수백척의 관람석을 가진 체육관에서는 인기있는 경기장면을 한창 볼수 있을것 같았다. 창광원식목욕탕이며 학생소년회관에서 울려나오는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수정천련못우에 은은히 퍼져 흐르는듯싶다. 읍중심을 흐르는 유유했던 맹산강의 물결을 보니 얼마나 인상적인지.

평양의 보통강기슭을 여기서 보는것이 아닌가.

《여기는 휴식일이면 사람들이 제일 흥성거리는 곳이지요.》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는 샘물이 가볍게 흐느적이는 호수안에는 아름다운 칠색송어가 떼지어 놀고있었다. 산골에서 보게 되는 특이한 풍경이라고 할가.

모든것이 산뜻하게 느껴진다. 돌, 돌의 조화라고 한다. 함수석미장으로 단장된 크고작은 건물들, 제방을 쌓고 포석을 한 형형색색의 돌들.

어느것이나 다 자랑거리였다.

105메터나 된다는 궁룡식《수정다리》가 강물우에 무지개처럼 넘여났는데 강 건너엔 농촌마을모습이 비껴있었다.

아담한 향풍식살림집들이 규모있게 들어앉은우에 다락을 지어 넘어간 밭들에선 처녀들의 노래소리가 울려오는것 같았다. 눈에 뜨이는 모든것이 그림처럼 안겨들어 꼭 휴양도시에 온것 같이 느껴진다.

도시 부럽지 않은 산중의 《도시》, 이런 산골에 이처럼 변화한 도시가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할수 있으랴.

우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산밖엔 보이는것이 없어 〈맹산〉이라고 불리우던 고장에서 도시의 한 모습을 보게 되니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고장의 유래를 알고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말을 뱉다.

《기자동무들도 역시 산이 많아 맹산이라고 부르는줄 아시는 모양입니다. 하기가 이고장 사람들도 산이 험하고 많아서 그렇게 부르는줄 알았지요.》

일군은 한스럽게 불리우던 지난날의 이름과 함께 이곳 사람들의 어제날 처지도 들려주었다.

여기엔 단 두채의 2층건물이 고작이었고 통강냉이를 삶아 담은우에 흰쌀밥 한벌 썬 고깔밥이라도 조상들의 묘지에 놓아보려고 호미로 뚜저 벼를 심었다고 한다.

이 산골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고이는 눈물을 닦을념을 못한채 우리가 흥에 겨워 넘었던 그 고개를 넘군했다는것이였다.

《이슬아치란 그래서 붙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고개로 맹산의 자랑과 기쁨이 넘어가고있습니다.》

하나의 령마루에 판이한 두 생활이 얼마나 깊이 새겨져있는것인가.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도시부럽지 않은 락원으로 꾸러놓은 그들의 노력을 헤아려보게 되였다.

《천지개벽을 했지요. 우리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향도의 해발아래 우리 맹산은 제 이름도 다시 찾았고 이 꿈같은 현실도 이 땅우에 펼쳐수 있었습니다.》

그는 감격에 겨워 못잇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인 1972년 9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불고불한 산골이를 에돌며 길아닌 길을 따라 이곳을 찾아주시였다. 수려한 산발들을 이윽히 둘러보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맹산은 예로부터 소문난 고장인데 왜 맹산이

라고 부르는지 아는가고 물으시었다.

그들은 제 나름으로 자기의 억측과 들려오는 풍설들을 아는데로 말씀올리었다. 그들이 올리는 대답을 재미있게 들어주시던 그이께서는 물론 이고장에 산이 많은것만은 사실이라고, 그래서 옛날봉건통치배들은 이런 산골에 정배살이를 많이 보내기도 했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맹산의 유래는 그렇지 않다고 일군들을 일깨워주시었다. 그이께서는 맹산이라는 맹자는 만이라는 뜻이라고 하시면서 많은 산들가운데서 만아들벌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부른데서 생긴 이름이라고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었다.

《얼마나 명석한 가르치심입니까. 글썄 여기에 오래 살았다는 사람들조차 제고장 자랑을 하기는 고사하고 이처럼 뜻깊은 이름을 한스럽게만 알고있었으니... 그날부터 우리 맹산이 제 이름을 찾았던말입니다.》

우리는 허황한 선입견으로 외웠던 이름이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다.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이날 우리 군의 실태를 하나하나 료해하시고 산골군의 특성에 맞게 군을 꾸리고 제힘으로 잘 살아나갈수 있는 방도까지 가르쳐주시었습니다.》

군당일군은 그날의 걱정을 가라앉히듯 이윽도록 말이 없었다. 우리의 가슴도 후덥게 달아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산골사람들에게 제일 그리운것이 흰쌀밥이라고 하시면서 밭가운데 널려있는 집들을 모두 한곳으로 옮기고 땅을 얻어내어 강을 끼고있는 좋은 조건에 맞게 논으로 풀어 벼농사를 지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또한 산이 많기때문에 산을 잘 리용하면 벌방지대사람들보다 더 잘 살수 있다고, 군을 잘 꾸리면 아주 리상적인곳으로 될것이라는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지난날 외래침략자들을 쳐물리치는 투쟁에서 만아들구실을 잘하였다는 맹산이라는 뜻에 맞게 벌방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오히려 앞서나가야 한다는 크나큰 담력과 믿음까지 안겨주시었다.

친애하는 그이께서 다녀가신후 수천년 잠자던 맹산의 산과 골이 뚫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이의 높은 뜻을 꽃피우기 위하여 떨쳐나섰다. 그들은 도랑처럼 메달렸다가도 장마때면 골짜기마다에서 쏟아져내리는 큰물로 해서 폭을 불구어 범람하는 맹산강의 합수목을 크게 확장하고 여기저기 골을 패우며 무질서하게 흐르던 여윈 물줄기들을 하나로 합쳐 강폭을 넓혔다. 강바닥의 좋은 땅을 위해서 수천년세월 변함을 모르던 강줄기를 돌려놓았고 이고장에 혼한 돌로 틈을 쌓아 장마때면 논밭을 쓸어내던 강물을 길들여 거기에서 수백정보의 기름진 옥답을 얻어냈다. 달구지도 빠지기 힘들던 산길을 넓히고 벼랑을 깎아 도로를 뚫었다. 주변의 모든 야산들에서는 돌부리를 취내고 직심스레 걸구어 뽕밭을 조성했고 밭가운데 여기저기 널려있던 집들을 헐어

버리고 산기슭에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을 들어앉히었다. 또 산밭을 톱으며 세멘트원료를 찾고 탄맥을 발견하여 세멘트공장과 탄광까지 꾸려놓았다. 그들에겐 네일 내일이 따로 없었다. 한사람처럼 달라붙어 우리 마을, 우리 고향을 더 잘 꾸리기 위해 제머리로 설계를 하고 시공도 했으며 건설도 제힘으로 했다.

뜨는 해를 다락밭에서 맞고 지는 달을 건설장에서 보내며 그들이 10여년동안 간고분투한 한치한치의 성과가 오늘의 현실로 이렇듯 훌륭하게 펼쳐진것이다. 이 나날은 결코 자연만을 다스려온 날이 아니었다. 이들의 하루하루는 오랜 세월 부대기로 켜들어온 산골사람들의 생활방식을 털어버리고 제힘을 믿고 자력갱생하는 인간으로, 간고분투하는 투사로 자라는 인간성장의 나날이었으며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을 보여주는 투쟁의 나날로 되었다.

《우리 맹산사람들은 저 구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천으로 체험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군이 가리키는곳으로 눈길을 돌렸다. 병풍처럼 둘러선 옥녀봉과 감투봉의 운무가 걷히는 장쾌한 모습속에 봉우리에 새겨진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자력갱생》의 구호가 뚜렷이 안겨왔다.

우리 인민의 신념과 실천이 집약된 저 구호, 온 나라 어디서나 불씨가 되고 열풍이 되어 《속도전》의 거세찬 불길을 지퍼주는 힘있는 글발을 이곳에서 보게 되니 더더욱 그 의미가 깊어졌다.

《일을 많이 한 혁신자들을 만나면 좋은 이야기가 많겠습니다.》

우리의 제의를 심히 난감한 표정으로 대하던 일군은 맹산사람들은 자력갱생이 생활방식처럼 되어 있기때문에 누구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될수 있다는 것이었다.

《군을 돌아보노라면 찾게 될겁니다.》

우리가 찾는 대상은 어디서나 만날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단순하기만 했다.

《제힘을 믿고 무조건 하겠다는 결심만 가지면 되지요.》라거나 《우리 맹산사람들에게는 무서운것이 없지요.》 하는 군은 신념이 어린 말들이 거침없이 흘러나왔다.

우리가 읍소제지의 끝에 이르니 벌을 마주한 큰건물이 눈에 띄었다. 저기선 무엇을 하는가고 물으니 일군은 제먼저 앞서면서 이끄는 것이었다.

《들어가봅시다. 군농기계작업소인데 여길 두고 하나의 종합직장이라고도 합니다.》

구내에 들어서니 ㄷ자형의 길다란 건물로 막히운 마당안에는 수리를 받는듯한 트럭트럭며 자동차들이 여기저기서 산발하는 용접후광에 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제재기에 먹히운 아름이 넘는 통나무들이 미끈한 합판이 되어 쌓여지고있었다. 안에서 울리는 절삭기계들의 동음으로 건물은 가볍

게 진동하는데 큰 기계공장의 공무직장을 연상시키는 광경이었다.

한개의 불도젤작업반이 이렇게 크게 확장되었다고 한다.

《저 동무를 만나보십시오.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꾼이 소개한 사람은 이곳 불도젤작업반의 리봉운반장동무였다. 고문격으로 일하고있는 그는 숨은 공로자라는 자랑스러운 칭호를 지니고있었다.

한동안 기다려서야 용접공에게서 물러난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잔잔한 성미일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펍 시원스러운 사람이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이지만 혈색이 좋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어서 아바이라고 불러야 할지 동무라고 불러야 할지 상대방이 실수하기 쉬울것 같았다. 열정적인 성격이 인차 우리 마음을 끌어당겼다.

《산골사람이 아닌것 같습니다. 여기 태생이 아니겠습니까?》

육감적인 우리의 물음에 그는 《옳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젠 여기처럼 정든곳이 없습니다. 오래 살아가서가 아니라 내가 바친 땀이 맹산땅 어디나 스며졌으니 여길 떠나선 하루도 못살게 되었지요.》 하며 도시에서 살다가 이곳에 뿌리내리려 찾아오던 이야기로부터 자기 소개를 해주는것이였다. 젊은 때에는 노래까지 잘하는 패남아여서 처녀들의 눈길을 끄는 총각이였다고 제 자랑을 섞어가며 그는 맹산을 다스리던 그날의 일들도 옛말처럼 들려주었다.

그들이 개간의 첫날을 박을 때는 농촌토지건설을 위하여 나라에서 보내준 석대의 불도젤이 기둥이였다. 산천을 길들이는 거창한 일이여서 어디에나 트랙트와 불도젤이 필요했다. 그러나 설비는 그것뿐인데 게다가 운전할줄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용접이나 겨우 하던 그가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기양과 구성의 기계공장들을 찾아다니며 부속을 쥐고 운전법을 익혔다. 어디에 폐기된 불도젤이 있다면 그리로 달려가 보았다. 운전한것이라고 불은것은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끌어다가 깎고 맞추고 몰아보고... 낮에는 선반기앞에서, 밤이면 운전법과 구조성능을 파악하느라고 시간가는 줄 몰랐다. 이렇게 불도젤 한대한대를 조립하고 익혀나갔던것이 무려 7대로 불어났다.

산을 깎고 강줄기를 돌려가던 그때는 때식이 어느 시간에 있는지 잊고 일했다. 발을 넓히고 눈을 푸느라 팔과 다리, 신경이 그대로 한줄에 매인것처럼 되어 차를 몰았다. 늦은 밤에야 차에서 내리면 그저 모든것이 흔들거릴뿐이여서 걸음을 옮길수 없었다. 어떤 날에는 그대로 굳어진듯한 몸때문에 차우에서 내릴 힘이 없어 다른 사람의 등에 업혀서야 내려서곤했다. 밥그릇을 마주하고서도 그것을 밀어버리고 잠부터 들곤하였다.

그가 해주는 이야기는 꼭 소설의 대목을 듣는것 같았다. 그들의 수고가 뜨겁게 헤아려졌다.

《우리 힘으로 조립해놓은 저 불도젤들이 맹산을 다스리는 큰 일을 했지요. 얼마나 큰 재산이였는지 모릅니다. 우리 맹산에 저 차의 동음이 울리지 않은 곳은 없지요.》

그는 정비를 하느라고 무한궤도를 풀어놓고있는 차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것이였다.

위훈이 새겨진듯 사슬마다는 강쇠가 무디어진 부분이 은백색의 맑은빛을 뿜고있었다. 산을 떠밀고 용을 쓰던 무쇠발굽이 자연을 길들인 맹산사람들의 기상처럼 느껴졌다.

《그러니 반장동무가 첫날을 박은 때부터 이 골안에 움직였겠습니까.》

수고를 헤아리는 우리의 말에 그는 어울리지 않게 쓰고있던 채양모자를 벗어들고 만지작거리며 얼굴을 붉혔다.

《뭐 그리 큰것이라고 그럼니까... 시작이 더 중요하지요. 우리야 엄두도 못냈던 일이 아닙니까. 우리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신심을 주시고 방도를 가르쳐주시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는 신세타령만 했을겁니다.》

옳은 말이였다. 이끌어주는 향도의 손길을 따라 신심드높이 나가는 이들에게 무서운것이 있었으랴. 뚜렷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확신할 때 그 힘은 백배 천배로 강해지는것이 투쟁의 법칙이 아니겠는가.

《그 벅찬 순간순간들에 체험도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류다른 인간성격들을 찾을수 있을것 같아 은근한 기대를 가지고 물었다.

《체험이라면 그저 한가지뿐이지요. 우리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한다면 된다는것, 당에서 요구하는데로만 하면 무조건 할수 있다는것입니다. 말하자면 당정책이 우리의 열쇠라고 말할수 있다는것입니다.》

물음의 의도와는 달랐지만 그야말로 중요한 체험담을 들은것이였다. 얼마나 신통한 생활체험인가.

그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뜨거운 사랑이 이 깊은 산골에도 어리어 산열매나 따들이고 부대기에나 매여살줄 알던 사람들이 자연을 길들이는 주인으로 자란것이다. 진정 그이의 품에 안기면 사람도 산천도 모든것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인민은 어디서나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자!》는 신념의 구호를 부르고있지 않는다.

그의 얼굴에는 숙연한 빛이 어리였다.

《이처럼 천지개벽한 꽃피는 맹산땅에 어버이수령님을 모시려 했는데... 우리는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려놓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꼭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날을 앞당기자고 다들 더 힘을 내어 일하고 있지요.》

그의 말을 이어주듯 평지리의 새땅찾기전투장에서 이곳 작업반원들이 울리는 불도젤의 발동소리가

힘있게 울려오고있었다.

《논을 300정보나 더 풀려면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1,000정보의 벼농사를 예견한다는 군당 일군의 말이 떠올랐다.

《물론 힘들겠지요. 그러나 당의 요구가 아닙니까. 얼마든지 해낼수 있습니다.》 하고 그는 벌써 그것을 확신하는듯 입가에 가볍게 미소를 띄운채 우리를 바라보는것이였다.

그렇다,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가 있고 당의 결정을 관철하려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만 있으면 그 어떤 난관도 시련도 뚫고나갈수 있다.

내세운 목표가 아무리 높고 가야 할 길이 험해도

이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그런 정신, 그런 투지로 일해나간다면 반드시 승리의 봉우리에 오를수 있다는것을 우리는 맹산사람들의 심장과 심장에서 더 깊이 느낄수 있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본보기고장.

우리 당이 내세운 이들의 모범이야말로 누구나 본받아야 할 기질이며 투쟁기풍이라는 확신이 더욱 굳어지는것이였다.

우리는 맹산땅에 펼쳐진 자랑스러운 현실에서 자력갱생의 불길이 온 나라의 곳곳에 지펴져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보람찬 투쟁으로 뚫어번질 완충기의 우리 조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는것만 같았다.

교훈시

바 늘 외 1 편

문동식

실을 꿰려 바늘을 손에 드니
세상떠난 어머니 얼굴이 떠오른다
밝은 전등아래서도 실을 못꿰여

《애야 이걸》
바느실을 나에게 주시던 어머니

내 오늘 바늘쥘고 어린 딸을 찾는다
《애야 이걸》
어머니가 하던 그 말을 내가 한다

인생이 실처럼 긴줄을 알았더니
지나보면 바늘처럼 짧은것이 아닌가

작은 바늘에 실을 꿰고 못꿰이
짧고 늙음을 다 말해주거니
길지 않은 인생길에 내 몸도 바늘처럼
시간과 분과 초를 촛촛히 누비며
빈자리없이 살아야 하리
삶의 자욱자욱 빛내가야 하리

흰눈을 맞으며

눈송이
흰눈송이
고요히 내리네
내 머리에 하얗게 덮이네

눈을 털면
다시 검은머리
그래도 내려와 덮이는 눈송이
언젠가는 내 머릿도 백발이 되려니

먼 후날
녹지 않는 흰서리 쓸어보며

살아온 뒤가 비어있음을
아픈 마음으로 후회한다면...

손으로 털수 없고
해빛도 못죽일
흰서리 내 머리에 덮이기전에
서두르며 땀흘리며 일해갈 마음뿐

그렇게 살 때
세월의 흰눈은 내리고내리여도
조국의 추억속에 위훈으로 빛나는
나는 청춘으로 백발을 모르리

땅에 대한 이야기

김정곤

땅과 할아버지

분여지의 흙을
두손 모아 부비며
이랑에 뚫어엿디여 일지 못하던
할아버지입니다

땅에 무슨 발이 달렸다고
한밤중에도 토방을 내려
두엄지게 논둑에 세워놓고
밟아보고 만져보고
젖애기처럼 도닥여주던 할아버지입니다

땅을 밟아 땅처럼 과묵한 그 성미
세월도 풀길 없는가 했더니
애국미 싣고 싸리고개 넘던 날엔
재넘어 굴러가는 할아버지 농부타령에
멍에채도 소잔등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땅은 할아버지 온 삶이었습니다
심장에서 뿜는 혈맥 한끝이
이랑이랑에 뻗어
끊어지면 숨지는 명줄이였고
다치면 간지럼도 타는
살붙이었습니다

어느 하루아침
논둑을 짓뭇개는 미국놈 땅크앞에
가슴 풀어헤치고 바위처럼 치솟던 할아버지
흉탄 열두발이 심장을 헤집어냈어도
마지막숨결을 모아
한치한치 땅을 쓸어안고
전장으로 떠나보낸 아들을 부르며
마지막으로 토한 그 불의 토막토막...

《아들아
땅을 지켜라
땅을 잃으면
상가집 개가 된다!》

...이따금
나는 생각합니다
훈풍에 이삭들이 누울 때면
혹시 할아버지 입김이
이파리들을 흔드는것이라고...

아아! 땅우에
할아버지는 숨졌어도
그 숨결은 땅에 남아
땅은 늘 숨쉬고있는것입니다

땅과 아버지

할아버지가 담아준 흙쌈지를
배낭 밑굽에 넣고
아버지는 락동강도 넘고
1211고지에서 싸웠다

《한치의 땅도 내여주지 말라!》
할아버지의 넋이 날아와 불붙는듯
부서진 바위에 공병삽날로 새긴 글발을
목숨으로 담보하며
피로써 사수한 이 땅

이 땅에

협동화의 봄이 무르익던 그날에도
아버지는 고지를 내리지 않았다
농촌테제의 대강도
전호에서 총을 불안고 읽었다

목숨과 바꾸고
진한 피로 지켜낸
이 땅
한치한치!

땅을 가꾸는 노래보다도
사수할 임무에 피가 뚫어

총을 놓을수 없었다
아!
농촌테제로 가꾸는 만발한 백화에
다시는 포먼지 앉지 못하게
다시는 파편조각이 이삭을 꺾지 못하게
군모로 백발을 감추며
지금도 소제대로 아침저녁
충신강을 닦는 아버지의 일과...

농사를 배우는 대학으로

비젓은 전호를 내릴수 없었다
나를 바래워주던 그 아침
아버지는 말없이
내 손에 놓아주었다
그 못잇을 흠뻑

《실농군이 되거라
땅은
아버지가 지킨다》

땅과 나

할아버지가 밟던 고향땅
이삭 설레이는 벌판을 거닐다가도
신문에 펼쳐진 동란의 땀 그 비극앞에
나는 주먹을 부르짖다

이 무슨 일인가
지구의 어느 구역에
협동화의 향기론 꽃이
때아닌 《개편》의 서리에 맞아
하루아침
떡갈잎처럼 흩어졌다는것이

이 무슨 일인가
할아버지 피로 찾고
아버지 피로 지친 땅을
그 자식들이
코종이처럼 췌버리고
딸라에 녹아 날라리바람에 허리를 꺾며
홀홀 자리를 털고 땅을 뜯다는것이

땅을 버리면
상가집 개가 된다고
땅을 떠나면
뿌리 뽑힌 나무라고
이 땅에 누운 고향들이
땅김을 올리며 피타게 토하고있는데

딸라가 뭐란 말인가
움켜쥐면
결레처럼 구겨지는것을

땅을 쥐여보라
구김살 하나 가는가

천만금을 내앞에 무저놓아도
아버지 군복실에서 넘겨받은
이 싹지의 흙 한줌과 어찌 바꾸며
하늘의 천도를 다 내려주어도
내 땅 꽃사과 한알과 어이 견줄수 있으랴

아아 땅
나는 이 땅의 주인
농촌테제의 해빛을 받아
이삭 무거운 대지의 설레이음을
세상 끝까지 파도치게 하고싶구나
그리고
난알을 삶아먹는 인류에게
다 말하고싶구나

부러워하라
변하는 계절에도
눈비에도
변색을 모르는 땅빛처럼
땅과 연분을 맺은 나!

위대한 농촌테제의 대강을 안고
태양아래 번창하는 나의 대지
쌀로부터 공산주의를 펼쳐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실농군
나를!
나를!

땅과 후손들

하늘밀엔
땅이 있다
땅우엔
우리가 살고
후손들이 살것이니

바다속엔

전설같은 《룽궁》이 있다 하라
하늘우엔
거짓말같은 《천당》이 있다 하라

우리는
오곡을 먹으며
땅에 살

팔자를 타고난 사람들

땅우에 천당은 어디 있는가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어제는 부모들이 씨앗을 묻고
오늘은 나와 후손들이 가꾸는
이 땅우에
우리의 천당이 있다

농촌테제송가

농촌테제의 마지막장을 접으며
나는 생각한다
위대한 대강의 굴줄을
우리 수령님 어디에서 시작하셨을까

별을 적시는
수리화의 물굽이 한끝인가
공장구내에서 이랑으로 흐르는
기계화의 장쾌한 음향에선가

오!
조상대대
하늘에 빌던 눈물겨운 기원과
땅에 엮여 일지 못하던
내 할아버지의 순박한 소원과
땅에 목숨을 건 그 운명들을

백화만발한 화원에 안아세우실
그 하해같은 사랑의 온기가
잡으신 붓에 젖어
굽이쳐 획이 되고 굴줄로 쏘아진것이니

날개가 없는 땅에
날개를 달아주셨다
다리가 없는 땅에
준마의 싱싱한 네굽을 안겨주셨다

땅이 나아갈 래일로
달려가라고
날아가라고
땅의 시원에서 그 종점까지
직선활주로를 열어주셨다!
아아! 농촌테제!

어느날엔가는 작별하리

김석주

어느날엔가는 우리도
청춘시절과 작별하리
그 아무리 아쉬워도 피로워도
《자, 헤어지세》 하고
청춘시절이 말할 때 있으리

그날 눈비에 함께 젖던 오랜 벗인양
전연초소에서
일터와 건설장에서
자기의 청춘시절이 혼장들을 번쩍이며
위훈의 꽃다발을 들고 찾아오리

하지만 빛도 생기도 없는 초라한 청춘시절이
작별의 인사를 나누려 올수도 있으리
일터와 공원과 책상 앞에서
미루고 허송한 많은 날들을
시들어버린 꽃처럼 묶어들고 오리

그제야 청춘시절에게
있어다오 기다려다오 애원한들 무엇하랴
지는 꽃을 붙잡아둘수 있으며
가는 봄을 되돌려세울수 있으랴
그것도 인생의 한시절인것을

흔히 생활에서는 벗과 작별할 때
《다시 만나세》 하고 말하건만
청춘시절과는 그렇게 말할수 없다데
귀중해도 다시 만날수 없는 벗이기에
《잘 가계》 하고 말할수 있을뿐

지금은 우리 그것에 대해 생각한적 없지만
어느날엔가는 작별하러 찾아오리
한시절, 자기 산 모습 그대로인 청춘시절이
그것은 보람과 긍지의 모습으로 오리
그것은 후회와 자책의 모습으로 오리

전인민적감정을 깊이있게 일반화한 맹세의 노래

-가요 《우리는 맹세한다》에 대하여-

리성덕

가요 《우리는 맹세한다》(황진영 작사, 작곡)는 위대한 수령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은 우리 인민이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고 위대한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려는 전인민적맹세를 웅심깊게 일반화한 완벽한 예술적형상으로 하여 나오자마자 인민들속에 널리 불리우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대를 선도하고 인민대중을 불러일으키는데서 혁명적인 노래가 노는 역할은 매우 크다.》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잃은 커다란 슬픔을 안고 통곡하던 우리 인민들이 그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고 노도처럼 일떠선 그 기상을 노래한 맹세의 노래를 어떻게 창작할것인가.

이 절박한 시대의 요구가 제기되자 작곡가 황진영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전인민적감정을 집약한 우리 시대의 명가사를 쓰고 곡을 붙여 세상에 내놓아 수천만의 심장을 격동시켰다.

참으로 가요 《우리는 맹세한다》는 격동하는 시대의 거세찬 지향과 수천만의 심장속에서 활화산처럼 끓어넘치는 우리 인민의 맹세의 감정을 훌륭하게 예술적으로 일반화하는데 성공한 시대의 명작이다.

이 작품이야말로 한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낀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고 할수 있다.

짧은 한편의 가사에 수령님을 잃고 땅을 치며 통곡하던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유혼 관철에로 일떠선 그 격동된 감정을 집약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가사를 쓴 작곡가는 분출하는 전인민적감정에서 가장 주도적인 감정을 골라잡고 그것을 종자로 하여 시적일반화를 솜씨있게 하였다.

작곡가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드림없이 간직된 그 신념이 무엇인가를 가려내고 그것을 종자로 내세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전에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완성하려면 문무중효를 다 겸비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령도하고있는

김정일동지를 잘 받들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혼대로 7천만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맥박쳐흐르는것은 오직 하나의 신념뿐, 그것은 우리 삶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운명의 수호자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천만년 높이 받들어모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신념과 의지이다.

수령님의 유혼을 받들어 주체의 사회주의 내 나라, 수령님을 민족의 영원한 어버이로 모신 내 조국을 더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떠선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곧 이 작품의 사상적알맹이로 되였다.

작곡가는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속에 신념과 의지로 굳어진 주도적감정,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뜻대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충효일심으로 받들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맹세를 그대로 민감하게 반영하였다.

맹세한다 우리는 수령의 유혼 지켜
더 굳게 다져가리라 불패의 당을
천백배로 뭉치여 나아가는 우리
위대한 당의 령도를 끝까지 받들리

가사의 1절에서 보는바와 같이 간결한 시형상속에 어버이수령님의 유혼대로 우리의 생명이고 미래인 불패의 우리 당을 더욱 굳게 다지며 그 길에서 우리 당의 령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무한히 충실하려는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뚜렷이 반영되어있다.

불과 4행밖에 안되는 간결한 시적구성속에 전민이 다지는 심장의 맹세, 위대한 령도자의 현명한 령도에 끝까지 충실하려는 전민의 불같은 신념과 의지를 뚜렷하게 집약한 여기에 시적일반화의 세련된 솜씨가 있다.

우리는 이 노래의 첫절을 부르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유혼을 관철하는데서 가장 선차적인 과업이 불패의 당을 더욱 굳게 다져가는것이고 그것을 위

해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령도에 끝까지 충실하여야 한다는것을 되새겨 보지 않을수 없다.

가사의 2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수행하여 이 땅우에 인류의 이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완성하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맹세가 《더 부강하게 하리라 내 나라 내 조국을》이라는 단 한줄의 시적표현으로 집약되어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위대한 심장의 고동을 멈추시는 마지막순간까지 부강하고 자주적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강국을 더 빛나게 건설하시려고 휘황한 전망을 환히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심으로써 자신께서 우리 인민을 위해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하기에 전체 우리 인민은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신 그 령도의 자욱 자욱을 감회깊이 더듬으며 어버이수령님의 필생의 념원을 찬란히 꽃피우려는 불타는 맹세를 다지게 되는것이다.

가사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혁명과 건설의 진두에 모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념원하시던 그 숭고한 뜻을 이 땅우에 기어이 실현하려는 위대한 맹세를 《더 부강하게 하리라 내 나라 내 조국을》이라는 통속적이고도 일반화된 시적표현으로 집약화하였다.

언제나 우리 인민모두가 평범하게 말하여 귀에 익은 소박하고 알기 쉬운 시적표현이 새로운 의미를 가진 전인민적맹세의 격정으로 안겨오게 한 여기에 이 가사의 세련성과 묘미가 있다.

하기에 우리들은 이 가사의 세련된 시적표현의 자자구구를 심장에 새기며 어버이수령님께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드리지 못한 자책감에 가슴을 치며 새로운 충성의 맹세를 다지는것이다.

가사의 3절은 1절과 2절에서 피력된 신념의 맹세를 무엇으로 담보하겠는가 하는 결사의 맹세로 더 높이 승화되고있다.

우리의 생명이고 의지이고 미래인 불패의 우리 당과 룡성변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려는 전인민적맹세의 감정을 《총대로 옹위하리라》라는 간결하고도 위엄있는 시적표현으로 집약화하고 높이 승화시킨 여기에 이 가사의 독특한 풍격과 의의깊게 개척된 새로운 경지가 있다.

가사에서 표현된 주체의 위업은 위대한 수령님께

서 개척하고 발전시키시였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계승하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 혁명위업이며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혁명적인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고귀한 혁명의 전취물인 사회주의가 기본내용을 이루고있다.

가사는 이러한 당과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려는 전인민적감정을 《총대로 옹위하리라》라는 독특하고도 위엄있는 표현으로 일반화함으로써 매우 커다란 인식교양적의의를 획득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포위속에서 계급적원썹들의 집요하고도 악랄한 공격을 물리치면서 우리 식 사회주의를 혁명적투력으로 믿음직하게 옹호보위하고있다.

이것은 정세발전의 추이로 보나 우리 혁명위업의 구체적실정에서 보나 가장 절실한 시대적요구로 나서고있다.

가사는 이러한 시대적요구를 《총대로 옹위하리라》라는 단마디명창으로 일반화함으로써 거대한 정서적위력과 인식교양적의의를 한껏 높이였다.

하기에 언제나 우리 공화국을 비방증상하는데서 앞장서군하는 일본의 《산끼이신봉》이 이 노래를 소개하면서 이 전투적인 시적표현에 깊은 관심을 돌렸던것이다.

이처럼 가사 《우리는 맹세한다》는 시대의 요구와 지향,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의 맹세를 함축된 간결한 시적표현으로 정서깊게 일반화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수행으로 우리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그들의 가슴마다에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이 가사는 그 형상에서 매 련의 첫 행과 후렴의 두 행을 변화시키지 않고 매 련의 둘째행만을 변화시키면서 자기의 형상과제를 훌륭히 해결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전에 다지는 전인민적맹세의 감정을 격조높이 구가한것으로 된다.

가요는 가사속에 체현되어있는 깊은 사상적내용을 음악적으로 훌륭하게 형상함으로써 전체 인민들이 그 어디서나 격조높이 부르는 시대의 명곡으로 되게 되었다.

우리 인민모두는 신념과 의지의 노래, 위대한 수령님의 령전에 다진 맹세의 노래 더욱 높이 부르고 당의 숨결로 심장의 고동소리를 더 높이며 새기적과 혁신의 창조로 우리 당과 사회주의조국을 빛내여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것이다.

속삭이고싶은 말 하고싶은 이야기

김재원

이 방에 생을 둔 사람이면
누구나 가슴속에 간직하고있어라
조국이며, 그대앞에
속삭이고싶은 말 하고싶은 이야기

참으로 평화롭고
한가한 세월이라면
인민의 가슴속에 품어넘치는 그 말
그리도 마디마디
진정에 넘치고 절박하지 않으리

바람세찬 세상천지 굽어보며
그대의 신상에 닿은 어려움
심장으로 깨달은 인민이기에
조국이며, 우리 인민은 한사람같이
어느때보다 그대와 더 가까워졌노라

얼마나 가렬치절한 혈전의 언덕을 넘어
얼마나 복잡다단한 사회주의초행길 헤쳐
그대 우리 인민을
오늘의 이 푸른 삶의 언덕우에
존엄높이 올려놓았는가

생각하노라 어머니 나의 조국이며
그대 남들보다 경제가 더 발전하고
그대 남들보다 돈이 더 많고 쓰고남아
남들먼저 인민 위한 무상치료 실시한것 아니고
11년제의무교육의 꽃대문 세운것 아니여라
세상 제일먼저 세금제도 없앤것도 아니여라

조국이며 그것은 인민을 위한
그대의 남다른 각별한 사랑!
잠에서 깨어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마음속에 감사의 꽃다발 엮고엮으며
그대의 그 은총깊은 사랑
생각지 않는 인민 이 땅에 있으라

땅을 가꾸는 농장원은 농장원들마다
그 생각으로 한포기의 곡식도 더 쓰다듬어 키우고
쇠물을 뽑는 용해공은 용해공들마다

과학을 탐구하는 지식인은 지식인들마다
총천 병사들은 병사들마다
그 한생각으로 충정의 가슴 끓이나니

아, 조국이며
그대 없으면
인민이 없고
우리의 생활이며 생명인
사회주의도 없는것

하기에 침략자들 이 땅에
열핵전쟁의 검은구름 해일같이 몰아오던
그 일촉즉발의 순간
그대 내린 단호한 명령을 안고
인민모두는 총폭탄이 될 결사의 각오로
앞을 다뒀 전선을 탄원해나섰고

그대 《우리 식 사회주의 총천군속도》 창조에로
전진과 비약의 기치 추켜들면
그 기치따라
전민, 전군이 자리차고 떨쳐나서거니

오오, 믿으시라
어머니 나의 조국이며
자식들이
낳아 길러준 어머니를 믿고 따르듯
우리 인민은 언제나 그대만을 믿으며
그대앞에 마음다해 헌신해감을
신념으로 의지로 간직한 인민이 아니더냐

향도의 우리 태양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이끄시는 내 나라!
그대를 따르는 그 한길에
더 좋을 래일이
아름다운 노을속에 명절같이 밝아오고
더 감미로운 생활의 노래
가슴마다 넘쳐남을 확신하고있나니
남들이 가다가다 중도에 물러앉은
그 광휘로운 인류리상세계에로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어머니 나의 조국이며

백두의 혁명정신, 전화의 그 투쟁정신으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기치 날리며
우리 인민은 끝까지 나아가리라

수필

그 길만이 인간자주의 유일한 진리의 길이고
그 길만이 다같이 자유로이 살사는
만민이 지향하는 참다운 삶의 길이기에

평양역 시계탑앞에서

머칠전 나는 취재길에서 돌아와 평양역에 도착하자 무심중 내 손목시계와 역사의 시계를 쳐다보았다. 신통히도 두 시계가 일치하게 정각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때를 같이하여 역안내실의 텔레비존화면에서도 열차가 9시정시로 도착하였다는 알림글을 비치고 있었다.

열차는 한초의 어김도 없이 평양역에 도착한것이다. 순간 역사의 시계가 온 나라 열차들의 정시운행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 어떤 표시기와 같이 느껴졌다.

아마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역사의 시계를 한참 려행하는 손님들에게 시간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놓은것으로만 생각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나는 역사의 시계를 무심히 대할수 없었다.

철도는 시계바늘이 돌아가듯이 정확하고 치밀하게 움직여야 한다. 철도에서는 문자 그대로 모든것이 시계의 치차처럼 맞물려 돌아간다. 만일 여기서 어느 한 고리라도 튀면 온 수송전선이 헝클어지게 된다.

평양역의 시계를 바라보는 순간 나에게서는 수송전사들의 미더운 모습이 선히 떠올랐다.

그중에서도 얼마전에 만났던 어느 한 역장의 모습이 더욱 생생히 안겨왔다.

내가 그를 찾아 양동역에 도착한것은 역시 아침이었다. 나는 취재과정을 통해 그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어느날이었다. 무사고정시운행을 위해 분투하던 그는 하루일을 만족스럽게 종화짓고 퇴근길에 올랐다. 저녁식사를 마친 그는 다시 역으로 나가 구내를 돌아보았다. 야간에 이렇게 돌아보는것이 습관으로 된 그의 일과였다. 늦어서야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든 그는 한밤중에 이상한 기적소리를 듣고 다시 잠에서 깨어났다. 잠결에 기적소리를 듣고서도 기관차의 병집을 대뜸 알아내는 그였다. 기적소리는 그 누구의 방조를 청하듯 안타깝게 연방 울렸다. 그는 용수철처럼 튕겨 일어났다. 창밖에서는 소낙비가 억수

로 쏟아붓고있었다.

(무슨 일로 열차가 떠나지 못하고 있는가.)

순간 그의 머리속에는 철도운전이 1분이라도 지체되면 창조와 건설의 전제도가 바뀐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우렁히 떠올랐다.

또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열차의 기적소리는 조국의 숨결이며 맥박이라고 하시면서 열차운행의 정시를 보장할데 대하여 주신 말씀이 안겨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철도에서 수송량을 늘이자면 모든 열차의 정시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하시였고 또 어느해에는 열차의 무사고정시운행을 보장하는 구절을 철저히 세울데 대해 간곡히 가르치시면서 《5. 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이밤도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달리는 모든 열차들이 무사고정시로 기운차게 달릴것을 바라라고 계시지 않는가.

그렇다. 열차운행을 잠시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열차를 정시로 달리게 해야 한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그는 작업복을 주어입고 창대같은 비속을 뚫고 역구내로 달려나갔다. 측함에 불이 당긴것이였다. 그는 더 생각할새없이 예비부속품창고를 열고 미리 준비해두었던 측함뚜껑과 실꾸리를 꺼내어 벌겍게 단 측함뚜껑을 떼버리고 새로 교체하였다. 그리고 열차를 정시로 떠나보냈다. 사실 이날밤에 일은 일시적인 충돌에서 한 소행이 아니였다. 지난 20여년간 역에서 일하면서 그는 열차의 정시운행을 두고 항상 마음을 놓지 못하면서 자기가 할 일이 아니지만 늘 화차에비부속품을 갖추어놓고 열차의 정시운행에 크게 기여해왔었다.

그는 발상에 마주앉았다가도 환자가 지나가는 소리가 나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철도시계를 꺼내어 열차가 정시로 달리는가를 알아보고서야 밥을 들었고 한밤중에 기적소리가 제시간에 울려야 마음놓고 잠이 들곤하였다.

바로 이런 그였기에 이날밤도 억

리동성

수로 퍼붓는 비속을 뚫고 기여이 열차를 정시로 떠나보냈던것이다. 열차의 정시운행을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사람이 어찌 그 한사람뿐이겠는가.

운행도중 보이라불판쇠가 떨어졌을 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열의 불가마속에 뛰어들어 불판쇠를 바로잡고 열차를 정시로 몰아간 기관차 승무원들이며 벼랑에서 굴러떨어진 집채같은 바위들을 가슴으로 안아내어 열차를 정시로 통과시킨 산중초소의 락석감시원들.

멀리서도 신호불을 제때에 가려보고 열차를 정시로 몰아가라고 신호등유리를 닦고 또 닦는 전기공아바이들이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신호기발을 높이 들어 열차를 정시로 통과시키는 건능길감시원들.

그들만이 아니다. 열차의 길 안내를 맡은 전철원들이며 검사항치로 화차의 진행부를 진단하는 검차원들, 아니 온 나라 전체 철도수송전사들이 열차의 무사고정시운행의 주인공들이다.

그 뜨거운 마음들에 떠받들려서 조국의 동맥은 언제나 뚫려있는것이며 열차들은 무사고정시로 힘차게 달리는것이다.

초소는 서로 달라도 그들모두는 혈액순환이 중단되면 유기체의 생명이 끝나는것과 같이 철도수송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면 나라의 경제가 마비된다고 하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새기고 열차의 무사고정시운행을 위해 1분1초를 따져가며 일하고있다.

그들은 하나의 광석차를 두 고서도 쇠물폭포 쏟아지는 용광로를 그러모든 하나의 통나무화차를 두고서도 들끓는 건설장을 생각하는것이다.

그들은 열차들이 정시로 달리는것을 보고 약동하는 조국의 숨결을 느끼며 높이높이 쌓여지는 조국의 재부를 본다.

이런 수송전사들이 지켜서있기에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압살하려고 그 아무리 책동하여도 조국의 동맥은 언제나

높뛰고 사회주의대건설은 힘있게
다그쳐지고있으며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끝
없이 흥성번영하는것이 아니겠

는가.
이런 생각을 하느라니 나에게
는 두줄기 은빛 철길우에 오늘도 래일
도 하나의 정시만이 흐를것이며 그

시간속에 당의 혁명적경제전
략 관철을 위한 충성의 기적소
리가 높이 울리리라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다 .

고향의 품에 안겨 외3편

-리인모동지를 대신하여-

박향희

분명 내 고향
설레이는 숲소리도
조잘대는 물소리도
온갖 산새들의 우짖음소리도
류달리 이 품에 젖어드는 파발리

죽음의 문턱에서도
사무치게 그리웁던 고향이건만
백발에 못걸는 아들이 되어
이 산촌에 찾아움을 서슴기를 그 몇번...

아니할 생각을 내가 했구나
고향이여 안기고보니
너의 푸른 숲 깊은 골마다
은혜로운 해빛이 나를 기다렸구나

너의 샘물 한모금 마음놓고 마시려
너의 꽃 한송이 부끄러움없이 보려
고문의 연기속에 쓰러질 때도
그 누가 이 가슴에
불사의 생명수를 부어주었더나

그분은
이 나라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
절해고도에 홀로 남아 숨져가는
이 인생의 마지막온기를
짚어보시며 긴긴날 지켜주신분

눈보라 사나우면 상처가 얼세라
어둠이 깊어지면 고독에 잠길세라
세상에서 이름도 발자국도 없어진
이 인간의 꺾이지 않는 신념을 믿으시여
그분만은 쪽잠마저 잊으셨거니

사람은 세계의 량심에 불을 지켰더라
포악한 원썬들의 철쇄를 녹이여
드디어 지옥의 막바지에서

나는 자유의 나라 퍼고
구원의 구세주
김정일동지의 품속에 안기였어라

물어보자 내 고향 사랑하는 산천아
너의 수정같은 웅달샘도
언덕에 산기슭에 주렁진 열매도
이산저산 날아예는 저 새무리도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것 아니냐

뜨거움을 삼키는 나를 부르며
엎어지며 달려오는 고향의 마중이여
진정 너의 그 뜨거움도
위대한 아버지 **김정일**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더냐

그래서 내 견고만싶다
이런날 이런 순간이면
백발을 훨훨 털어버리고
맨발로 뛰놀던 어릴적 그때처럼
운명의 태양이신 친애하는 그분께
천번만번 큰절을 드리고싶다

숫구치는 진정은 하늘에 닿아
못견딜 감사에 눈물만 숫구쳐
내 다만 말없이 바라보는 고향아
태양의 해빛이 너의 숲, 너의 골에 넘쳐
가득넘쳐 나는 알았나니

내 지금 안긴 품이
이 나라의 복변땅 시골이 아님을
나는 알았다
절해고도에도 해빛을 주시여
불우했던 이 생명에 활기를 주신
위대한 태양, 위대한 아버지
김정일동지의 하늘같은 그 품
참된 삶의 고향에 내 지금 안겨있다고...

나를 부촉하지 말아다오

내 비록 성큼성큼 뛰지는 못해도
구석구석 다 돌아보고만싶어
여기서만은 삼륜차를 세워달라

삼륜차에 앉아서도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재촉했건만
여기서만은 내 앉아있을수가 없거니

나를 내려와다오
나를 부촉하지 말아다오

멀리도 흘러간 8월의 그날
강도일제를 규탄하시던
김형권선생님앞에
내 그때처럼 서고싶노라

맨발로 달려와
한가슴에 애국의 불길 받아안던
더벅머리 그 모습으로
내 그이앞에 서고싶노라

차마 앓아서는 여기에
여기에 있을수 없노라
장군님의 뜻 가슴에 안겨주시던
선생님, 선생님앞에...

선생님 심어주신 그 뜨거운 열변
이 가슴에 신념과 의지로 삼아
역경의 40여년을 넘고넘어
이 푸른 언덕에 오른것이니

눈에 흠이 들어가도 잊을수 없는
선생님의 그 말씀
오늘도 울리누나
고향산밭에 찌렁찌렁...

아 그날의 메아리
그때처럼 이 가슴에 흘러드누나
살아도 죽어도 버릴수 없는것
장군님의 위대한 뜻
인간의 자유와 존엄이 빛나는
사회주의 복된 이 락원이라고

그날의 진리를 내 간직하노라
60년을 하루같이 간직한 그 신념
이제 남은 여생 그 어느 한시인들
그 어느 순간인들 내 어이 잊으랴

나를 부촉하지 말아다오
나를 걱정하지 말아다오
인생의 말기에 내 다시 여기서
투사의 발걸음에 걸음을 맞추며
나는 다시 활보하리 복받은 대지를...

내 고향의 시내물아

어디서 시작된 흐름이나
기슭에 우거진 풀숲사이로
노래하며 즐겁게
바위를 씻으며 굽이치는 물결아

내 어릴적
때없이 달려나와 세수하였지
너의 맑은 물에 얼굴을 비쳐보며
내 생김새도 눈에 익혔지

거울하나 걸지 못한 오막살이집
가난뱅이 그 집 이 아들 얼굴에
때가 오르면 때를 씻어주고
먼지가 오르면 먼지를 씻어주던

고향의 시내물 수정같은 물결아
네 어찌 내 얼굴만 씻어주었더냐
네 어찌 내 옷만 빨아주었더냐

비 오나 바람 부나 구슬처럼 깨끗이
굽이치며 흐르던 너의 맑은 물결은
내 가슴속에도 깊이깊이 흘러들어

언제나 깨끗하게 살게 했거니

시내물아
네가 흘러들어 고인 내 마음
그속에 한점 티라도 오르면
내 감히 어떻게 네 가까이
너의 흐름 웃으며 바라볼수 있겠느냐

와보니
머리에 백발이고
너를 찾아와보니
너는 예나 다름없이 수정같은 시내물
너는 예나 다름없이 구슬같은 시내물

너를 품고 오면서
암흑속을 오면서도
너를 한번도 흐리운적 없었다고
그것이 고마워 그것이 기뻐서

아 시내물아
너는 내앞에서
노래하며 춤추며 흘러흐르누나

황철나무야

어디보자, 황철나무야
팔목만한 너를 떠다심고
아침저녁 물을 주던
알겠느냐 더벅머리 그 소년을

강도일제의 발굽아래
혈뱃은 네 모습 차마 볼수 없어
나서자란 땅을 푸르게 하려던
나의 어린 꿈을 너는 알고있지

모진 풍상 다 이긴
너는야 력사의 증견자
말해다오 말해다오
네 지켜본 력사의 그 나날들을

흙뿌리와 산나물에 목숨을 걸고살던
북관땅 화전골 이 마을에도
따사론 해빛이 스며든것은
과연 그 언제부터였더냐

메마른 이 땅에 해빛을 주시려
수난의 설한풍을 헤쳐오신분
그 뉘였더냐

높고 험한 후치령을 넘으시여
아득히 먼길 찾아오신 수령님
그분의 자애가 좁이 된 이 땅에
뿌리깊이 내리고 푸르싱싱 자란 너

깜깜한 철창속에서도
내 언제한번 잊은적 있었던가
봄이면 새싹이 움트는 너를
가을이면 단풍이 불타는 너를

너의 아지 하나라도 부러지면 어쩌랴
너의 일새 하나라도 못피면 어쩌랴
어둠속에 너를 안고 칼바람을 막아주며
내가 온 길 40여년 길고긴 나날
소중히도 추억하던 나무야

나무야 고향의 벗
더없이 정다운 황철나무야
기쁘구나 반갑구나 너를 안으니
내가 없던 사이에도 나에게 복을 주시듯
너에게 사랑의 해빛을 뿌려주신
우리 장군님의 그 은덕에
눈굽이 젖어든다, 뜨겁게 뜨겁게...

비결 외 2편

오재신

어머니처럼
모든걸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머니처럼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이 뜻대로만 되지 않아
때로 내 맥을 놓으면 일깨워줍니다
거야 네가 일을 덜 사랑하기때문이라고

일이 곧 사랑이라고

어머니는 모르는 일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가슴에 사랑이
가득차있기때문입니다
어머니에겐 사랑이 곧 일이기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아들

해뜨린 옷과 신발이 얼마나 될가요
연필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쓴게 얼마나 될가요
아마 그건 두루 계산하면 알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나를 위해 기울인 정성
애도 말랐고 속도 무던히 탔던 일들
그건 또 어떻게 계산해야 할가요

오만자루 품을 들였건만
언제한번 그걸 타산해본적 없는 어머니
다 자란 이 아들을 대견해하십니다
한점의 부끄럼없이 이렇게
뽕뽕이 나를 자랑할수 있는 어머니의 이 행복을
아들아! 너는 어떻게 계산할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머니들 말합니다

어머니들 말합니다

아무리 멀고 험한 밤길을 홀로 가도
등에 업은 어린것의 숨결을 느낄 때
힘든줄 몰랐다고
무서운게 없었다고

젖품밖에 모르는 그 어린것이
오히려 길을 열어주고
발걸음 떠밀어주고
어둠을 가시여주었다고
령을 나즈막한 언덕으로 낮추어주었다고

어머니들 말합니다

등에 업은 그 어린것이 없었다면
멀고 험한 령을 홀로는 넘지 못했을거라고
엄두도 못낸채
령밧에 주저앉았을거라고

사랑은 짐이 되는 법이 없으니
피로를 잊고 길을 간것도
두려움을 가시여준것도
그것이 바로 사랑
아 사랑이 지닌 힘이였다고!

빨래를 하며

리재부(남조선)

밀린 빨래를 빨다보면

사소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때의 정도

혹은 옷감의 종류에 따라

빨 때와 행굴 때

각기 동작이 달라야 한다

이를테면 방망이를 대야 할놈들이 있다

이를테면 폭폭 삶아야 할놈들이 있다

이를테면 구제불능인놈들이 있다

이웃들의 피와 땀

눈물나는 생애를

값아먹고 토막내온

흡혈귀 기생충같은놈들

제놈들의 권력과 지위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랭전과 극우의 담을

높여온 파렴치한들

놈들이 더럽혀온

때 낀 조국의 세월을 빨 때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자세가 있다

정도 또는 종류에 따라

방망이를 대야 할것

폭폭 삶아야 할것

폐기처분하여 확실히 버려둘것

이 원칙과 자세야말로

우리들 생존을 위한

륜리요 도덕이요 법칙이다